

建築士



K.I.R.A.

vol. 406

2003

12 110



큰건물에 강하다

LG시스템에어컨 휘센

한 대의 실외기에 접속되는 냉매배관을 단배관으로 직렬구성하여 탁월한 에너지 효율, 편리한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효율적 배관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공간절약에 에너지절약의 효율을 생필망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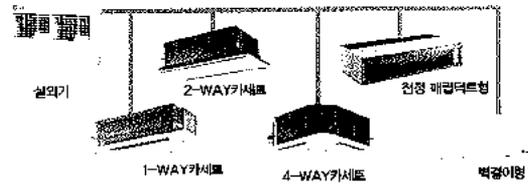
별도의 실내기 설치공간 및 기계실이 필요 없고, 기존 냉난방시스템 대비 최고 40%까지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BSCO자금 지원대상제품)

빠르고 강력한 인버터냉매방시스템

강력하고 유연한 인버터 압축기 채용으로 $\pm 0.5^{\circ}\text{C}$ 의 미세 온도제어와 1.5배 빠른 쾌속운전은 물론 영하 15°C 혹한기 난방까지 책임집니다.

자유롭게 실내기 설치 가능한 Free Join 빌딩 빌딩

4.5~30Hp의 실외기 용량, 다양한 실내기 기종 및 빌딩에 적합한 냉매배관 시스템(수평 100m/수직 50m)으로 설치가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개별/중앙제어시스템

실내기 개별제어/그룹제어/인터넷 제어/중앙제어/PC제어/적산전력 분배시스템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중앙제어 컨트롤러>



전문가라면 큰 건물에서도 크게 남는 장사를 하셔야죠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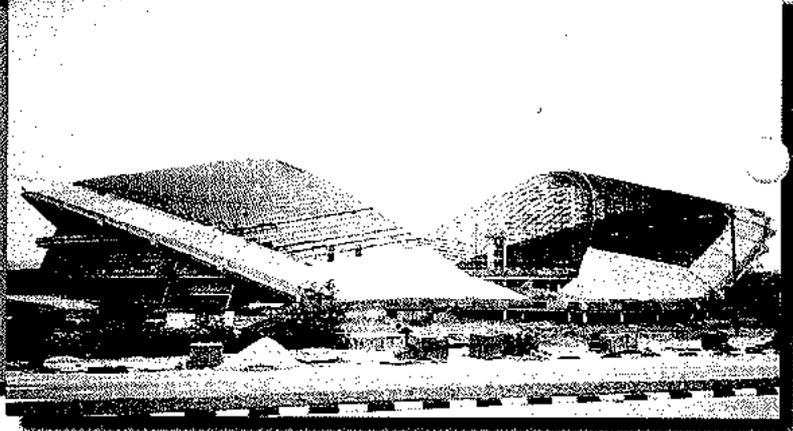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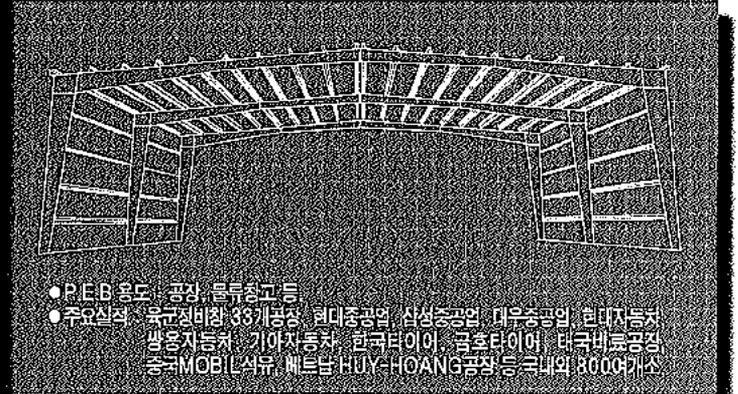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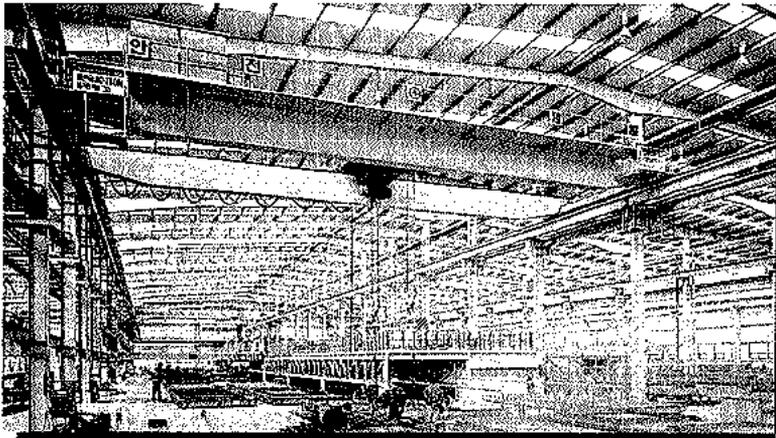
강남 (02)2005-3578 강북 (02)727-4180 경기/강원 (031)217-5091 인천/무현/안산 (032)321-9161 부산 (051)807-3241
 경남 (055)238-6402 경북 (053)257-0808 충청 (042)254-4210 호남 (062)510-5840 시스템에어컨MC (02)2005-3054

시스템에어컨 기술 상담 안내

서울 (02)2005-5055~60 # 시스템에어컨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를 방문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맥의 첨단기술

P.E.B & Space Frame



지난 20여년간 특수철구조물만을 개발하여온 한맥기술진은 Computer Software를 응용하여 3차원 구조역학의 P. E. B(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와 Space Frame System을 자체개발, 대규모 무주공간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철구조물에 비하여 30% 원가절감은 물론 현장조립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연간 7만여톤을 제작·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Asia 최대의 특수철구조물 Maker로 외관이 미려한 혁신적인 철구조물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상담 (02)783-9999

기술제휴 :  PASCOE BUILDING SYSTEMS, INC.

FOR MORE THAN **50** YEARS



특수철구조물의 개척자

한맥重工業株式會社
HANMAEK HEAVY IND. CO., LTD.

-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B-1 나-707
TEL : (031)499-0114(대), FAX : (031)498-0511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49(선기빌딩 4층)
TEL : (02)783-9999(대), FAX : (02)785-0030

http : //www.hanmeak.co.kr

정부조달 우수제품 인정
신기술 KT 인정제품

불연 인테리어 건축 내장 마감재

안탁민

- 불에 안타면서 불의 확산을 막아줍니다.
-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컬러, 패턴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 충격에 강합니다.

소방법, 건축법 에서의 해방!

2002. 4. 1 소방법 개정시행(대통령령)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업소의 벽체, 천정에
설치하는 실내장식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www.antamine.com / www.seohandeco.c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남동공단 1658-6L)

TEL:032-815-1674~7 FAX:032-814-4155 E-mail:seohan@antamine.com seohandeco@seohandeco.co.kr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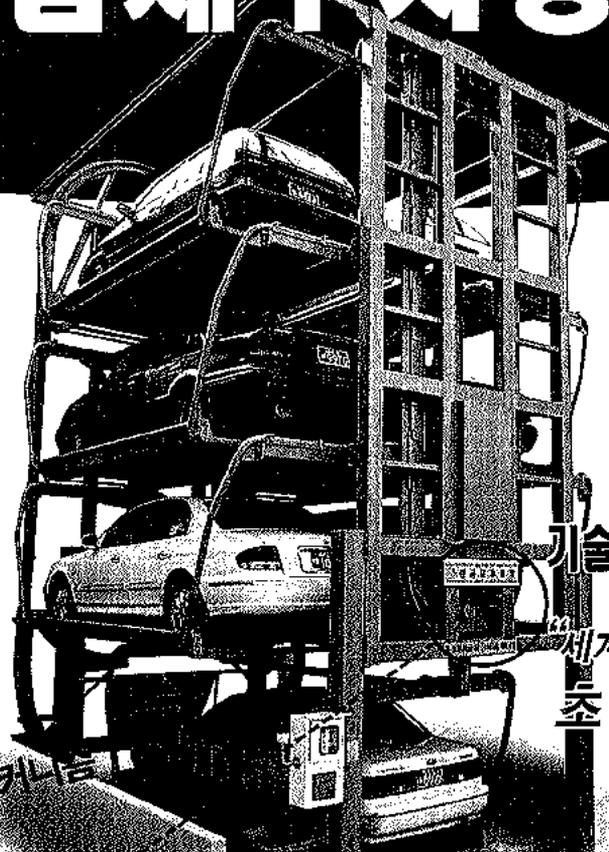
세·계·최·초·의·특·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스카이파크

SKY PARK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PL범용업태상책임포함
3억
현대해상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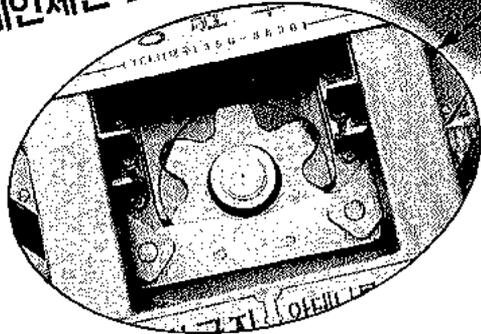
10년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이렇게 다릅니다

- 압정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시험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 **자매품** Pit를 피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피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칭	정공턴테이블(전입식)	실용신안등록 제0238726호	
수용 차종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조형식	미장 단층식		
	구동원리		φ 15KW×4P = 3P
	정기속도		약 1 RPM
조작 방법	PLSH-BUTTON		
연입 전압	AC 380V/220V/3φ-3W/50		
차기 용량	약 1000kg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 창공駐車産業
 since 1989 www.Juchagi.com

본사·공장 : 경북 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TEL : (053)956-8838(대) • p.p : 011-507-8838
 •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 E-mail : cgp210@kornet.net
 • 서울A/S센터 : (02)3665-2723 • 부산 A/S센터 : (051)784-6721



○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0%~13.5%

기간 / 1년~5년 (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삼성생명대출특선!!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신속한 처리

최저의 금리

상담문의
02-545-8853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자금이 필요하실 때에

약속.



우리은행,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

주택건설사업자의 꿈★, 우리나라 우리은행이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안정성,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아 새롭게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우리은행' 임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주택건설자금대출을 비롯한 주택금융에서도 더욱 앞선 서비스를 펼쳐나갈 우리은행과 함께 하십시오.

-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주택조합, 고용자에 대한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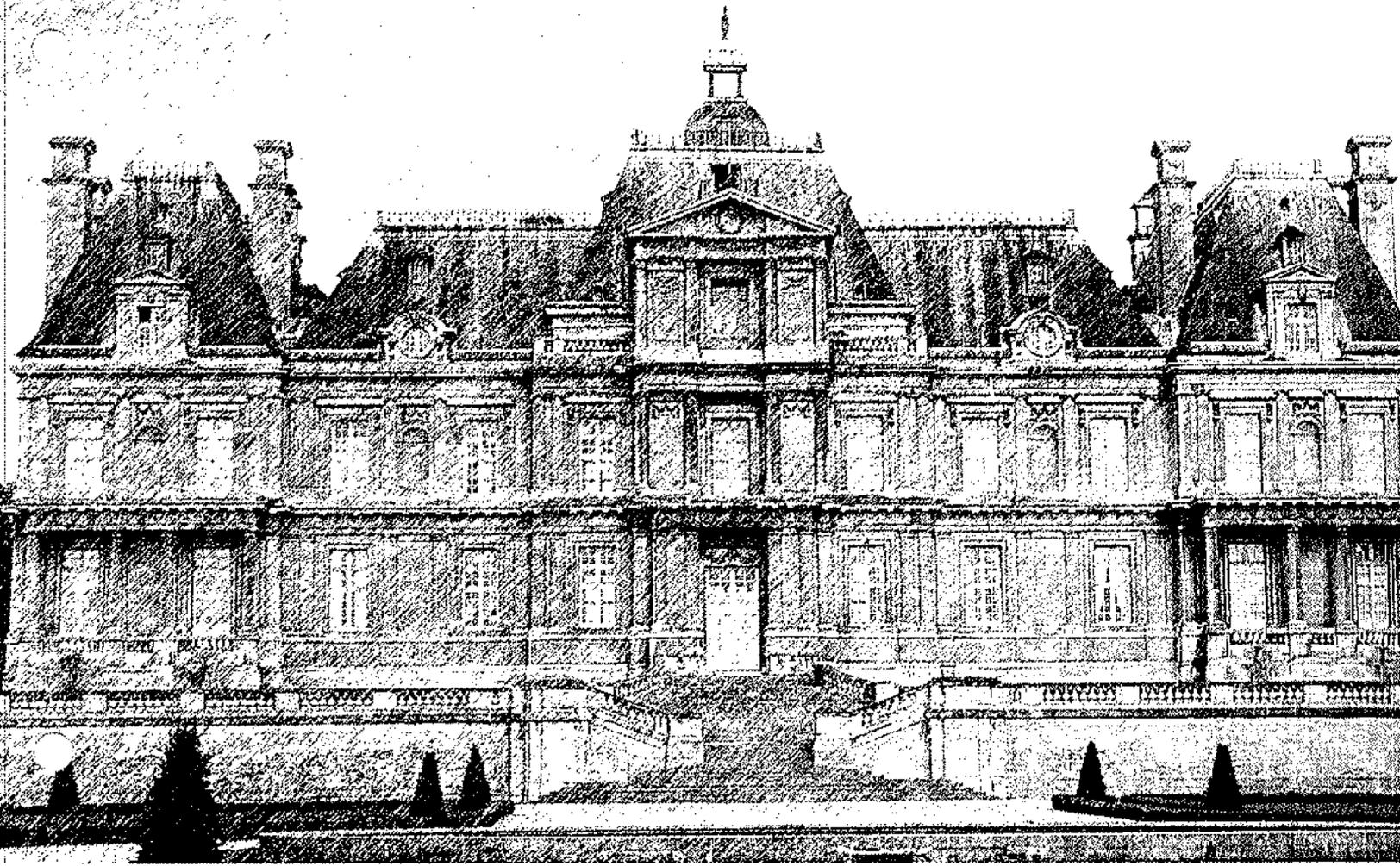
• 업무취급 예정일: 2003년 1월 • 안내전화: 우리은행 국민주택기금팀 02)2126-2900

우리나라  우리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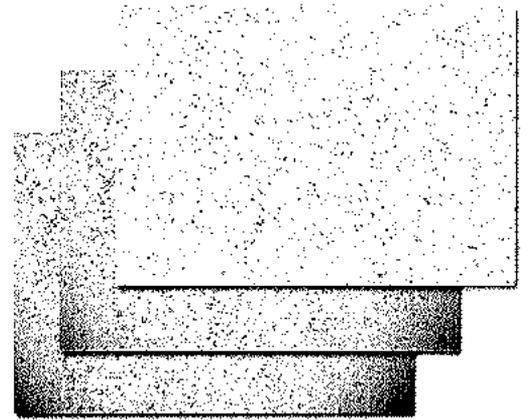
www.greencnt.com

이제 Design의
時空을 초월하자



RITZ STONE

-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모형 제작, 연출이 가능
- 자유로운 색상의 제품 - 천연 안료(산화철계통)의 사용으로 영구적 COLOR표현
- 석고형 제품으로는 발현할 수 없는 고강도 제품
- 방습, 방수, 방염
- 보온, 흡음 효과
- 뛰어난 내구성으로 반영구적
- 환경친화적인 소재(천연 무기질 세라믹 원료)
- 제품의 경량화로 구조적 부담절감



주요생산품

- RITZ STONE 내,외장 마감재료
- RITZ STONE 몰딩
- RITZ STONE 각종 기둥
- 다양한 모형제작
- 인공 바위 제작

(주) 그린 씨 앤 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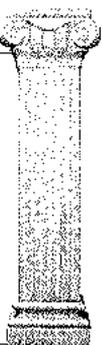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1번지

정남빌딩 4F

전 화:(02)541-5455

팩 스:(02)541-2338

<http://www.greencnt.com>



건설시공감리화상시스템 CSIS - 사무실이 곧 현장입니다

Construction
Supervisory
Image
System

효율적인 문서관리에서 빈틈없는 실시간 현장모니터링까지- 시공감리화상시스템 CSIS로 한 번에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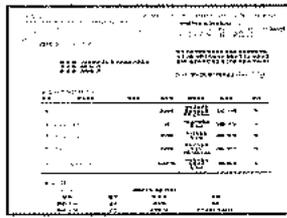
시공감리화상시스템 CSIS는 영상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현장관리와 화상회의는 물론, 체계적인 문서관리까지 가능한 이상적인 시공감리 솔루션입니다. CSIS와 함께하면, 언제 어디서나 감리업무가 가능해지며, 건설감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 CSIS_Main
시공감리업무 문서관리시스템



● CSIS_SiteWatch
현장모니터링지원



● CSIS_Web
웹사이트 지원



● CSIS_Conference
영상회의지원

■개발원



[주] 소넷아이에스
www.sonetis.co.kr
02.511.3666



[주] 테크노비전
www.technovision.co.kr
02.539.9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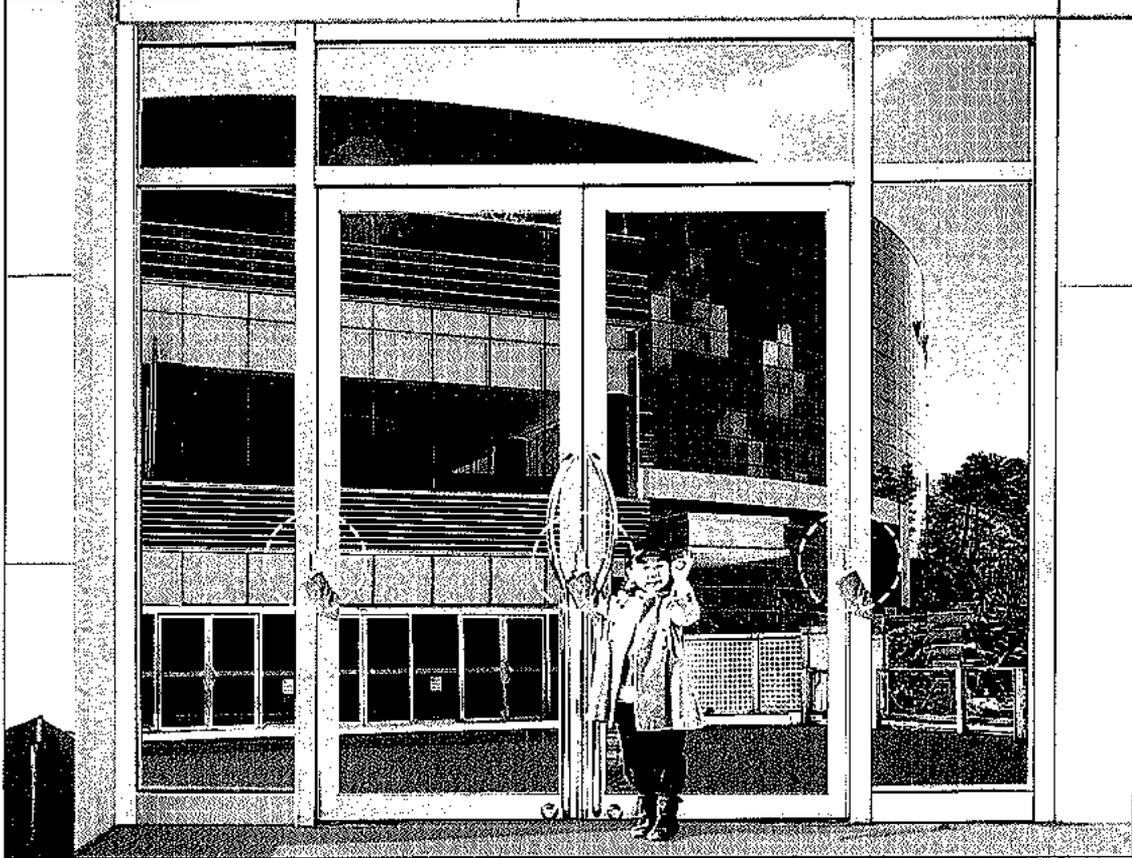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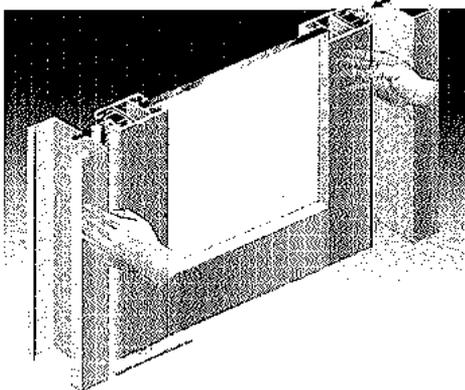
[주] 디디알플러스
www.ddrplus.com
02.6262.2767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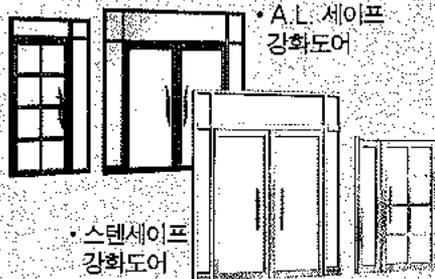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중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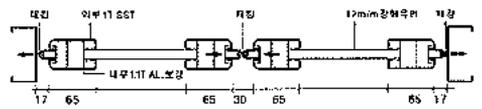
· 스텐세이프 강화도어

설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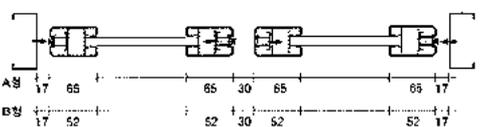
- 학교 · 관공서 · 종교건물 등
- 에식장 · 은행 · 아파트 · 빌딩
- 목욕탕 · 상가건물 · 유치원
- 백화점 · 병원 · 호텔 · 기타

평면 상세도 (출페이지 설계 다운로드 참조)

Ⅰ 사용 상태도



Ⅱ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우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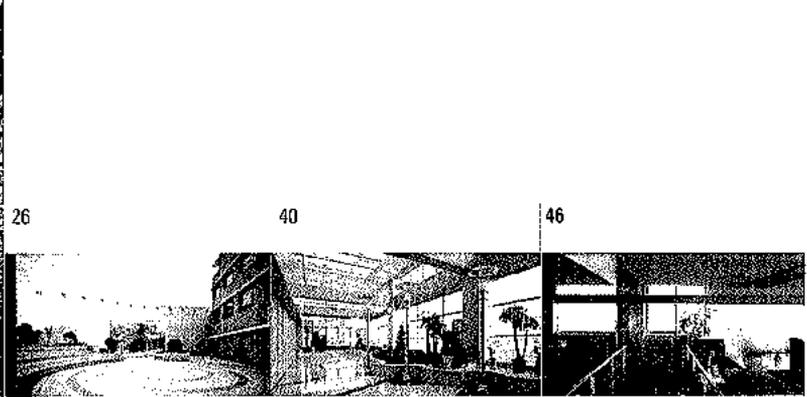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374번지
전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 : jungwoo9800@hanmail.net

벤처기업등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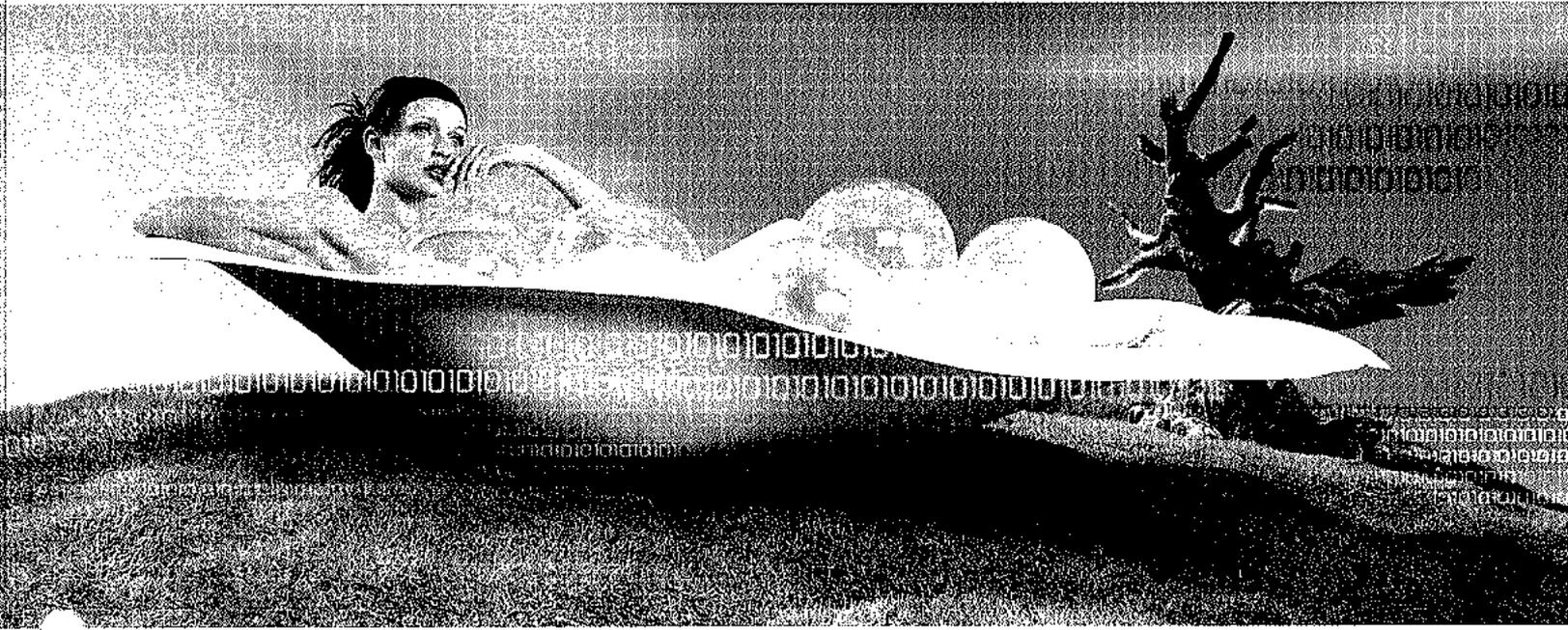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김창수, 박승, 현승훈 作)



특별기고	정체(停滞)되지 않는 정체성(正體性)을 향하여	부대진	16
건축민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한국도예고등학교	김동훈	22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김창수·박승·현승훈	30
	연합철강 사옥	김지호·오동희	36
	뮤즈+엑스트라	정춘국	42
기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법과 기준 (2)	이회정	48
보고서	제10차 아시아 건축사대회(1)		63
건축미당	건축계소식		67
	해외잡지동향		72
	현상실계		76
	법령		88
	세무안내		94

발행인: 우남웅
 홍보편집위원회: 정정처, 박영식, 김수경, 목대상, 민승렬,
 박주원, 심우근, 최정일
 취재·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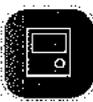
당신의 보일러는 디지털 입니까?



린나이 디지털 보일러 디지털 —

- 

디지털은 가스비가 절약됩니다
가스불꽃이 컴퓨터로 자동조절되어 불필요한 열손실을 막아 유지비를 최소화시키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입니다.
- 

디지털은 인터넷 제어시스템으로 앞서갑니다
홈네트워크 기술의 완성으로 인터넷을 통해 밖에서도 가정 내에 있는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주문생산)
- 

디지털은 리모콘 사용이 편리합니다
기본 리모콘 외에 별도의 리모콘을 추가로 설치하여 각방의 실내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은 샤워하는 즐거움이 다릅니다
맞춤온도 유지기능으로 언제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특히, 디럭스형의 경우 방수처리된 추가 리모콘으로 욕실에서 샤워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은 온수 사용이 훨씬 편리합니다
35°C에서 60°C까지 온수의 온도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6·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상장카드, 할부금융
(상상계좌)



6년연속 고객만족도 1위 업체 선정
가스보일러: 능률합격전실링



상공의날
품질산업추진수훈



동종업계최초
A/S 우수기업 인증



2001년 품질경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

Rinnai 린나이코리아(주)

전국지사 및 영업소 서울 320-5555 인천 512-0002 수원 247-3651 부산 583-6225 대전 625-6314 대구 382-3652 광주 521-2651 창원 238-3601 강원 (원주)744-8111

■ 업계최초 A/S 우수기업 인증 ■ 365일 연중무휴 서비스 ■ 신속한 본사직영 서비스 체제 ■ 동결기 24시간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1544-3651 ■ 고객센터(수도권 통합서비스) 02-325-3651, 365-3651



Special feature

The Stream of Identity Bou Dae-Jin 16

Cartoon Yoo Won-Jai 21

Works

Korea Ceramic Art High School Kim Dong-Hoon 22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ransportation Center Kim Chang-Soo, Park Seung & Hyeon Seung-Hoon 30

Union Steel Building Kim Ja-Ho & Oh Dong-Hee 36

Muse & Extra Jung Choon-Cook 42

Feature

Implementation Guideline for District Unit Plan Lee Hee-Chung 48

Report

After Visiting the 10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63

Architects' Plaza

Archi-Net 67

Overseas Journal 72

Competition 76

Laws & Ordinances 88

Taxation business 94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Jeong Jeong-Chi, Park Young-Sik,
Kim Soo-Kyeong, Mok Dae-Sang,
Min Seung-Pyeol, Park Ju-Hwan,
Shim Woo-Keun, Choi Jeong-I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For the Generations to 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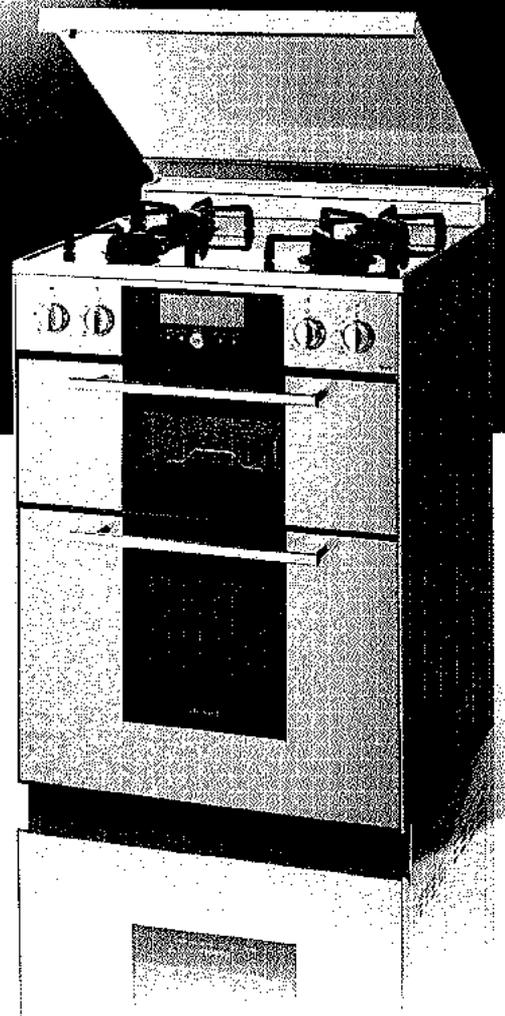


여자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여자의 감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린나이도 변했습니다
여자를 위한 화려한 변신! 레볼루션 린나이

- 우수디자인 산지부 장관상 수상
- TOP**
- 고품격 독일 세라(CERAN)글라스 상판
- 유럽스타일의 글라스 커버
- GRILL**
- 삼연 입체가열방식의 대형그릴
- 15분 자동소화 안전타이머
- 위생적인 항공쿠팅 그릴
- OVEN**
- 레속조리 디지털 컨벡션 / 능
- 편리한 마이콤 오븐자동요리 기능
- 위생적인 참숯 환풍 코팅

■ MODEL : RSF-31CS

Jewell 주별



■ 제품 구입 및 문의 : - 전국 유통 박화설 및 월인점등 대영유동점 · 가스 오븐/레인지 대리점 : 1588-3292 · 보일러 대리점 : 1588-9933 · 인소용기기 대리점 : 02-320-5555
■ 전국지사 및 영업소 : 서울 320-5555 · 인천 512-0002 · 수원 247-3651 · 부산 583-6225 · 대전 625-6314 · 대구 392-3652 · 광주 521-2651
· 창원 238-3601 · 양주 744-8111 ■ FAX A/S접수 : (02) 323-3651 ■ 서비스 고객 상담실 : 전국 어디서나 1544-3651 ■ 인터넷 주소 : <http://www.rinnai.co.kr>

Rinnai 린나이코리아(주)

정체(停滯)되지 않는 정체성(正體性)을 향하여

The Stream of Identity

부대진 / 진아종합건축사사무소
by Bou Dae-Jin

2002년 가을 한국건축문화대전 심사를 맡으면서 주어진 주제는 한국 도시 건축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 잡지 등을 읽어 봐도 “한국 도시 건축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회복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본다.(필자주)

정체성은 철학적인 문제다

정체성(正體性) 「명」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위의 사전적 의미 만으로는 명쾌한 정체성의 뜻을 잘 모르겠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한국 도시 건축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한국 도시 건축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무척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모호한 것을 회복해야 한다니...

그렇다면 왜 필자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체성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탁석산씨의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인용해 보겠다.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를 생각해보자. 백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테세우스의 배가 있다.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다른 조각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부분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되어 결국엔 백 조각 모두를 다른 조각으로 대체했다. 이 경우 새로 보수된 배는 원래의 배와 동일한 배인가, 아닌가? 즉 모든 조각을 대체했음에도 원래의 배는 정체성을 유지하는가의 문제이다. (중략) 이것이 정체성 혹은 동일성의 문제라 불리는 전형적인 형이상학의 문제이다. 이쯤하면 누구나 이 문제가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¹⁾

좀 더 발전시켜 보자. 테세우스의 배를 타고 부산에서 제주도로 출발했다. 이때 백 개의 조각을 싣고 출

1)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문고 - 우리시대, 2000년 4월 27일, page31

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 위에서, 백 개의 조각을 새로운 조각으로 대체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원래의 배에서 나온 조각은 별도로 조립을 해서 이제 두개의 배가 제주도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배가 출발 당시의 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도착한 두 배는 같은 배인가?

정답은 없다. 지난 2500년 동안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인류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름대로 정체성의 의미를 정하면 그만이다. 특히 건축가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의미를 정하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다

이번에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보자. 배의 보수 공사를 맡은 사람이 건축가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건축가는 배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건축가는 배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다른 조각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는 1년 10일간 떠다녔다. 그런데 이 기간을 100년으로 늘려 가정해 보자. 100년 동안 동물들이 100배로 번식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원래의 방주의 모습을 유지하면 짐몰한다.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가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가?

다시 테세우스의 배로 돌아가보자. 그런데 배 안에는 더 가볍고, 강한 새로운 재료와 기존의 재료 모두 있다고 가정해 보자. 건축가가 원래의 배와 같은 재료로 새로운 조각을 만드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길인가? 백 개의 조각을 모두 원형과 같은 재료로 대체한 건축가는 배의 정체성을 지켰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재료를 쓰는 것도 정체성과는 무관하지 않을까?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변하지 않는 것은 보수 공사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 뿐이다. 즉, 변화만이 불변한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있다. 이 문제를 풀어 보기 위해서 몇 파리시와 서울시를 살펴본다.

파리시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테세우스의 배와 유사하다. 도시를 이루는 건물들은 배의 조각과도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각(건물)은 변화를 겪는다. 짓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19세기 서양 주요 도시는 100년 동안 떠있는 노아의 방주와도 같다.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 도시의 크기와 형태로는 도저히 수용이 힘들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유럽과 미국에서 대규모 도시(Metropolis)의 탄생을 가져왔다. 코르뷔지에를 비롯한 20세기 초반의 서양 건축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도시화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보다 낫은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했다. 그들의 작업이 정체성 확립에 기여 했는가? 만약 기여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는가? 한번 살펴 보자.

코르뷔지에가 본 세계 도시의 인구 증가²⁾

(단위: 명)

	1800 년	1880 년	1910 년
파 리	647,000	2,200,000	3,000,000
런 던	800,000	3,800,000	7,200,000
베 를 린	182,000	1,840,000	3,400,000
뉴 욕	60,000	2,800,000	4,500,000
서 울*	190,000	200,000	280,000

* 서울 자료는 필자가 비교를 위해 추가한 것임.

2) Le Corbusier, The city of tomorrow and its planning, Dover, 1929년, page94

적어도 위의 서양 도시들은 정체성이 분명한 도시들이라 가정하자. 어떻게 조각들이 변하는 테세우스의 배가, 인구가 늘어나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했는지 보자. 여기서는 지면상 파리의 예만 들어 보겠다.

19세기 파리(Paris)는 위에서 언급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 100년 동안 60만의 인구가 300만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건물이 신축 되었다. 물론 건물들의 형태와 재료도 18세기와는 다르게 지어졌다. 새로운 조각이 삽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의 크기 자체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파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21세기 파리는 950만 명의 광역시로 확장되었다. 도심 외곽으로 도시가 추가 확장되었지만 중심지에는 몇몇 건물만이 추가가 되었다. 아직도 파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

어떻게 60만 명에서 950만 명으로 늘어난 노아의 방주(파리시)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을까?

그 대답은 다음의 건물들의 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연 도	주 요 건 축 물
1889년	에펠탑 (Eiffel Tower)
1937년	팔레 드 샤이롯 (Palais de Chaillot)
1958년	파리 외곽 라데팡스 개발 시작 (Work starts on La Defense)
1969년	르 할레 개발 (The old central food market at Les Halles is moved to Rungis, outside Paris)
1977년	뽕피두 센터 (Centre Pompidou)
1986년	오르세이 미술관 (The Orsay Museum)
	라빌레 공원 과학원 (Cite des Sciences at La Villette)
1989년	루브르 피라미드 (Louvre pyramids)
	바스티유 오페라 (Opera Bastille)
1996년	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 de France)

지난 100여년 동안 파리 중심지에 지어진 주요 건축물들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위의 건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특히 파리 도심 외곽에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와 오피스 건물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파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는 위의 건물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의 정체성과 주요 부품 (펜티엄 프로세서)

사무실 구석엔 오래된 286 컴퓨터가 있다. 사람들은 “저건 컴퓨터도 아니다.”라고 한다. 이제는 쓰기에는 너무 느린 프로세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외관상의 모습은 지금의 최신형 펜티엄 컴퓨터와 비슷하지만 이미 컴퓨터로서의 정체성은 상실했다. (컴퓨터도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혁신적으로 변하는 주요 부품의 quality’에 있다. 컴퓨터에 있어서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혁신적으로 변하는 주요 부품은 프로세서이고, 도시에 있어서는 주요 건물들이다. 주요 건물들이 혁신적이고 높은 quality로 지어질 때 정체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사무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와 별 차이가 없다.

앞에 언급한 파리의 주요 건물들의 특징 또한 혁신과 높은 quality에 있다.

앞에서 변화만이 불변하며,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파리는 특히 주요 건축물에 있어서 혁신과 quality를 통해서 변화를 하고 있다. 정체성은 혁신과 높은 quality의 문제인 것이다.

서울의 정체성

서울은 도시화가 서양보다 약100년 정도 늦게 이루어졌다. 600년 서울 역사 중에 첫 500년은 인구가 200,000 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 당시 지어진 경복궁, 창덕궁, 사직, 종묘와 주요 도로인 세종로와 종로는 인구 200,000명 도시에 맞게 지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적이고 양질로 지어졌다. 1930년까지도 인구는 350,000 명 수준이었다. 그 이후 60년 동안 인구는 1,00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건물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서울의 건물들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

코르뷔지에 100년 후 서울의 인구 증가 ³⁾

(단위: 명)

	1900 년	1980 년	2010 년
서울	200,000	8,360,000	12,000,000(?)

1428년 서울 인구는 100,000명으로, 첫 500년 동안 인구 변화는 미미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인구 유입은 엄청난 양의 건축을 의미한다. 20만 명을 위한 작은 도시에 1,000만 명 이상을 위한 도시 건축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모두 지어졌다는 이야기다. 숫자만 비교해도 근대화 이전의 건축이 2%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라는 숫자는 단지 인구대비 주거 건축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숫자이다. 근대화 이후에 생긴 각종 산업 및 상업 시설을 생각하면 근대화 이전의 건축이 1%를 넘을 수 없다.

테세우스의 배가 새로운 조각들로 100배 이상 커진 것이다. 100배로 커진 서울(테세우스의 배)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근대화 이전 1%에 해당하는 건물은 일부 궁궐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전통 건축물들이 서울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혁신적이고 높은 quality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60년간 지어진 건물들이 정체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다. 주요 건물들이 혁신적이지 못하고 낮은 quality 이기 때문이다. 파리의 주요 건물들과 비교해도 알 수 있고, 몇 해전 지어진 신동경 사청이나 베를린의 국회의사당과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난 60여년간 도시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주요 건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 이전에 지어진 혁신적이고 높은 quality의 몇몇 전통 건축물들이 아직까지도 서울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성과 정체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

'한국 도시 건축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국 혁신적이고 높은 quality의 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요 건물들을 지을 때 이는 중요하다. 의미다.

정체성은 정체(停滯)된 생각이나 형태에 있지 않다. 정체성의 본질은 변화에 있다. 어떻게 변화느냐의 문제이다. 정체되지 않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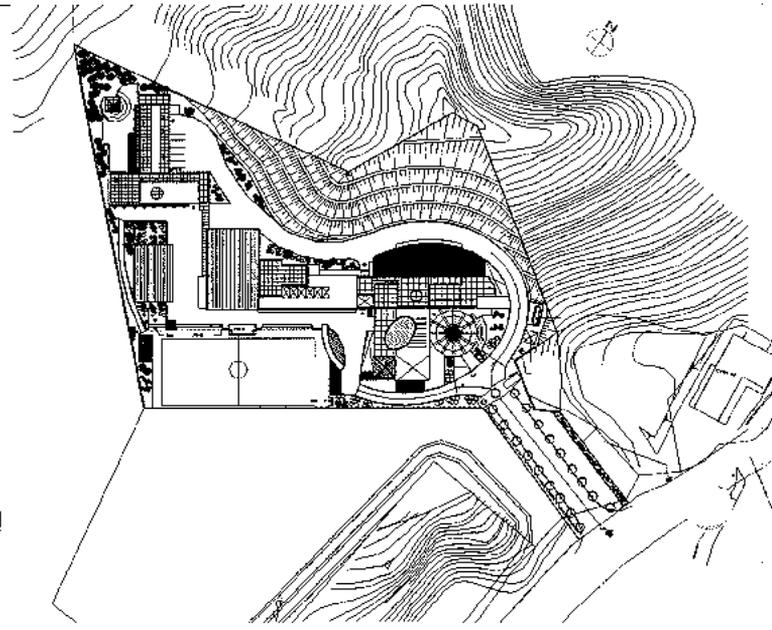
한국도예고등학교

Korea Ceramic Art High School

김동훈 /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Dong-Hoo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산32-16외 1필지
지역지구	농림, 보존녹지(생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대지면적	14,065.05㎡
건축면적	3,095.21㎡
연면적	9,229.93㎡
건폐율	22.00%
용적율	52.65%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1.00m
외부 마감	외벽 - 토석벽돌 치장쌓기, T=30 화강석 버너구이, 외단열 토탈시스템
내부 마감	창호 - T=18,16 컬러복층유리, T=3 맑은유리 바닥 - T=30 화강석 물갈기, T=3 적층식 비닐계타일 T=32 테라조타일, 인조석현, 장물갈기 벽 - 수성페인트 2회, 무늬코트, 토석벽돌치장쌓기 천정 - T=6 시멘트계천정판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주요설비	T=25 불연흡음보드 T=12 흡음텍스 난방 - FCU + 일부 패널히팅 / 냉방 - FCU + 일부 Pack AE AIRCON
설계담당	지영호, 김영삼, 김홍안, 정순철, 안성진, 황진아, 장석운, 김대현, 김중근
구조	(주)전우엔지니어링
설비	(주)협우엔.이.씨
전기	(주)무림설계기술단
토목	(주)세광엔지니어링
건축주	경기도 교육감
설계기간	2000년 04월 11일 ~ 2000년 06월 09일
공사기간	2001년 10월 20일 ~ 2002년 04월 25일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배치도

건축가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다른 건축가가 접해보지 못한 프로젝트 하고 싶어할 것이다.

“한국 도예 고등학교”

옛 선인들이 갖고 있었던 훌륭한 장인정신은 고려청자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더

욱 계승 발전시켜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처음 현상공모가 공고되었을 때 약간은 망설였지만, 몇해전인가 현재 모 일간지 사장님 고향에 도예 전시관 및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설치한다고 하여 몇 개월간 자료를 수집 기본계획을 한 적이 있다.

또한 경기대학교 요업과 실습용 가마를 설계하면서 익힌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머리를 짜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 용기를 내어 작업에 착수 하였다. 같이 작업에 임한 팀원들이 다행히 그 당시 같이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라 언어소통에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

더욱 용기를 준 것은 이전에 계신 도예 관련 학과 교수님의 세심한 지문과 조언이었다. 흔히 소홀히 할지도 모를 여러 사항들을 실제 시설물과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의 도예 고등학교가 시행착오 없이 운영되는데 큰 도움을 주신 것 같다. 다시 한번 그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국 도예 고등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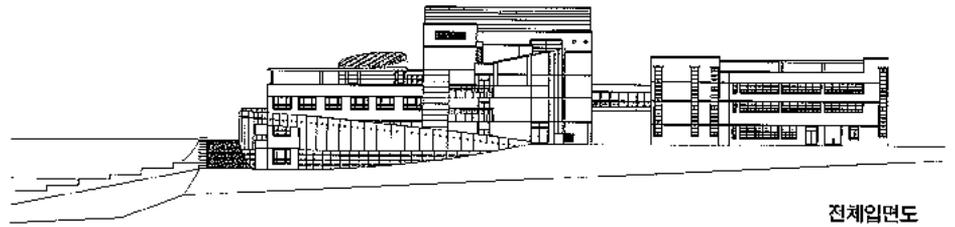
- 도예 교육기틀의 모델 학교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 이미지 구현
- 전인 교육의 장으로 자연환경과 친화적 배치
-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다양한 공간연출
-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실용성과 기능성의 극대화
- 일조 및 조망 등의 환경을 고려한 계획
- 학생 전용시설을 확실한 프라이버시 확보와
- 외부인 개방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접근성 및 개방성 제공
- 보행자와 차량통선의 명확한 분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모든 일이 궁합이 맞아야 하듯이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잘 짜여진 우리 회사의 팀원들과 그를 이끄는 훌륭한 아전군 사령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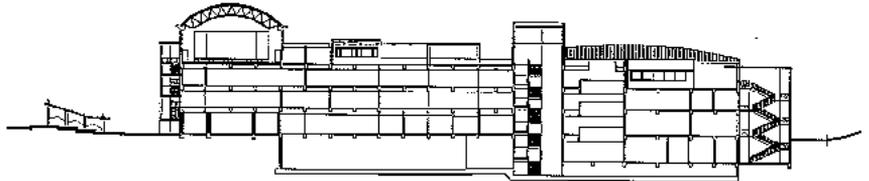
지난 한해 진우건축 식구들 수고들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글/김동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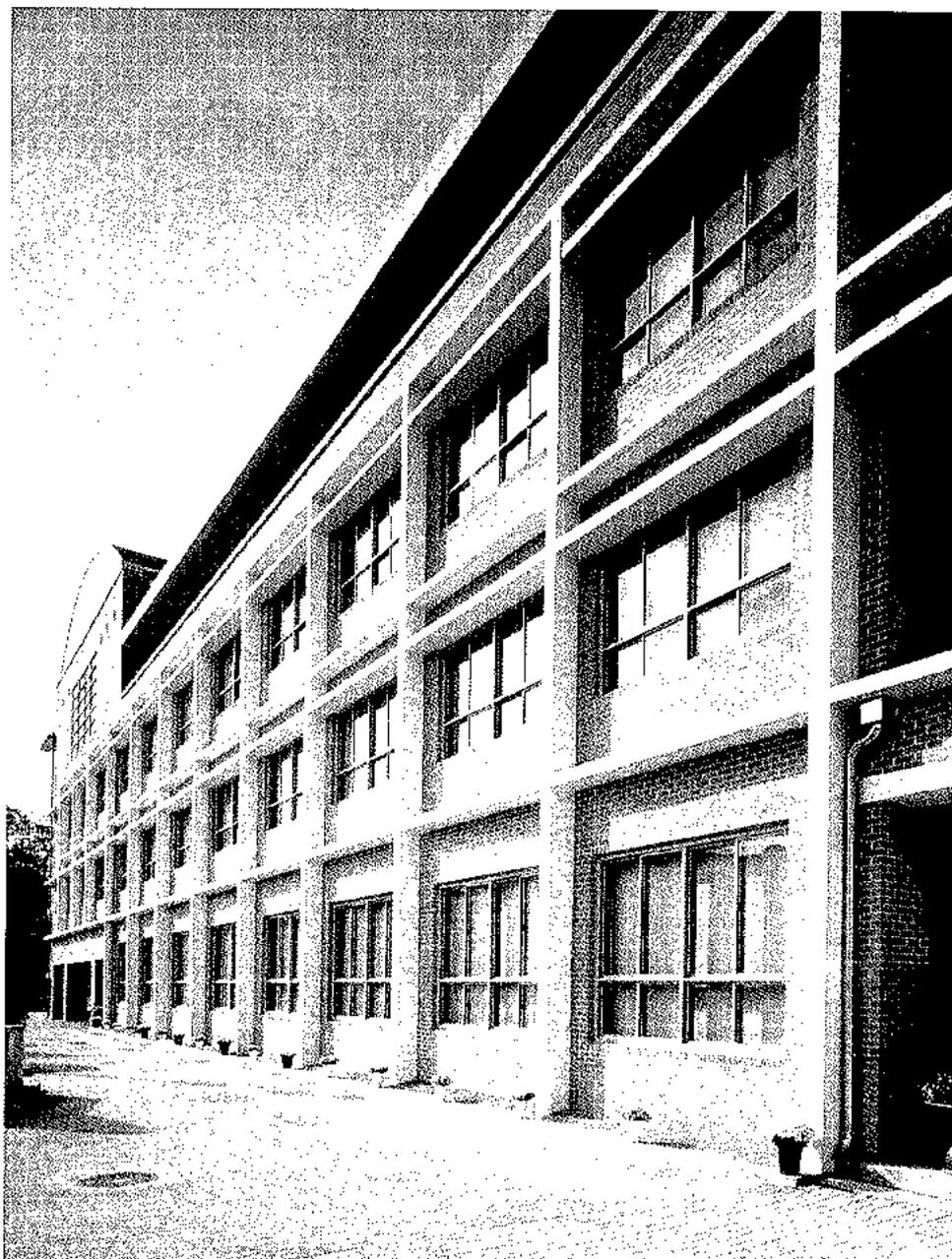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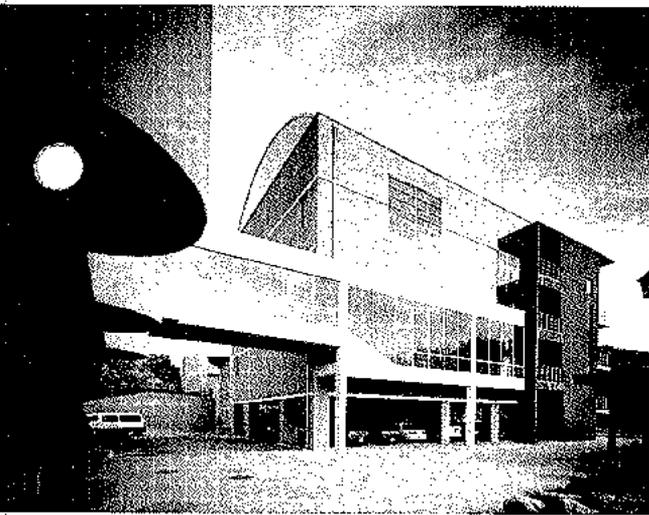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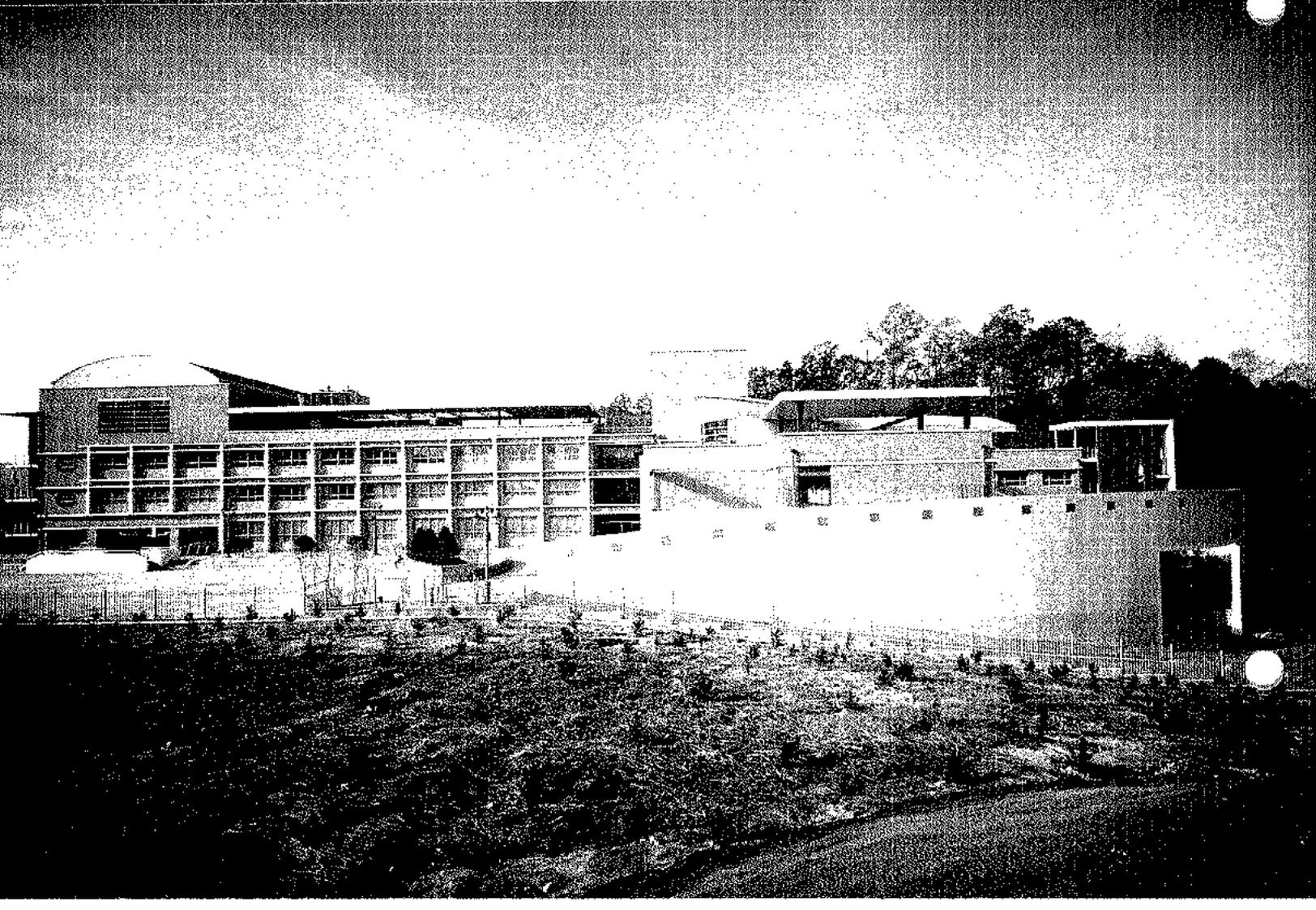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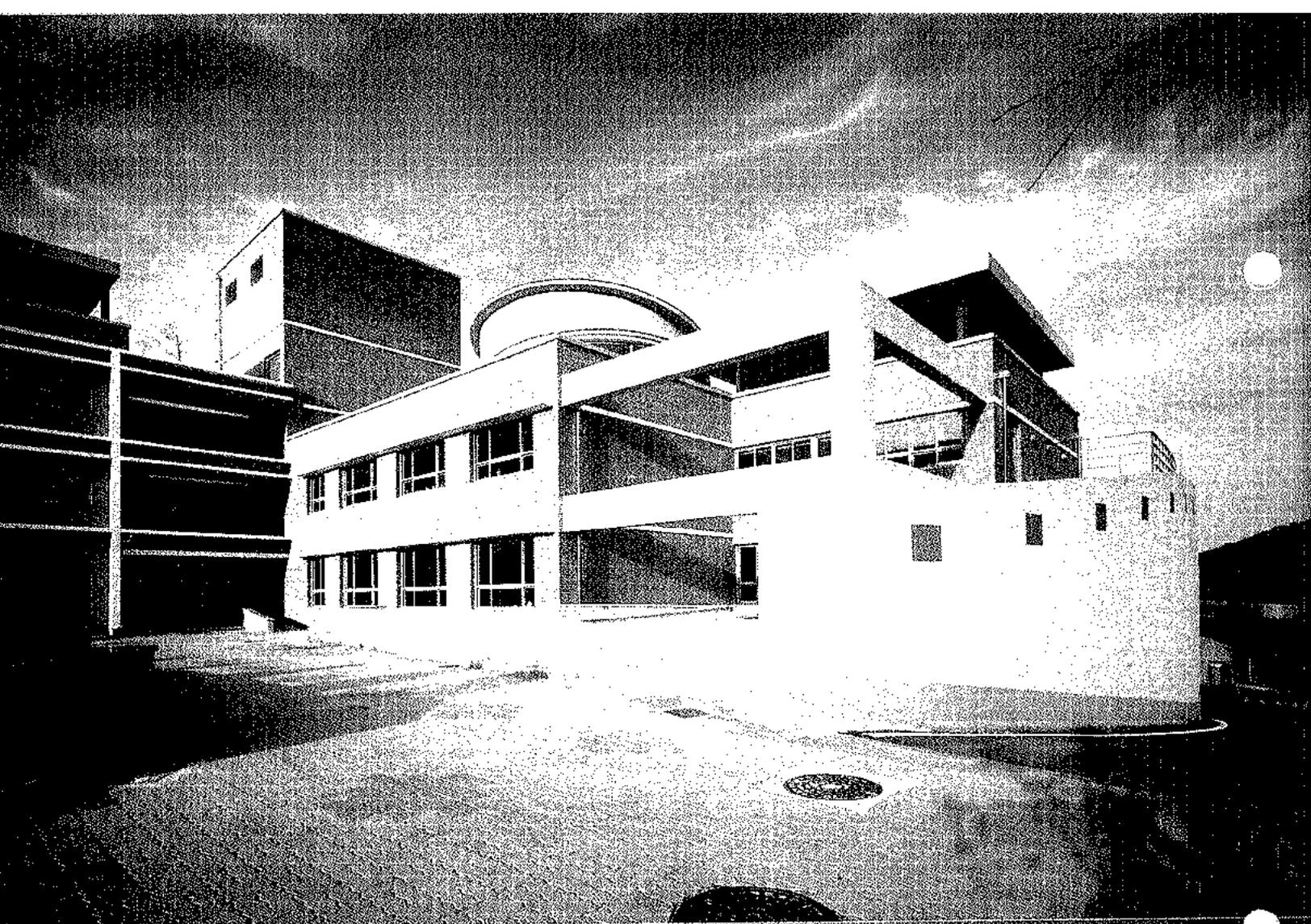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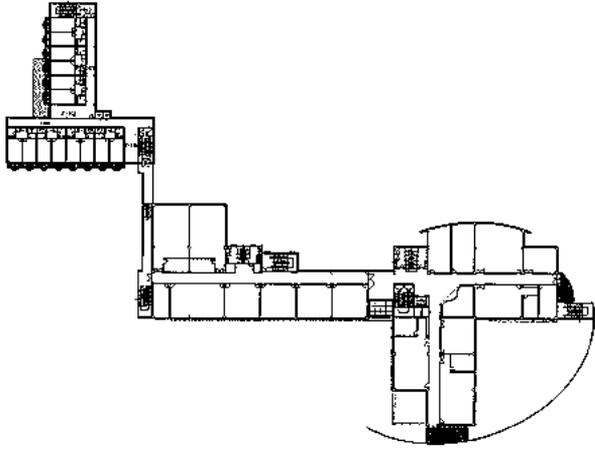
전체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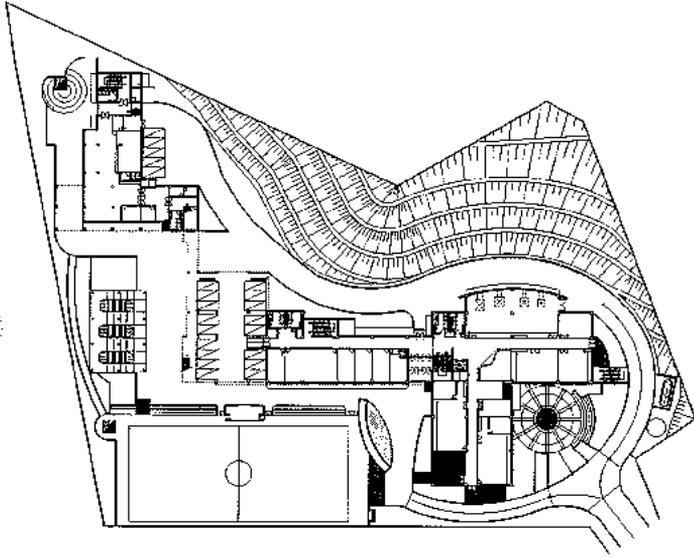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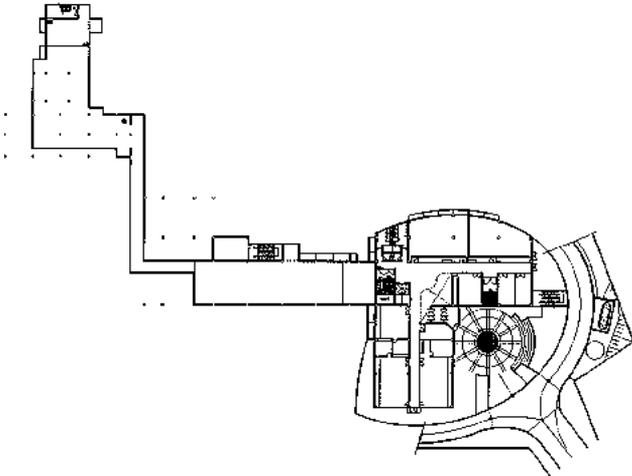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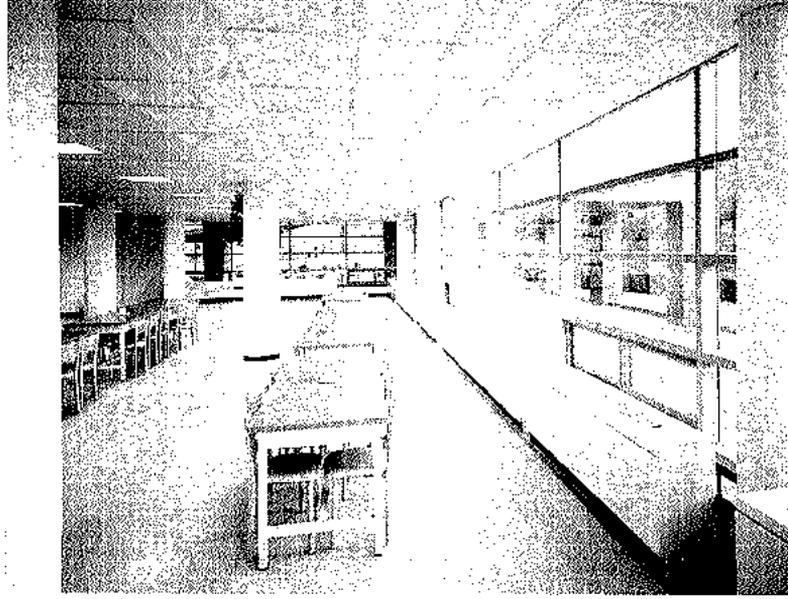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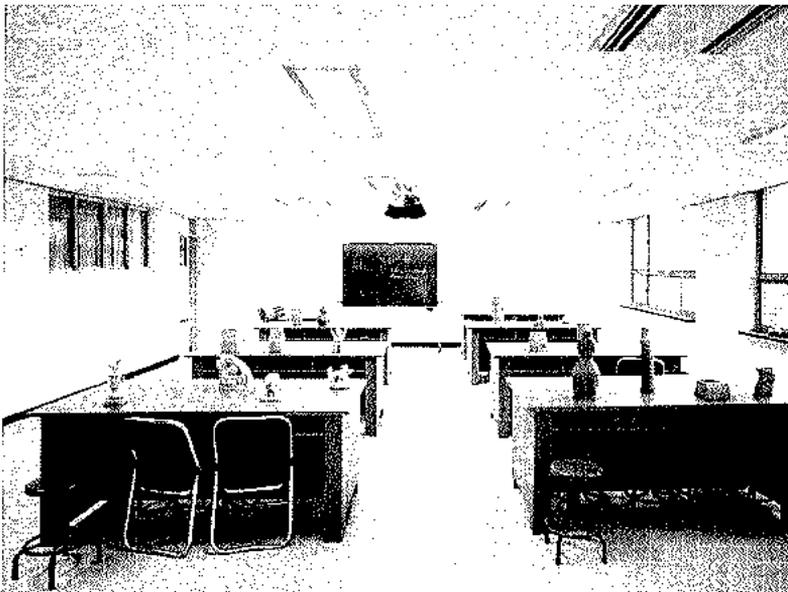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ransportation Center

김창수 · 박 승 · 현승훈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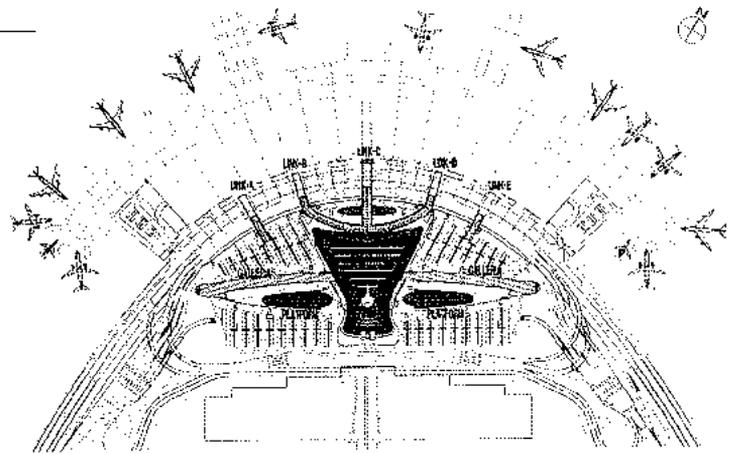
Designed by Kim Chang-Soo, Park Seung & Hyeon Seung-Hoon

건축개요

연 면 적	249,896.30㎡ (75,593.63평)
건축면적	36,884.42㎡ (10,855.04평)
층 수	지하3층, 지상2층
건물높이	45m
구 조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지하3층 : 1,343대 지하2층 : 1,386대 지하1층 : 1,226대(장애자용 44대 포함) 지상1층 : 1,048대(장애자용 48대 포함) 합 계 : 5,003대(장애자용 92대 포함)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2002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일선작)



배치도



설계개념

교통센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신공항의 관문, 비행체의 상징, 음양의 조화, 수복강녕의 염원 등이 설계개념으로서 설정되었다.

• 신공항의 관문

교통센터는 철도 및 승용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들고 나는 것을 상징화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공항에 대한 상징적인 관문임을 표현한다.

• 비행체의 상징

교통센터는 항공기의 형상과 행운을 가져오는 새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레이트 홀의 지붕구조는 땅에서 하늘을 향해 비상하려는 커다란 비행체 또는 새의 상징적인 형태를 표현하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 음양의 조화

지상부의 건축규모는 최소화하되 여객터미널 전면부의 Open Space는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여객터미널의 특징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교통센터의 조형성도 강조하는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수복강녕의 염원

전통적으로 마을어귀에 서서 안녕을 기원하는 솟대와 수복강녕을

기원하는 학의 염원을 담아 신공항을 이용하는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기원하고자 하였다.

구조개요

1) 구조형식

철골구조(Great Hall, Link Bridge, Galleria) + RC(지하주차장)

2) 감재사용량 : 총 12,000 여 ton

• Great Hall - 7,170ton (17,431pcs)

• Link Bridge - 3,110ton,

• Galleria - 750ton

• Platform & Retail Skylight Truss - 250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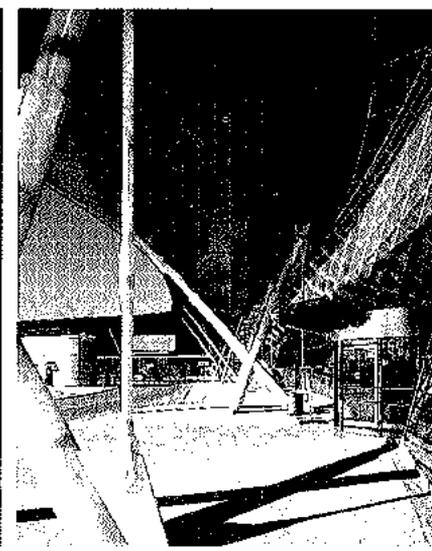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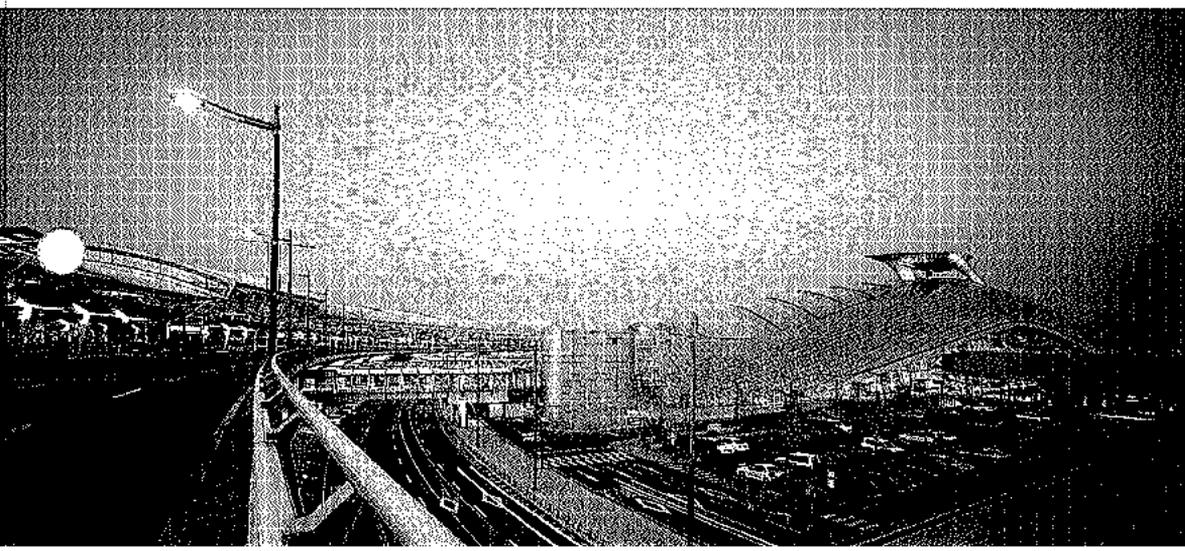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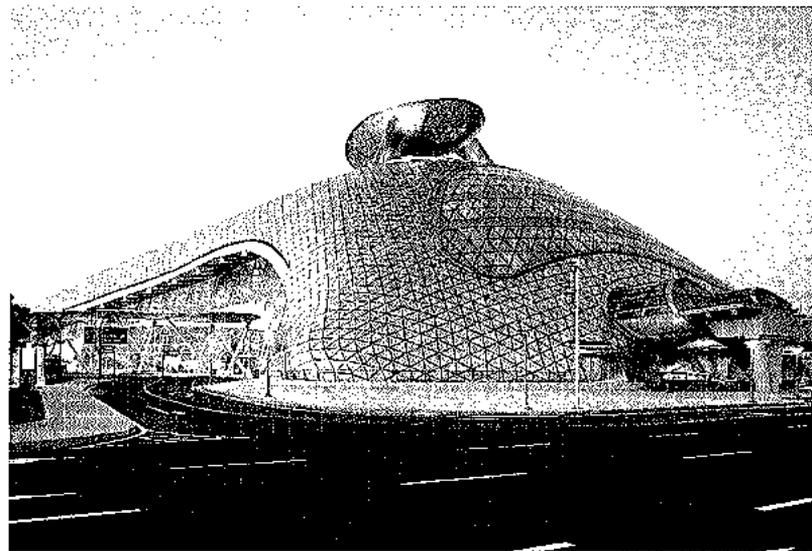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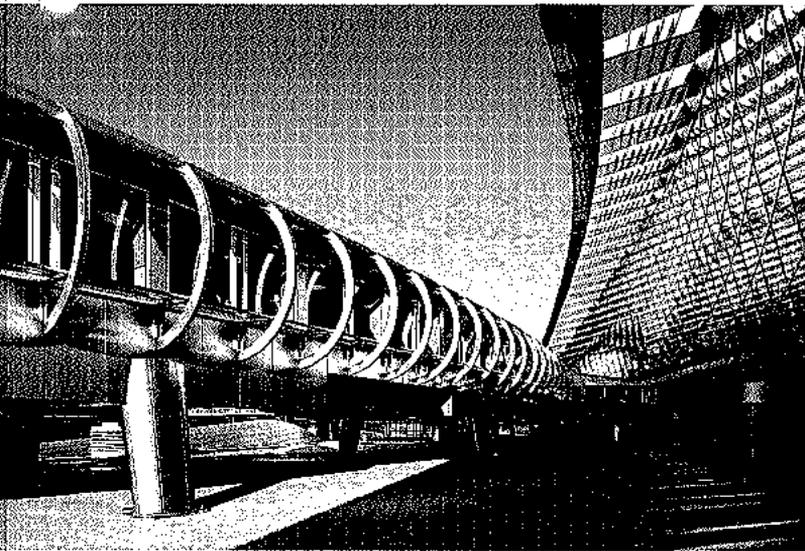
• PMS철골 - 77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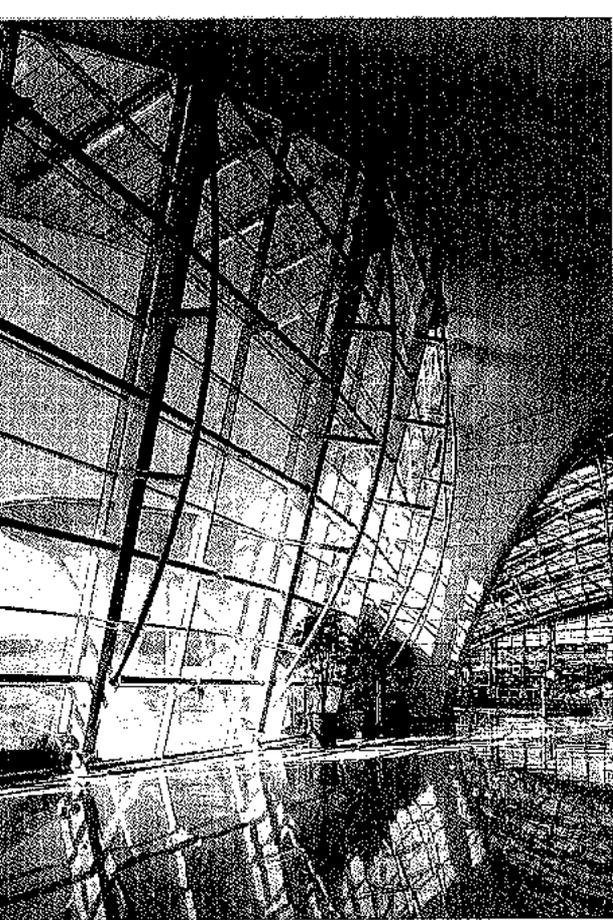
• 기타 - 1,380ton

3) 구조설계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는 3차원 2방향 곡면형상으로서 항공기 및 자동차 설계에 사용되는 CATIA PROGRAM을 응용하여 설계된 한국최초의 건물로써 13,000여개의 철골부재로 구성되며, 모두 상이한 치수와 각도로 연결되어 있다. 철골구조는 복측 Truss, 상부 Jewel을 지지하는 하부 Oculus와 남측 CT-Truss로 구성된다.

• 남/복측 Truss





Great Hall은 최대경간 126m의 장스팬 3차원 입체 트러스구조로 유기적인 형태의 무주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북측 동서방향으로 전면부 V자형 Truss 1열과 주 Truss 6열, 이것을 상호연결하는 Arm Truss로 구성되며, 동서로 형성된 각각의 Truss 는 삼각형 단면을 갖는 곡선형 트러스로써 남북으로도 연결되어 또다른 곡면을 형성하고 있다. 북측의 철골은 중심간격 12m마다 연속된 평행 아치형 트러스아치의 길이는 50m~140m까지 다양하며 전면 아치는 160m에 달한다.

• Oculus - Ring Truss

Great Hall의 가운데에는 직경 18M의 대형 Open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봄과 가을의 중간절기에 자연환기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디자인으로써 3단의 Ring Truss로 구성되고, 자동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3개의 두꺼운 지지하는 Frame이 삼각대 구조물로 이루어진다.

• Jewel - Space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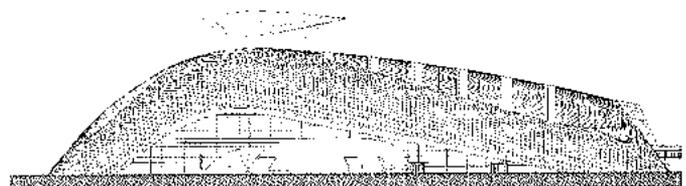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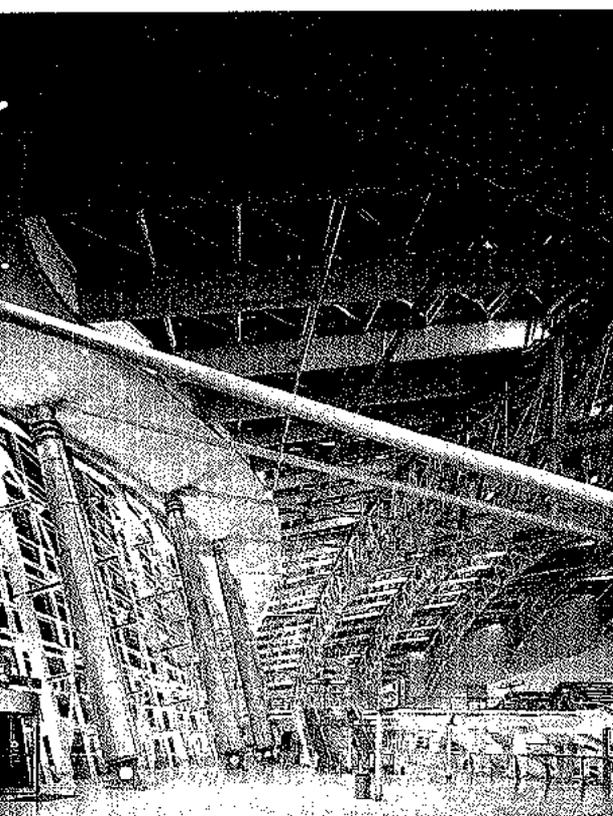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에서의 Landmark로써 인지되는 교통센터 지붕위의 주얼 (Jewel)은 3개의 철골 다리구조와 Space Frame로 구성된 유선형의 몸체로 이루어진다. 주얼(Jewel)의 유선형과 Great Hall의 상부 곡면으로 인하여 Oculus와 주얼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 공기의 유속이 빨라지는 벤츄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얼은 1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풍속 40m/sec의 풍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풍동실험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4) 철골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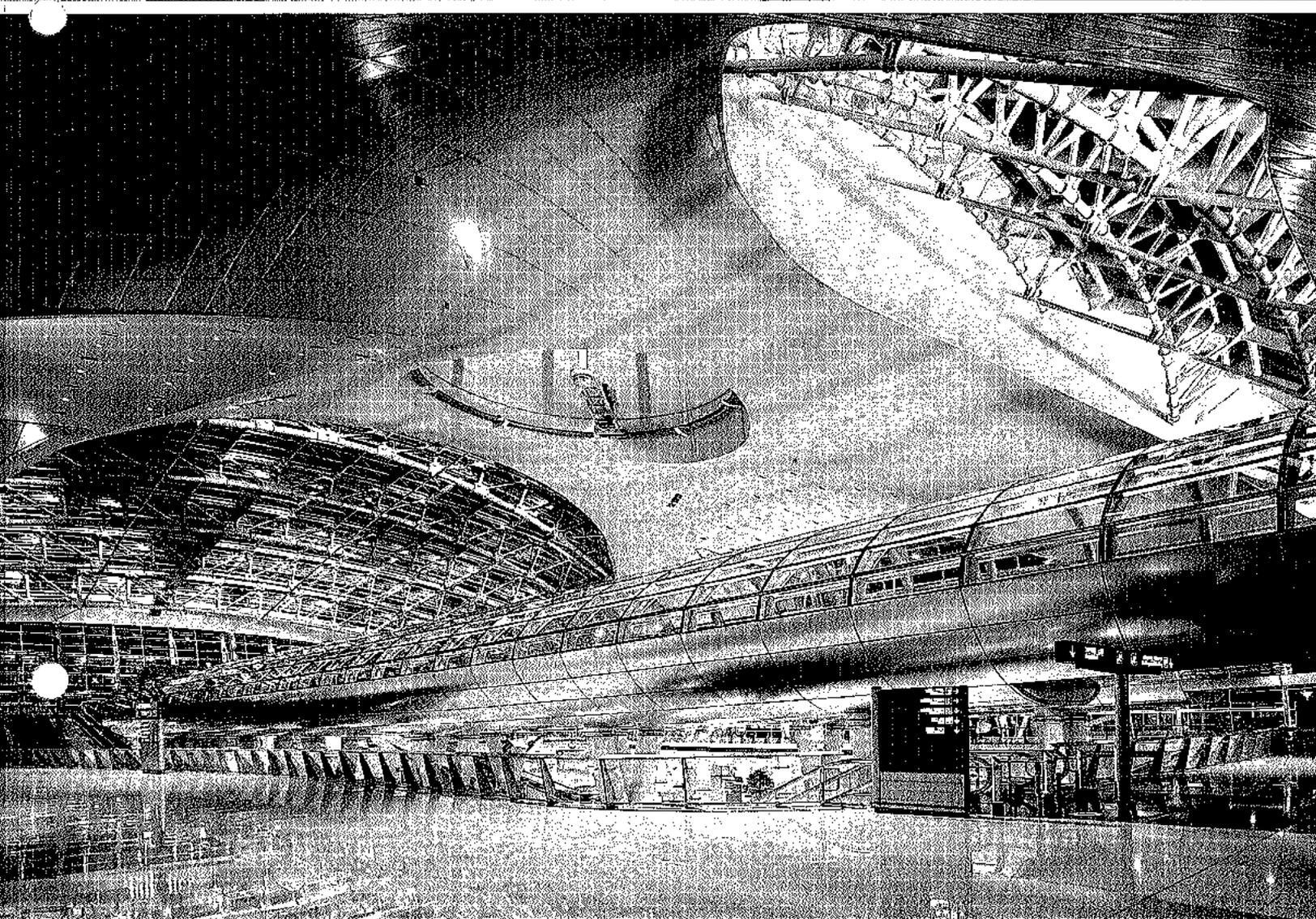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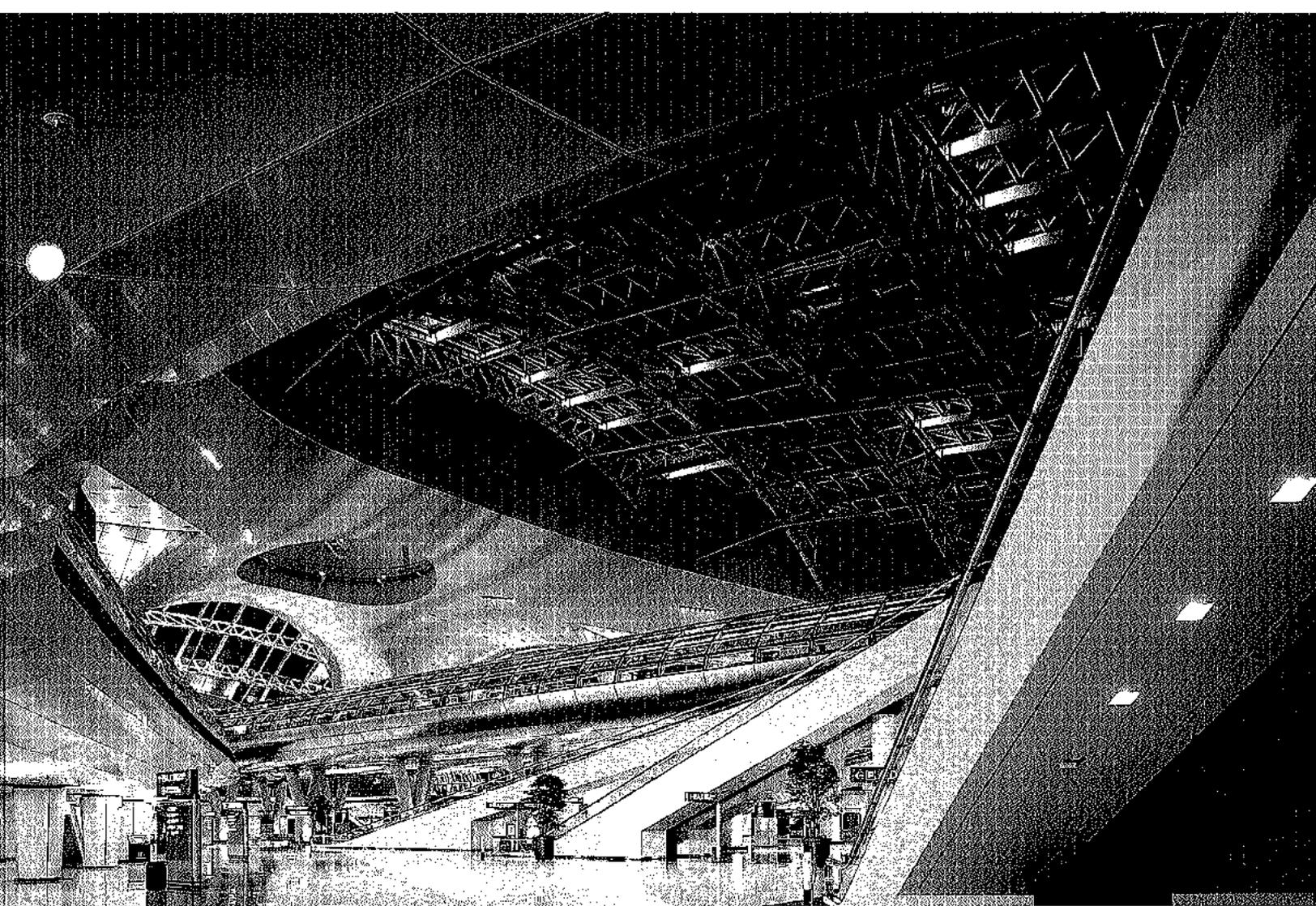
시공의 용이성을 위해서 설계시 볼트접합에서 Base접합과 Roof Beam접합을 제외한 모든 접합을 용접으로 변경하였고, 시공정밀도 증진을 위하여 공장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도록 대블럭화를 하였으며, 운송은 대형버지선 박과 육상특수장비(Transporter)를 활용하였다. 현장제작 및 조립작업 최소화, 현장 용접작업 최소화를 위한 Joint Detail 적용, 가설공사의 최소화, 현장조립 조립시공의 단순화,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5) Sliding 공법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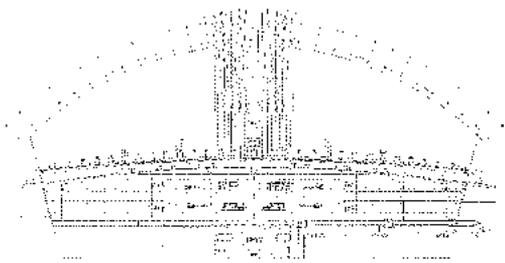
Sliding 공법은 설치작업이 용이한 위치에서 반복작업에 의해 구조체를 조립하여 Guide Rail 및 Jack을 이용하여 소정의 위치로 수평 이동시켜 나가는 공법으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거나 가설공사 및 장비투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함으로써 일반공법에 비해 협소하거나 가설공사 및 장비투입의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함으로써 일반공법에 비해 공기단축, 안전성, Cost 절감에 효과가 있는 공법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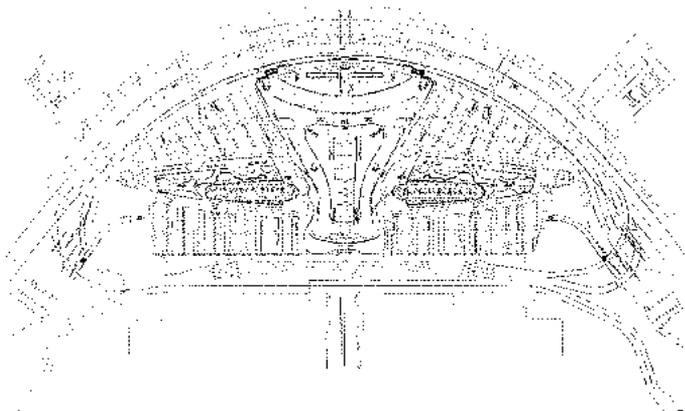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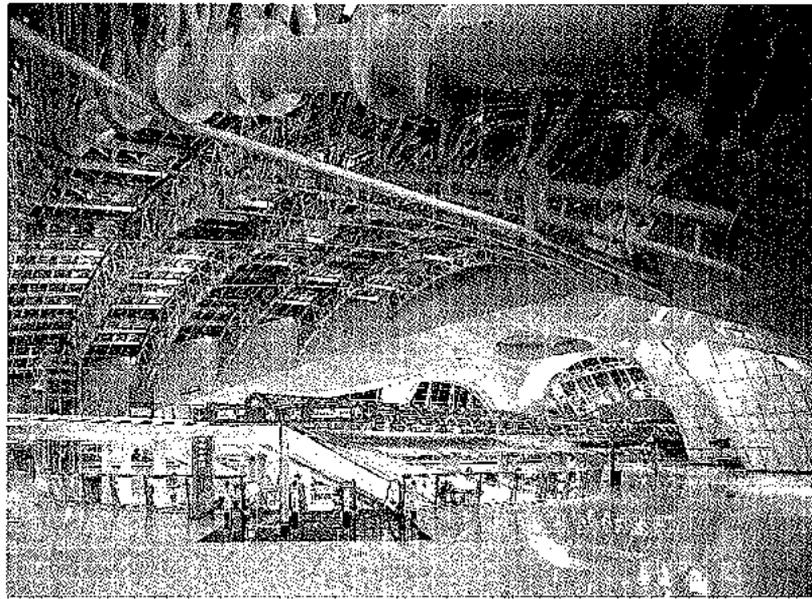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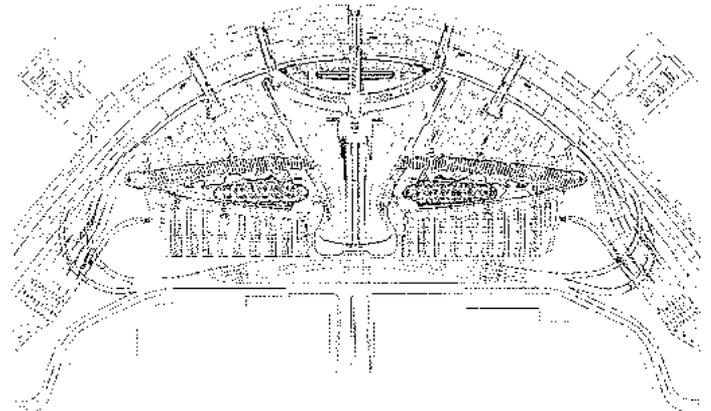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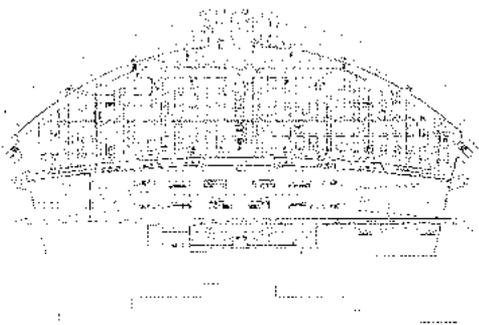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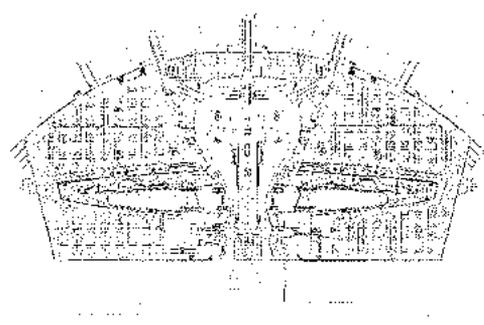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연합철강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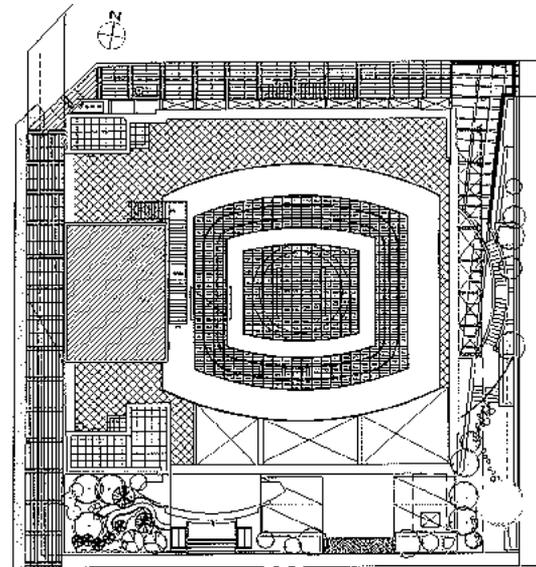
Union Steel Building

김자호 · 오동희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a-Ho & Oh Dong-He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역, 주차장정비지구, 1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1,672.40㎡
건축면적	1,047.76㎡
연면적	26,388.79㎡
규모	지하6층, 지상19층
구조	SC조 SRC조
외부 마감	외벽 : AI복합패널 + 저층부 화강석 버너 및 물갈기 창호 : THK24컬러 복층유리 및 THK150 AL 불소 수지 코팅바
내부 마감	저층부 : 스테인레스 엠보싱, 에칭 기준층 : SGP패널, 스틸시스템 천정판
Elevator	승객용(전망용)4대, 화물용1대
주차	자주식(126대), 기계식(76대), 옥외(4대)
공사기간	1995년11월-2000년8월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2002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입선작)



배치도

계획의 개념

이 Project는 테헤란로의 Office군 속에서 20세기 후반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건축의 기술, 정보화 인간성의 회복 및 에너지 등의 화두에 대해 그 제안방법으로 Flexible, Move, Digital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두고 미래 지향적이고 예술성이 있는 첨단 IBS Building을 건축주와 설계자가 함께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강직성, 신뢰성을 표방하는 국내 굴지의 철강회사 사옥이라는 기업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유리과 금속을 주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유입과 첨단 과학을 접목시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며, 주변환경을 흡수하는 투명성은 독특한 에너지를 도시로 다시 발산하여 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배치계획

대지의 특성상 북측(테헤란로)을 주 진입로로 하여 건물의 정면

성과 접근성을 부여하였고, 대지의 고저차를 해결하고자 2층부분에 부출입구를 두어 동선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측12미터 도로변에서 진출입이 이루어진다.

평면계획

저층의 북쪽과 남측에는 내외부를 연결하는 유기체적인 공간연출을 위해 신기술인 T.P.G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기준층은 융통성있는 Office Plan을 위하여 24x30m의 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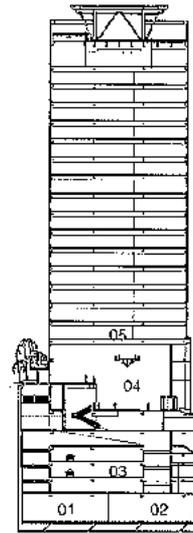
또한 AL Curtain Wall로 넓은 조망을 확보하고 각종 공조 System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확보하였다.

정보통신시대를 맞아하여 PDS System 및 C.A.T6급, UTP Cable을 구축하여 사무자동화에 이바지하도록 하였고, 보안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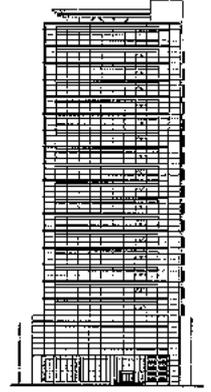




- 01_ 잠기실
- 02_ 기계실
- 03_ 주차장
- 04_ 로비
- 05_ 사무실



중단면도



입면도

시를 위한 저층 첨단 Card Key System과 Key-Box System/CCTV System 도입으로 빌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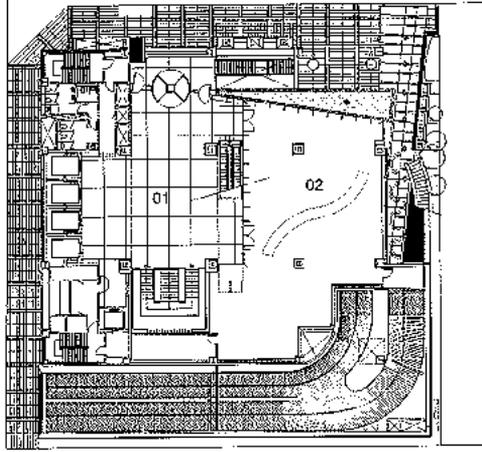
입면계획

기업의 이미지인 감직성과 신뢰성을 표출하기 위한 재료인 철과 유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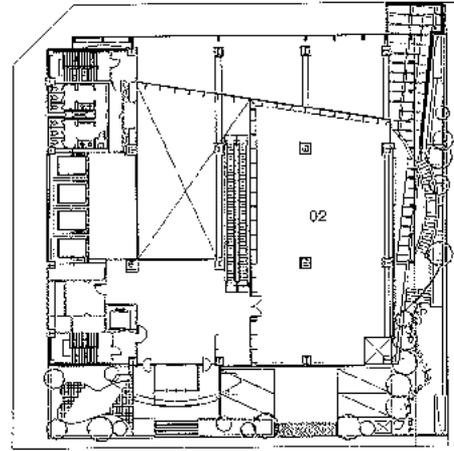
사용하여 첨단적이고 투명한 입면을 창출하고, 안정된 수직입방체의 기하학적인 조형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서측의 코어 부분의 엘리베이터 및 Core(계단)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그 움직임이 인지되며, 빛이 투과되는 박스의 움직임을 통해 주변에서의 인지성이 극대화 되도록 계획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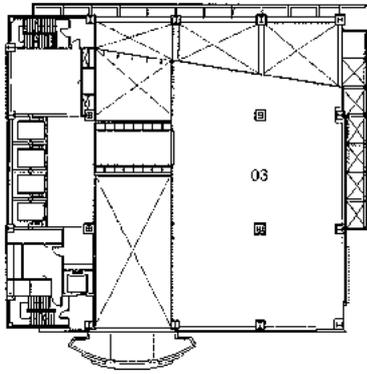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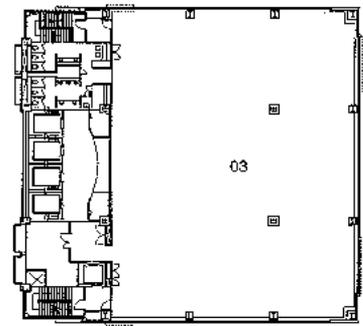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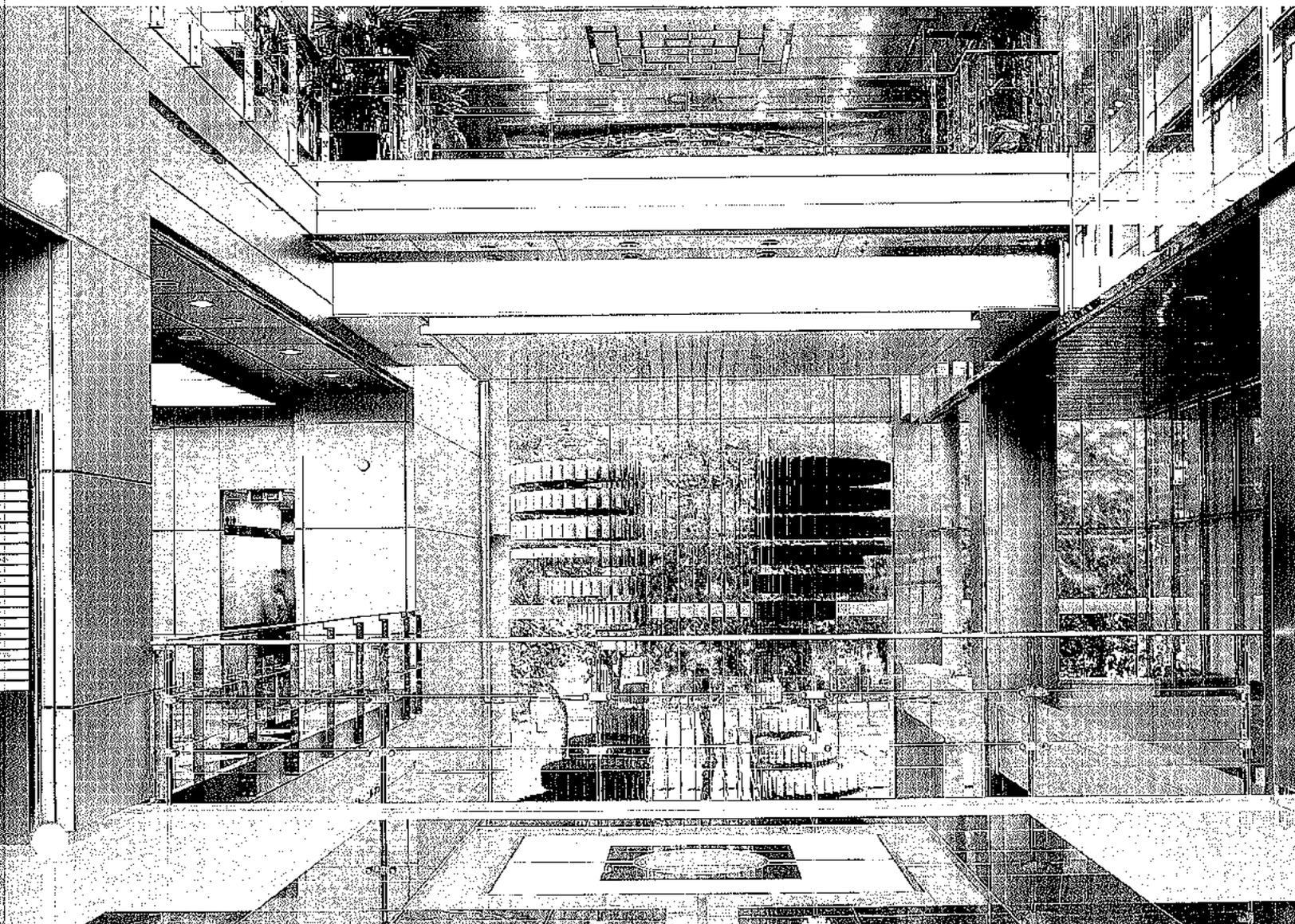


- 01. 로비
- 02. 관공
- 03. 사무실



3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뮤즈 + 엑스트라

Muse & Extra

정춘국 / 장인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ung Choon-Cook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10-6,7
대지면적	549.20㎡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고도지구
건축면적	349.42㎡
연면적	989.33㎡
건폐율	63.62%
용적률	180.14%
규모	뮤즈-지상5층, 엑스트라-지상2층
주요시설	제1,2층 근린생활시설
구조	뮤즈-철근콘크리트조, 엑스트라-철골조
조경면적	28.26㎡
외장재료	뮤즈-스테인레스 엠보싱판, 시멘트 튀기기, 엑스트라-철판위 도장
주차대수	지상6대
최고높이	18.40m
설계	뮤즈-박미영, 김명지, 김문주 엑스트라-황인복
시공	박철규+이재원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6회 사하건축상 대상작)

대지 읽기

간선로에 면한 정형에 가까운 대지는 무질서한 도시적 상황에 방치되어 있고, 대학과 주변 상권 확대의 정점에 있다. 도로 폭에 의한 다소간의 전망을 확보하고 약간의 경사 길에 접해있다. 대지 뒤로는 오래된 아파트의 콘크리트 웅벽이 때묻은 스크린으로 놓여있다.

건축 전 상황

목공소, 인테리어 소품 가게, 철공소 등이 널려있다. 도심지라고 믿어지지 않게 혼란스럽다.

프로그램의 변경

시작은 MUSE 단독으로 시작한다. 굴조 공사 중 EXTRA 부분의 대지 구입으로 주차장이 MUSE 1층에서(계단 하부) EXTRA 1층 부분으로 수용된다. EXTRA는 단어 의미 그대로 프로그램의 변경에 따른 여분의 건

축이다.

건축 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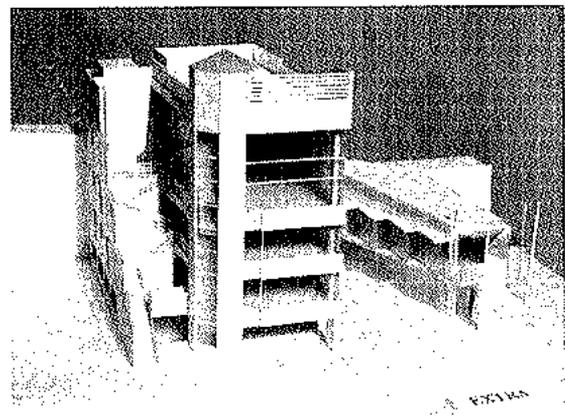
다소 처진 분위기의 가로에 MUSE 및 EXTRA 두 동의 건물이 들어섬으로 활기가 생겼다. 보행자들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건축물의 출현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늘 즐겁다.

부산 건축을 생각하며

건축의 Localism에 대하여 생각한다.
부산다운 건축이란 어떤 것일까?
개방적 디자인일까?
부산이란 도시의 건축적 맥락이란?
부산건축의 지역적 특수성은 있는 걸까?
지역 건축의 디자인적 해석 요소는?
늘 안고 살아야 하는 화두같은 존재이다.

보행자를 위한 생각

이 도시의 길을 걷는 이들은 늘 힘들고 불편하다. 햇살이 따가워 그늘을 찾아도 이 도시에선 한 점 그늘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조각 같은 그늘이 있다해도 도심에선 영입 홀 앞의 대기 공간이므로 머물 수는 없다.



한 여름 소나기라도 만날 때면 준비 안된 보행자는 영락없이 물에 젖은 생쥐 꼴이다.

걷다가 피곤한 다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없다.

남의 집 화단이든, 현관 입구 계단이든, 앉을 수 있는 곳에 그냥 주저앉을 뿐이지만 찬 기운을 엉덩이로 느껴야 한다.

보행자를 위해 준비한다.

작지만 나무 벤치와 아직은 덜 자란 소나무(그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비그늘 홀.

길의 연장으로서의 외부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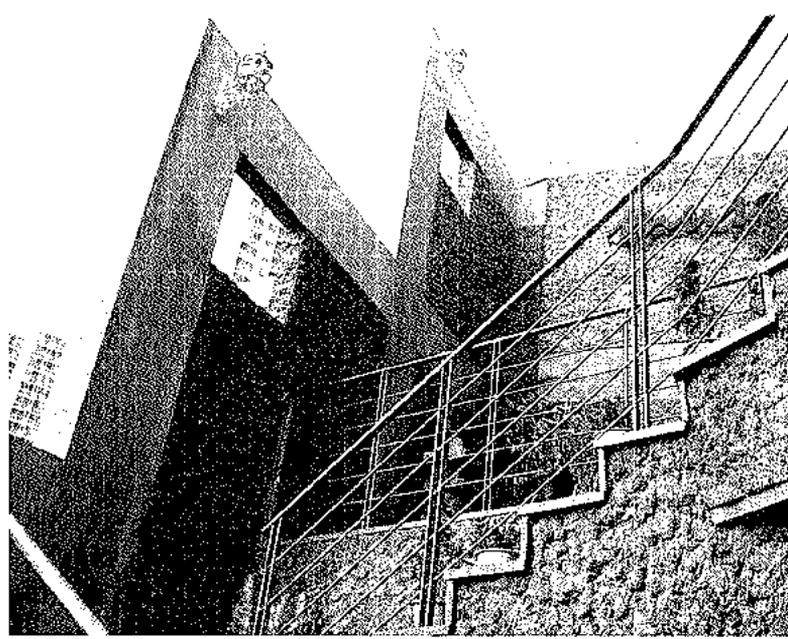
건물은 늘 길에 면해 있다.

비를 맞고 오르는 계단도 길의 연장일 뿐이다.

거기서 만나는 문은 막다른 길에 면한 첫 문이다.

건축가는 어릴적 산복도로가 뚝리기 전의 초량 고지대에 이르는 길에 대한 추억이 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의 기억으로 외부계단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유희일까?



벌어짐과 상승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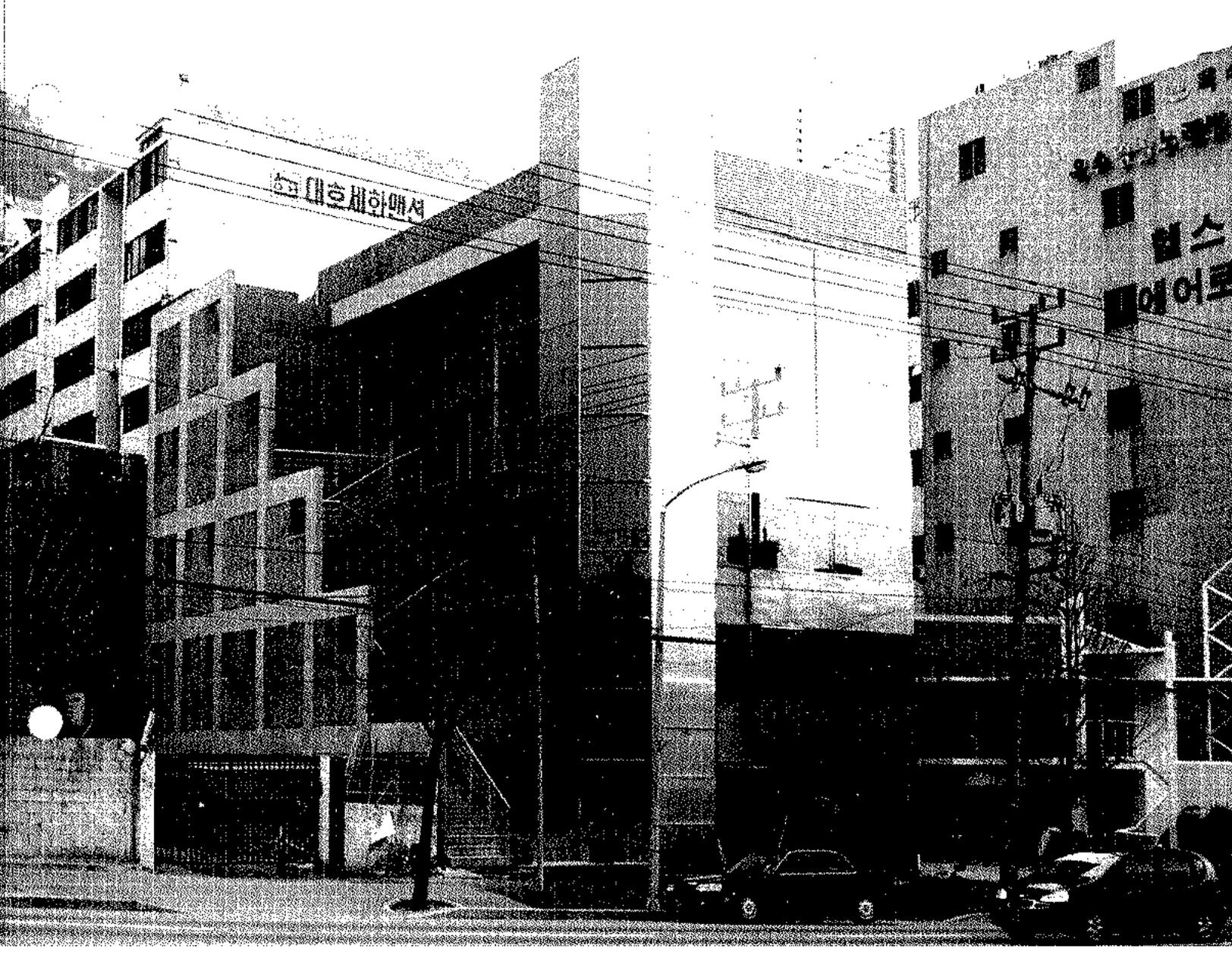
4층 하늘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계단은 벌어져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르면서 평면적으로 점점 좁아지는 MUSE만의 계단이다.

오르면서 좁아지는 형식의 부석사 돌계단을 생각한다.

그런 계단이 상승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던가?

더불어 동선인입 효과도 있다.



MUSE와 EXTRA 사이도 벌어져 있다.

도심에서의 틈새는 곧, 여유이다.

조망과 하늘마당

도심에서의 조망권 확보는 고 부가적 건축 인지이다.

구불구불 오르는 계단의 끝에 작은 마당이 있다.

내 외부 공간의 완충적 요소임과 동시에 동선의 결절점이다.

대립 요소의 혼합적 사용

- Low Tech와 High Tech

표현적 요소로서 하이 테크와 로우 테크의 만남을 시도한다.

시행착오일까?

아니면 역설적 우연성일까?

하이 테크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시공성의 결여로 저급하게 되고, 로우 테크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기능공의 우수성으로 좋은 미감이 된다.

- 반짝거림과 거칠음

- 평지건축을 입체적으로

Full Size 건축 지양

건축의 또 한 가지 단면은 경제적 요소이다.

고가의 대지가 요구하는 것은 늘 Full Size이다.

가로에 면한 Full Size 건축은 그 양피감으로 인해 답답함만 전달할 뿐이다.

도심지 가로에 면한 여유 있는 공간의 건축물은 그 느긋함으로 생동감마저 느끼게 한다.

건축의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순간이다.

인테리어에 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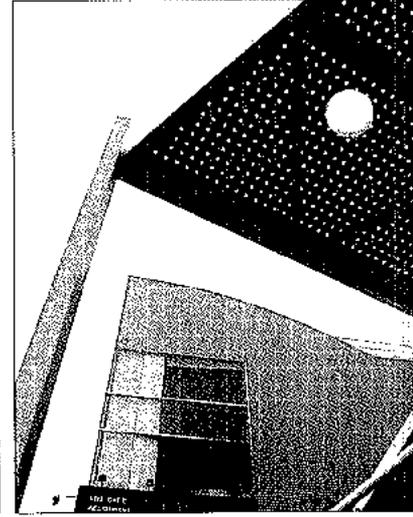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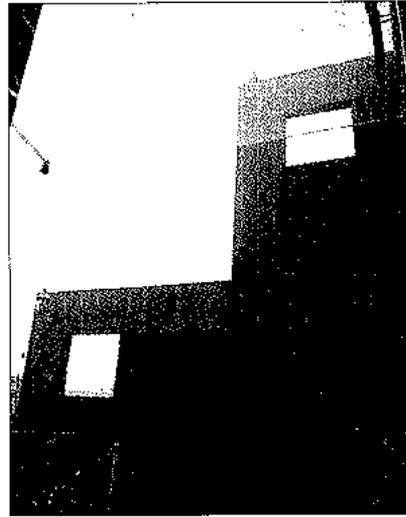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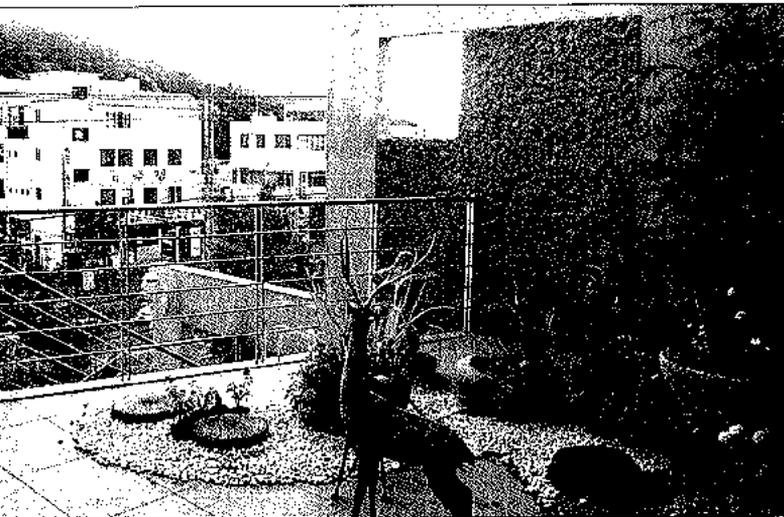
외부적 요소와 단절된 인테리어는 죽은 디자인의 결과이다.

외부 디자인에 쓰인 디자인 어휘가 실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거친 Texture

- 대립적 재료 선택과 경계의 계단식 만남

- 반투명 재료의 적용



- 회색조의 연속

- 기타

표현 요소로서의 재료 선택(물성 건축)

철 - 선적 구축성 표현, 반투명성, 성형의 용이함

스테인레스 - 반짝거림, 일조상태에 따라 변하는 색감(가히 환상적이다), 내부식성, 첨단 이미지

유리 - 미니멀한 느낌의 투명성, 예리함(유리 접합)

시멘트 - 거칠음, 때묻음, 입자의 조작 변화, 그림자 효과, 백화

석재 - 천연성의 표현, 예상 못한 무늬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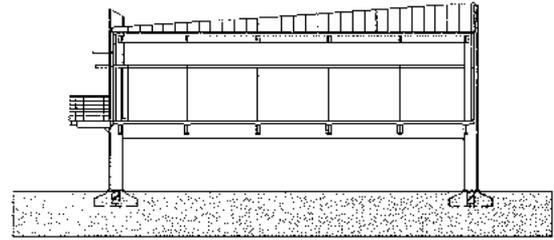
니를 다스리는 글

불변의 진리 - 좋은 건축주가 좋은 건축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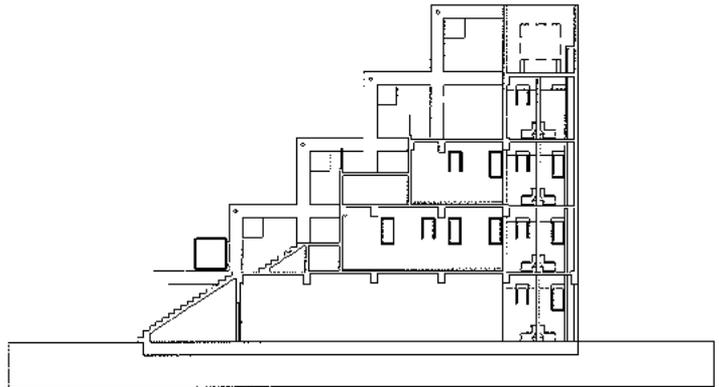
좋은 건축주와의 만남은 분명 행운일 것이다.

그러나, 그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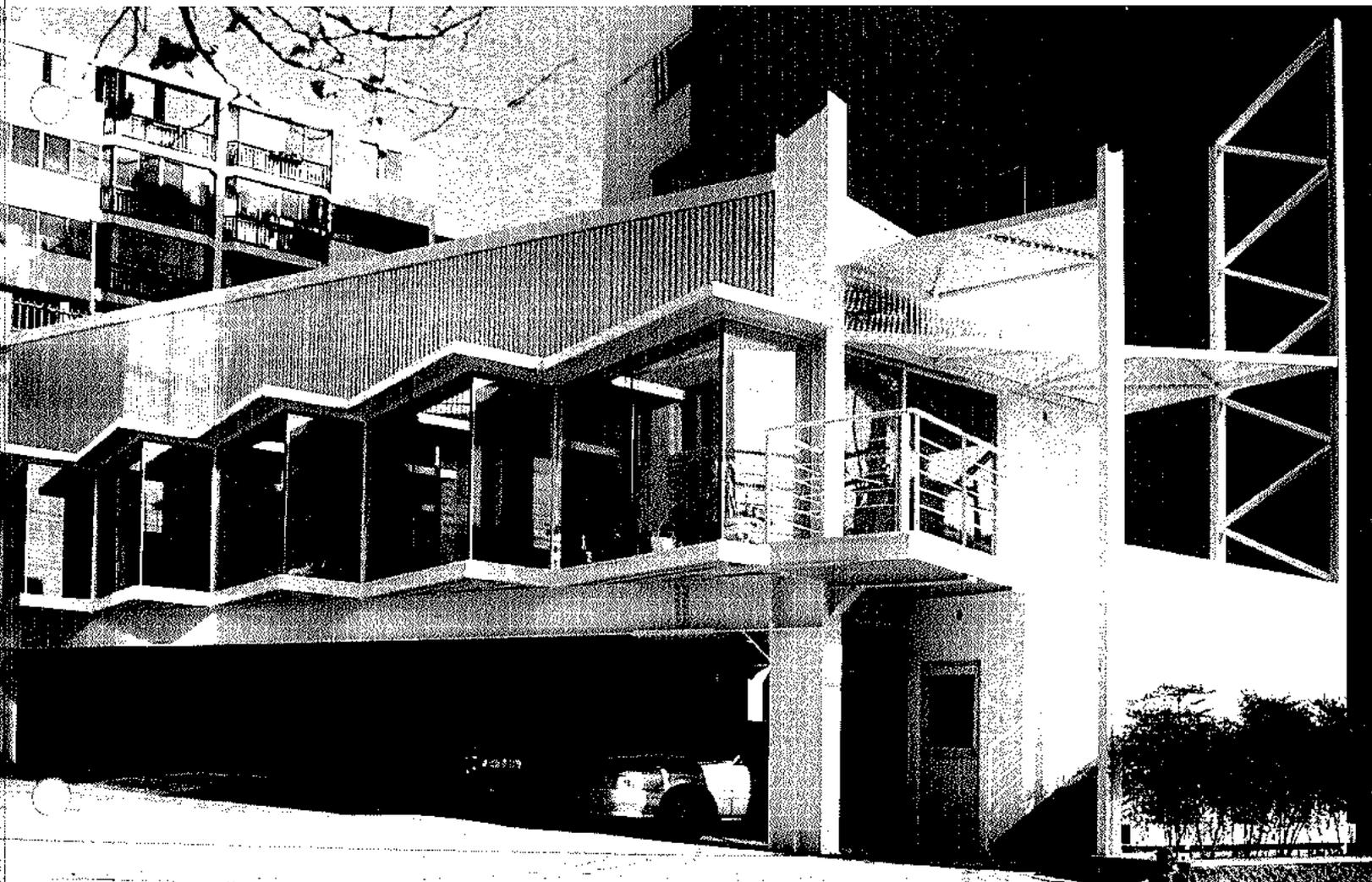
준비하는 건축가에게만 온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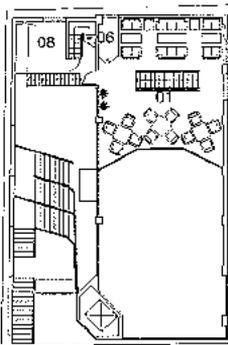
엑스트라 주단면도



뮤즈 주계단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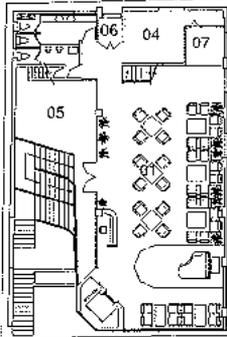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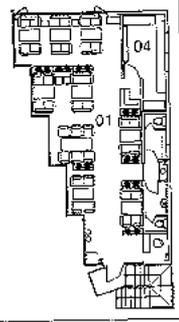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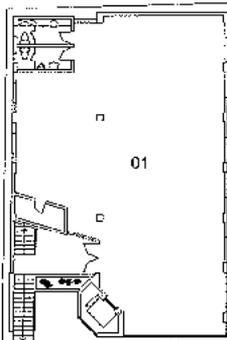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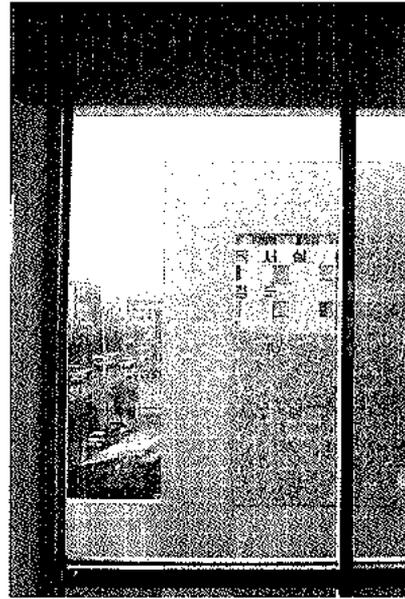


- 01_ 근린생활시설
- 02_ 비그늘 층
- 03_ 관리실
- 04_ 주방
- 05_ 하늘마당
- 06_ 패키지
- 07_ 바
- 08_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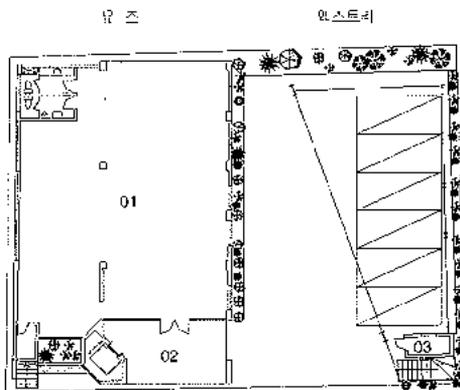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법과 기준 (2)

Implementation Guideline for District Unit Plan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을 중심으로

이희정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
by Lee Hee-Chung

지구단위계획은 정확한 현황의 파악과 문제의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계획의 구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바람직한 계획구상을 위한 고려사항을 단계별로 계획의 수립 검토단계, 구역설정단계, 문제 및 과제 파악단계, 계획구상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주로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계획운영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획의 수립은 계획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을 크게 계획안의 작성단계, 계획실현의 구체화 단계, 계획의 결정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관 계상 여기에서는 보다 전체적인 작업의 흐름과 내용구성을 중심으로 요약하도록 한다. 지나친 축약으로 인해 내용야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주)

5단계 : 지구단위계획 계획안을 작성한다.

1) 도시계획사항을 정한다

용도지역의 조정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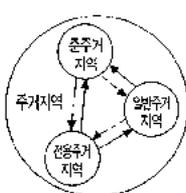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상위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실현 등 정부정책의 도시계획에의 반영을 위한 경우와 지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바탕한 계획목표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의 검토과정과 고려사항, 용도지역 변경유형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의 검토과정

- 용도지역의 변경 필요성 검토**
- 토지이용실태조사
 - 계획의 목표 및 구상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및 이용 및 개발 실태 파악
 - 구역내 용도지역별 도시기반시설 및 개발밀도 검토
 - 상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방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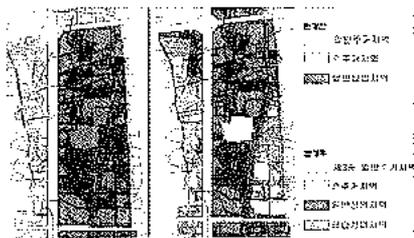
- 변경유형 판별 및 변경조건 검토**
-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명확화
 - 용도지역의 변경유형을 판별하고 조건을 검토

■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의 유형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변경 유형	변경 유형
1. 동일 용도지역계열내에서의 변경 (예) 일반공업지역(공업지역계열) → 준공업지역(공업지역계열)	1. 동일 용도지역계열내에서의 변경 (예) 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계열) → 중밀주거지역(일반주거계열)
2. 동일 용도지역계열내에서의 변경 (예) 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계열) → 중밀주거지역(일반주거계열)	2. 동일 용도지역계열내에서의 변경 (예) 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계열) → 고밀주거지역(일반주거계열)
3.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예) 일반주거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3.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예) 일반주거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예시> ○○구역 용도지역변경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우선 현 도시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중 하나인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2003년 6월 30일전에 세분화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지구단위계획과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간의 관계를 지구단위계획의 각 단계,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검토	외부조건	부지경계의 20%이내 주거지역면적 4층 이하 건축물수가 70%이상	이대토입계약면적 외부조건의 검토
	내부조건	계획규모(사업면적, 세대수, 층수)고려	주변여건(계획규모)의 적정화

용도지구의 조정을 검토한다

■ 일반적인 용도지구 변경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절차	
타용도지역지구로의 변경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	
동일용도지역지구로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용도지구의 면적증감	경미한 변경 범위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이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용도지구의 이전	별도 도시계획 결정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검토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는 지구별로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의 유도중심의 지구단위계획으로만 효과를 보기 어려운 지구도 많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치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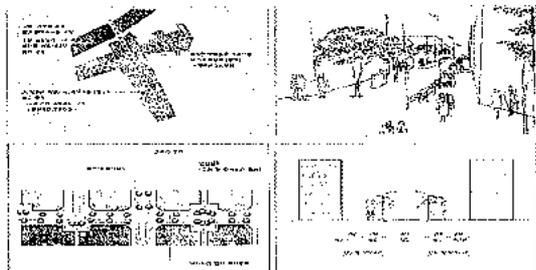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치할 수 없는 도시기반시설
가. 교통 시설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모두	-
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	철도
주차장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행안, 공항, 레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행안, 공항, 레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나. 도시 공간 시설		
광장 (교통광장, 미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무실광장)	모두	-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공원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공원중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녹지(원중녹지, 경관녹지)	원중녹지, 경관녹지	-
유원지, 광명탑, 공공공지	공공공지	유원지, 광명탑
다. 유통·공급 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수도, 공동구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유통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라. 공공·문화 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대학 제외), 공공영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학교중) 대학, 운동장
마. 방재 시설		
하천, 우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화설비 등	-	하천, 우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화설비 등
바. 보건 위생 시설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종래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양의료시설, 폐차장	하수도, 종양의료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종래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2) 공공부문의 계획을 구체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루어지는 공공부문 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구분	제어목표	지침	정비방향
도로	· 교통체계의 체계화 · 삼차 및 환승체계 구축 · 기로별 인지도 부각 · 보행환경의 개선	· One-Way System 등 · 이면도로 구조개선 정비 · B.Js 및 택시정류장 정비 · 보행공간 및 안전성 확보	· 지하철과 환승체계 구축 및 · 내부 도로체계 개선 · 이면부 보행우선도로 개설 · 및 보행동로 확보
포장	· 장소성을 살린 지구별 포장차 · 등화 · 필요시 특수포장 실시 · 유지관리와 절저	· 장소별 포장매턴 Type 제시 · 특수포장(거친포장, 오일포 · 장 등) · 사유 관리방안 제시	· 보행동로 및 보행우선도로 · 이면도로 보행과의 교차점 · 문제의 거리와 연계
기로 장치	· 기로기능/특성에 따라 가로 · 치를 설치 · 일괄설계로 통합, 집약적 배 · 차량전입 저어	· 가로장치물 유형별 종류와 · 설계안 제시 · 가로시설물의 통합화 · 불리드 설치(이동 및 고정식)	· 주요장소별 인내관 설치(보 · 행물) · 시공, 제 차량출입구간 이동식 · 불리드 설치
식재	· 장소성을 강조한 가로특성 · 식재유도 · 수목종 등한 환경친화적 도 · 모 · 타기능력의 상호보완성 제 · 고	· 가로구별 식재매턴 제시 · 설치장공치 및 공공공치 개 · 발방향 제시 · 공공공치, 보행동로와 관계 · 적 조성	· 주요장소별 공공공치 조성방 · 안 제시 · 가로별 특성에 맞는 수목 · 선정
안전체계 및 조명 등	· 효율적인 종합안전 체계 구축 · 차량 및 보행안전 도모 · 지역특성에 맞는 형태 및 식물 · 의 개발 · 장소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 조명유도 · 야간조명 강화	· 차량/보행/기타 안전체계 · 차량 및 보행안전을 위한 안 · 내기등 설치 · 주요장소별 인지도 저고 · 신축건물 야간조명 권장 · 수목조명, 하부/측면조명 등 · 조광다양화	· 전압부 및 보행 밀집 지역 · 배치 · 교통 및 휴게시설 안내 · 가시부 및 대형 건축물 · 이면부 보행동로, 보행물 · 지구전입부 및 시각 결정점 · 조광다양화

〈예시〉 보행자 우선도로



3) 민간부문의 계획을 구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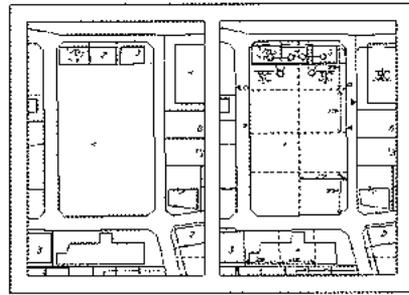
대지에 관한 계획

대지에 관한 계획은 필지의 분할, 합병, 교환 또는 공동건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지를 통한 개발규모의 조절을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주변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필지분할

- 필지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시〉 필지분할가능선의 적용



나. 필지병합(합필)

- 필지의 병합(합필)이란 둘 이상 필지를 병합(합필)하여 하나의 필지로 건축 또는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1980년대 도시설계에서 일부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공동건축으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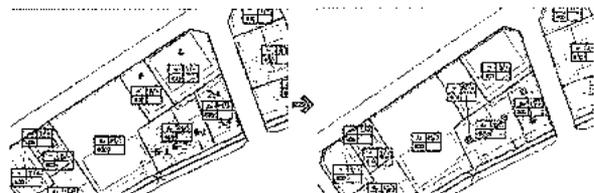
다. 필지교환

- 필지교환이란 부정형(不定形) 필지의 정형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지의 일부를 나누어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공동건축

- 공동건축은 둘 이상의 필지에 걸친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공동건축 지정



마. 맞벽건축

- 맞벽건축은 도시미관 증진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표〉 건축법에 의한 맞벽건축의 적용대상 및 조건

목적	대상지역	조건	맞벽구조	비고
도시미관	상업지역	-	방화벽	-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	-		건축조례로 정한 지역(서울시) - 특지구획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내지
	상업지역, 건축조례로 정한 지역의 지역	건축허가신청 - 신고 - 관공서 첨부		-

자료 : 건축법 제50조의2, 동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호 참조하여 정리
주 : 맞벽건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39조(건축물의 파란시설 - 용도제한 등) 및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배제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용도지역 등에서 허용하는 용도중 특정용도의 입지를 배제하거나 특정용도의 입지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표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입지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입지가 권장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입지가 금지된다. ※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지를 권장, 지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허용용도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불허용도	
	권장용도(x)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용도제한의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구분	층 별		
	모든층	1층	특정층
불허용도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지하층 등 특정층 불허용도
지정용도	지정용도	1층 지정용도	지하층 등 특정층 지정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지하층 등 특정층 권장용도

※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용도의 제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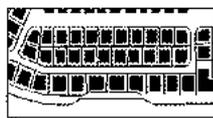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가. 건 폐 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text{건 폐 율} = \frac{\text{건축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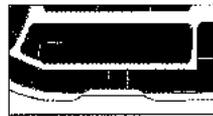
건폐율 40%



건폐율 60%



건폐율 80%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나. 용 적 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text{용 적 률} = \frac{\text{건축연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0$$

■ 용적률의 종류

일반적으로 용적률이라 함은 법정용적률을 말하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개발밀도의 제어를 보다 세밀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용적률의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예시) 법정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보정용적률, 계획용적률 등

■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사가지의 물리적 환경

- 단일 필지의 개발에 따른 용적률의 변화는 이들 개발로 형성될 주변의 집합적인 물리적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 용적률은 간접적인 밀도규제 수단이다. 건폐율, 사선제 한과 함께 개발밀도를 결정한다.

- 용적률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용량과 관계가 깊다.

■ 서울시 기준 · 허용 · 상한용적률의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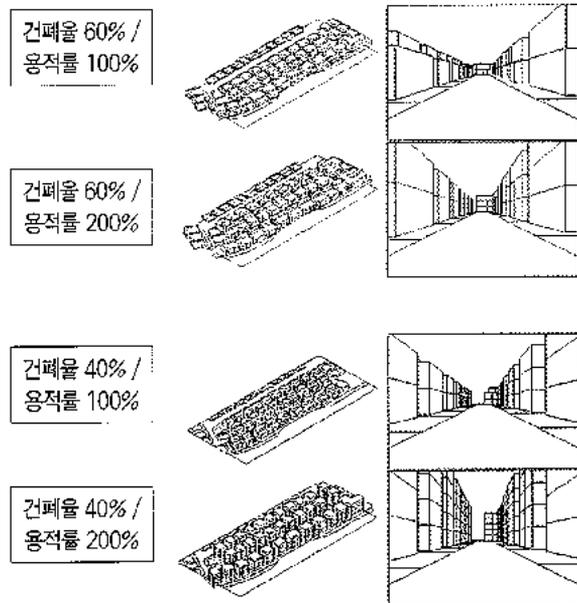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변경/세분시)	용도지역 변경 전 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또는 세분 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또는 세분 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또는 세분 전 용적률) × 2/3 이내	허용용적률 × 1 / (1 -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이내. 조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 ※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용도지역 동일 (세분시)	해당지역 용적률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조례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적률 이내	허용용적률 × (1 + 공공시설의 제공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의 제공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하기 전 대지면적) 이내
용도지역 허향 (변경/세분시)	용도지역 변경 후 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또는 세분 후 조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이내	상 동

〈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적용 기준 비교

구분	위치	도시설계		상세계획		현행기준(서울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일반주거-준주거	간선부	400	600			300	366
	이면부	400	600			250~300	350~366
일반주거-일반입	간선부	400	600			300	600~633
	이면부	400	540			300	500~544
준주거-일반입	간선부	700	960			400	666
	이면부	550	660			400	650~666
일반산업	간선부	600				600~700	800 이하
	이면부	500				500~700	800 이하
준주거	간선부	500				300~400	400 이하
	이면부	500				250~400	350~400
일반주거	간선부	300				100~200	150~250
	이면부	300				100~200	150~250

다음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변화에 따라 조성되는 시가지 환경에 대한 예시이다.

- 다음의 예시그림은 동일한 대지에서 건폐율이 50%일 때, 용적률의 변화를 50%에서 500%까지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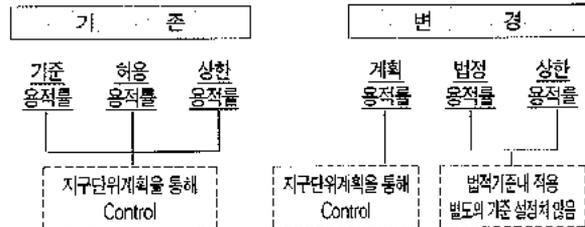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이를 적용한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용적률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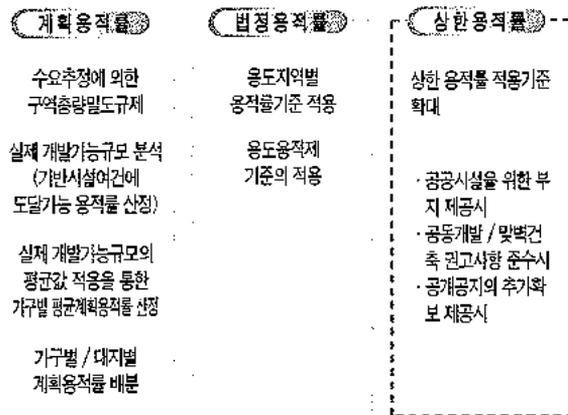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여건이 잘 갖추어졌다고 말하기 어렵고 부정형의 필지가 많아 대부분의 토지에서 법정 용적률을 충족시킬 수 없다.
- 최대한의 개발용적률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전면도로를 보다 넓게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라는 것

은 혼자서 도로용지를 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시작과 끝에 걸친 모든 토지 소유자들간의 도로 용지를 넓히고자 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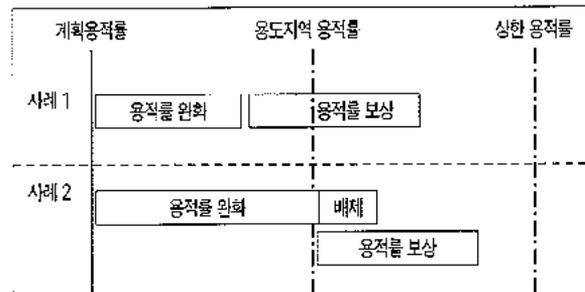
■ 새로운 용적률 제어기준 검토 (2002년 재정비 지침안)



(그림) 용적률 설정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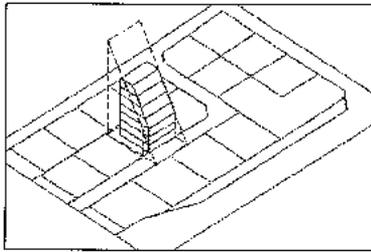
(그림) 용적률 설정 개념도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에 대한 계획은 건축물의 절대높이를 계획적으로 제어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정한 목표를 실현하게 된다.

사선 제한	사선제한은 도로경계선·인접대지경계선 등 기준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높이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
절대높이제한	절대높이제한은 정해진 하나의 높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지구단위계획구역	- 당해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도시재개발구역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전국 일률적인 규정인 도로사선제한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높이제한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도시계획적 측면과 개별 건축환경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정시 다음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제한

구분	제 목
지정대상	가로구역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지정내용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원화내용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1.5D
지정조건	①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나비 ③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공 할	주민공람 15일 이상
심 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주 : 1)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가. 건축선

건축선은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건축법)을 말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선은 건축지정선과 건축한계선이 있다.

(표) 건축선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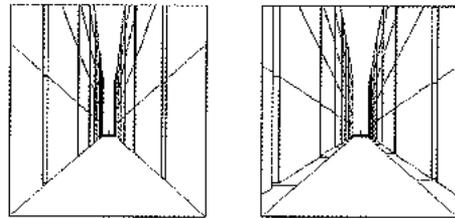
구분	지 정 목 적
건축지정선	건축물 외벽을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위치를 지정한 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지 못하게 하는 선

■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폭원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일반 건축선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해당 필지의 여건 및 집합적 환경의 조성 등 계획목적에 근거하여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 건축선의 지정목적

- 차도의 확폭 또는 보도의 확폭
- 질서있고 정연한 가로경관의 조성



나. 벽면선

■ 벽면선의 개념과 종류

- 벽면선은 도로와의 경계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지정한 선으로 건축물의 외벽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말한다. 벽면선에는 벽면지정선과 벽면한계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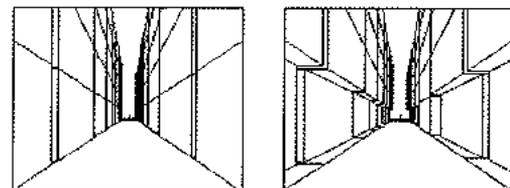
(표) 벽면선의 종류

구분	정 의	지 정 목 적
벽면지정선	건축물 외벽을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위치를 지정한 선	- 가로밖의 형상을 통한 가로의 연속성 및 통일성 도모 - 도로경계선(건축선)과 벽면선 사이의 공간 확보
벽면한계선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되는 선	- 도로경계선(건축선)과 벽면선 사이의 공간 확보

자료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2000.8.

■ 벽면선의 지정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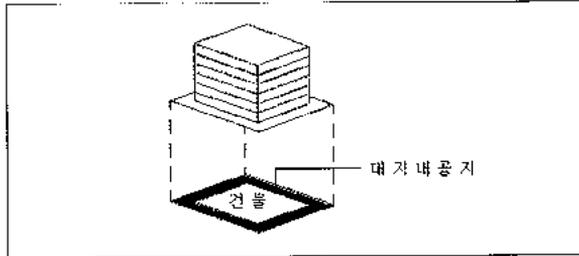
- 대지경계선과 벽면선사이의 공차확보를 통한 보행공간의 확충
- 주거지역에서의 전면정원의 조성 등에 활용
- 가로의 연속성 및 통일성 도모 등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대지내 공지란 대지내의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빈땅을 말한다.

< 예 시 >



■ 대지내 공지의 활용형태

제어요소	적용목적	적용대상지	적용기준	
공지형	전면공지	· 보행공간의 확보로 가로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증진 · 차도의 일체 조성	·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곳 · 건축선 중 지장에 의한 차도, 인도의 확충이 필요한 곳	· 인도구축형(폭 3M이상) · 차도구축형(폭 1~3M) · 주차장, 보행장애시설의 설치 금지
	공개공지	· 가각부 주변에 일정규모 이상 확보 · 인접공(공)지의 조화 유도	· 간선도로, 지구간선도로의 가각부 · 대항대지	· 최소 45㎡이상
	집합형 썬지공원	· 지하철역사의 통로와 연결 및 24시간 개방유도	· 역 주변의 대규모 꺾이중역사출입통로와 연계가 가능한 곳	· 최소 25㎡이상
	썬지공원	·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의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을 썬지공원형태로 조성	· 구역의 간선도로변, 주요 도로변 및 특화거리.	· 대지내조경 조성시 · 500㎡이상 대지 최소 25㎡이상 · 공개공지 조성시 최소 45㎡이상
통로형	대지면적	· 녹화 증진		
	보차 혼용통로	· 간선도로의 차량소통 원활화 ·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 개설로 지구교통개선	· 간선가로 직접 진출입이 예상되는 블록내 주차진출입 및 이면도로 확보지역	· 최소폭원 6m이상
	공공 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동선 체계 수립으로 보행환경개선	· 간 폭원의 블록으로 보행유화동선이 예상되는 지역	· 최소폭원 3m이상
	일체 공공보행 통로	· 공공지 하공간과의 보행연계 유도 · 건축물간 보행연계가 필요하거나 시설이용접점이 대규모인 경우 설치	· 역사주변 · 대항필지	· 최소폭원 6m이상
	보행자 전용도로	· 상업활성화 가로에 대해 보행활성화 유도 · 사스 차량진입을 부분적으로 허용	· 상업활성화가로 · 주요구역	· 기존차도 및 간축환경개선과 연동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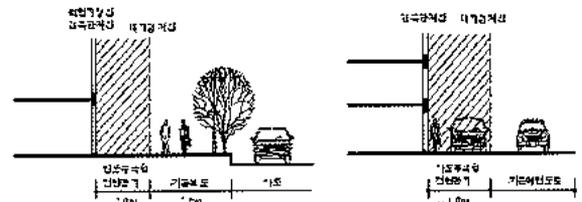
■ 대지내 공지의 인센티브 적용시 고려사항

제어요소	법적 용어	법상 제한내용	인센티브사 고려사항	
공지형	전면공지	△	△	- 미관지구에 의한 경우 : 인센티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계형	공개공지	○	○	- 공개공지는 건축법(??조)에 의해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이 아닐지라도 대상이 되면 설치해야 한다.
	집합형 썬지공원	×	×	- 일반적으로 공개공지가 설치되는 규모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녹화형	썬지공원	×	×	- 유계공간과 조경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대지안의 조경	○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역에서도 기존면적이상인 경우 설치하는 대상이므로 이를 명확히 한다.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육상조경의 방법
통로형	일체 공공보행 통로	×	×	- 공개공지 설치대상인 경우 : 공개공지의 한 유형인 공개공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허가를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 공개공간의 성격으로
	보차 혼용통로	×	×	
	공공 보행통로	×	×	

주 1) △는 미관지구에 따른 건축선 후퇴에 의해 생긴 전면공지는 미관지구의 건축행위제한에 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다른 곳에서 다루어야 한다

가. 전면공지

전면공지에 대한 해석의 하나는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도로(차도+인도)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후퇴선 사이에서 남게 되는 공지를 말한다. 이 부분은 대부분 대지중 전면에서 발생하므로 전면공지라고 한다.



나. 대지안의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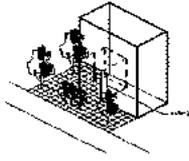
대지안의 조경이란 가로의 녹화, 가로 및 지구의 경관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식재 및 시설을 점한 것을 말한다.

대지안의 조경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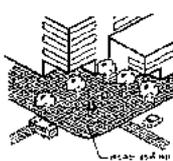
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공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개공지, 공개공간, 지하층 공개공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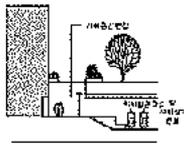
〈피로티 형태〉



〈쌈지공원 형태〉



〈지하형 공개공지(정형형쌈지공원)〉



〈표〉 공개공지·공개공간의 지정

구분	내 용	
지정목적	쾌적한 지역환경의 조성	
적용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 (지정·공고지역)	
적용면적	연면적의 합계 5000㎡ 이상	
적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문책 및 관매 및 업무·숙박 시설·시설
	서울시 건축조례	의료·사설, 운동시설, 유흥시설
확보 면적	건축법 시행령	대지면적의 10% 이하
	서울시 건축조례	연면적의 합계 5천~1만㎡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2만㎡ 미만	대지면적의 5%
의무 설치 시설	건축법 시행령	간이차·피고라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의무 (건축조례로 정함)
	서울시 건축조례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건축물, 제48조 용적률, 제51조 높이제한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위치	건축법 시행령	용적률의 1.2배 이하 / 높이제한의 1.2배 이하
	서울시 건축조례	용적률의 완화: (1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의해서 산출된 용적률 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1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높이 이하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사전기준 - 조정권적(법 제32조)을 제외한 면적으로 인정 -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
기 타	비대면적 한계가 5천㎡ 이상 비직육면체건축물의 대지에 기준면적 및 기준구조를 준수할 경우: 완화 가능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제외	

자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간선교통부, 2000.8.

주: 1) 판매 및 영업시설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인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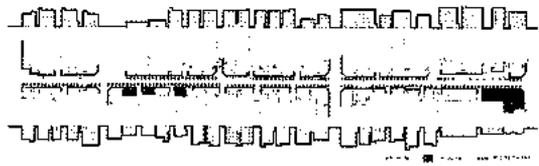
2) 건축조례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일함(추후 변경사항 확인필요)

▶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계획

건축의 외관에 대한 계획은 가로경관, 가로공간의 활력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건축물과 관련된 색채, 재료, 개구부 등
- 간판 등과 관련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모, 형태, 설치 위치, 설치방식 등
- 야간조명과 관련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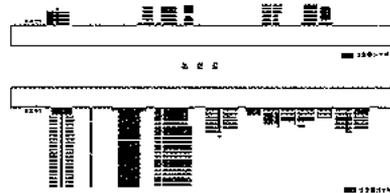
■ 특정가로에 건축물 입면에 의한 가로경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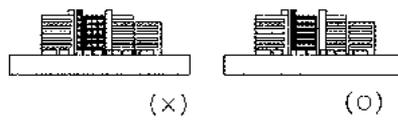
〈표〉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제어요소 종류

제어요소	적용 대상	적용구역	
건축물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유채색 계통으로 주변과의 조화유도	주요간선가로변 및 복개 도로변
	재료	주변경관과 조화된 재료의 선택유도	
	개구부	소원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 소원도 등의 투시형 벽면을 50% 이상으로 유도	
형태	함상형	대형필지내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야확보 및 랜드 마크의할 부여	간선부 대형필지
	그늘생성	가로변 시간통로 확보 고층부 기생강 부여	간선도로변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광고물의 규모, 설치위치 등에 대한 제한	전구역
조명시설	조명	기존 상부조명 일변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의 증진을 위해 후부조명(상향/측향)의 강화유도	주요간선부

■ 특정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개구부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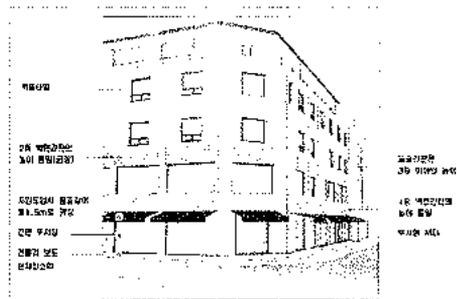
■ 건축물 신축시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예시〉 ○○구역 건축외관(현황)



〈예시〉 ○○구역 건축외관(계획)



▶ 보차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보행·차량동선 및 주차에 대한 계획의 목적은 간선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교통환경의 종합적인 개선을 유도하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제어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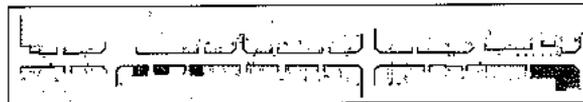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 어 구 역
주 차 차량통상	·간선변 맞은 세가로전속 및 차량호를 방해 최소화	·간선변 ·진구역 ·간선변
	·폭30m 이상 도로변에 차량출입 금지(원칙적으로)	
	·개발필지의 주차 진출입은 연결도로 중 최하위 도로에서 진출입 권장	
공동주차장	·이면부 영세필지의 공동주차장 설치 유도	·진구역
공동주차장	·법정주차대수 + 10%이상 확보유도	·주요경점부 3회행림지

제어요소	제 어 지 침	제 어 구 역	적용기준
보차 혼용도로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 로개설로 지구교통개선	·간선가로 직접 진출입이 예상되는 블록내 주차진출입 및 이면도로 확보지역	·최소폭원 6m이상

〈예시〉○○구역 주차장 현황



〈예시〉○○구역 주차출입현황



기타 토지이용 제한에 관한 계획

▶ 계획적 개발구역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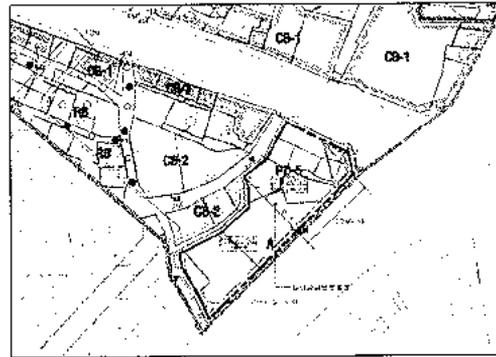
계획적 개발구역이라 함은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필지들을 모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향후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연계추진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개발에 따른 시차를 줄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 특별계획구역과의 차이점은 특별계획이 하나의 대규모 필지 또는 소유주가 동일한 필지로 대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개발이 소유관계 등 갈등의 원인이 적은데 반하여 계획적 개발구역은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개발시 공공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구역이며 한편, 공공의 특수한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① 개별적 건축 또는 개발로 당해 지구의 환경개선이 곤란

하거나 그 효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 ② 지구내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어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나 계획결정전까지 사업의 결정이 불분명할 경우



- 다수의 소유자가 소형필지의 모아 개발하려는 경우,
- 계획 당시 구역내 권리자의 합의에 의해 특정개발사업의 연계 목적을 구역이 지정되었을지라도 동意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당해 구역은 공공사업 등과 연계가 불확실하므로 사업 미연계시의 계획과 사업 연계시의 개발의 기본방향을 동시에 정함
-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건의 변화,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구역을 결정후,

· 주민과 행정과의 협상가능성을 줌으로써 도시계획의 결정에 따른 부담을 감소

■ 구역현황에 따른 공공사업과의 연계를 도모

계획적 개발구역의 범위결정

· 개발필지에 대한 일반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결정한다.

· 일반지구단위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비수단을 명시

- 지정이유
- 기본방향(용적률, 등을 결정)
- 정비수단 및 대안수단의 제시(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의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 민간사업과 연계를 도모할 경우, 개략적인 연혁 및 추진조직의 대표자 및 동의자 등을 명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 민간사업의 경우, 추진을 지켜본다.
- 공공사업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 필요한 시점에 개발사업으로 결정한다.

사업 결정

- 공공사업의 계획
- 민간사업의 계획
- ※ 사업결정 등은 특별계획구역과 유사

특별계획구역과 계획적 개발구역의 차이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적 개발구역
소유자	동일하거나 소수	다수
필지규모	대형필지	소형필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대규모필지의 단독개발 등이 일반적이므로 당해구역에 대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정한다.	- 계획 당시 구역내 권리자의 합의에 의해 특정개발사업의 연계를 목적으로 구역이 지정되었을지라도 동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당해 구역은 공공사업 등과 연계가 불확실하므로 사업 마면계시의 계획과 사업 연계시의 개발의 기본방향을 동시에 정함 -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의견의 변화,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발	주로 민간개발을 전제로 수립	구역내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민간개발보다는 공공개발과 연계가 주목적이나 주민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민간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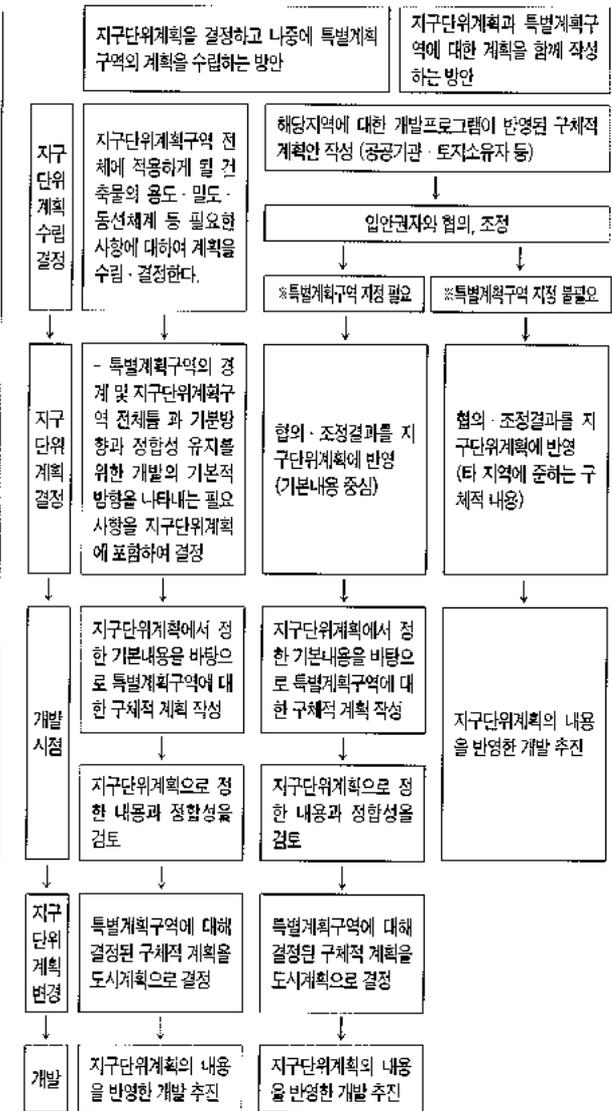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중요한 위치 및 규모를 갖는 대상지에 대하여 민간의 창의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개발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시, 구역내 타 지역에서의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및 방향과 상충되지 않도록 기본계획내용과 특별계획구역의 경계만을 정한 후, 구체적으로 개발이 일어나는 시점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관련 기본계획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프로그램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은 특별계획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 속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 특별계획구역의 목적 및 대상

목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
지정대상	(1) 대규모 소유포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좋은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주요 지표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 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 등을 통하여 좋은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특별계획구역의 기본내용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건축물의 용도 등은 물론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특별계획구역의 내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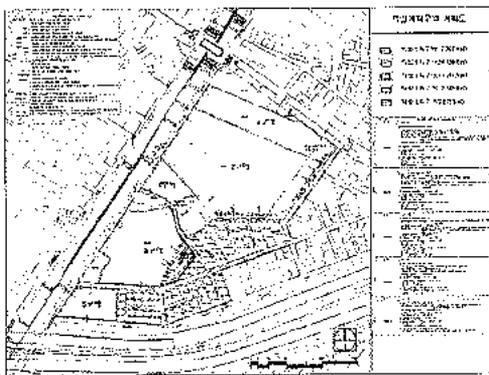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위치	취경동 24-1번지 일대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50%
건축물높이	중로 및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5m
건축물용도	건물전체 권장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자동차 영업소 제외), 공연장 1층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전문소매점, 금융업소,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공공용지확보방안	중로의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로 조성

* 단, 2000.7.15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1,2의 용적률은 상기 용적률에 불구하고 400%범위내에서 적용하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500%범위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할 수 있음

■ 개발시점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 기준예시

계획기준
 · 건축을 하고자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부문별계획의 구상내용을 기준으로 설정
 · 설계초기의 구상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 작성자와 협의
 · 주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 작성자는 구역내 대지가 지정목적에 달성했다고 판단할 경우 용적률 상한을 완화 적용

■ 특별계획구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예시



지구단위계획 작성의 예시

가. 지구장래상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경우, 구역에 대한 지구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 지구이미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토지이용구상은 현황, 문제, 변화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다.

- 지구이미지를 명확히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시가지환경의 목표가 분명해지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편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의 연계가 보다 명확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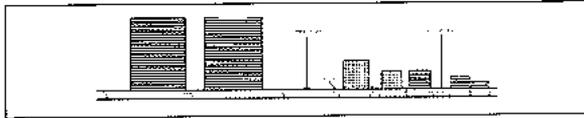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구이미지를 실현하는데 현실적 장애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을 구체화하기 쉽다.

- 부문별 계획에서의 변경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계획의 일관성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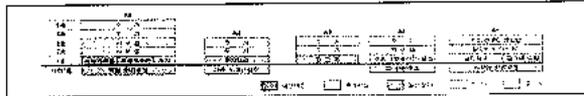


지구이미지를 만든다.

■ 지구 전체의 이미지(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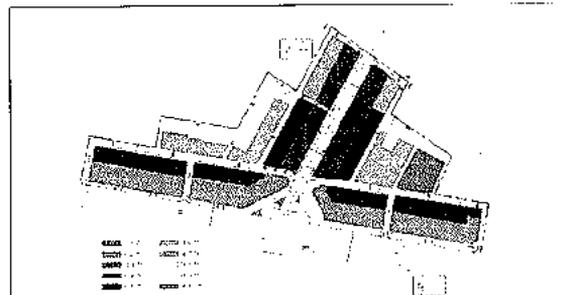
<예시> ○○구역의 건축물의 이용관련



<예시> ○○구역의 건축물의 이용관련



<예시> 주요 계획적용요소에 따른 계획결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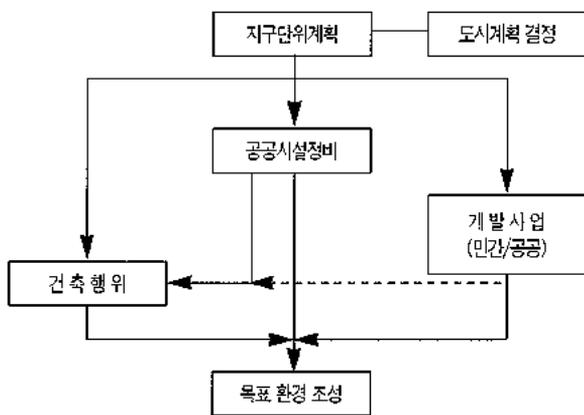
유형구분	제1형	제2형	제3형	제4형	제5형	제6형	제7형	제8형	제9형	제10형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면도로변			준주거지역			
위치	강선가운편				이면도로변			아연부			
분류	A				C			B			
	미인지구내 불허용도 숙박시설(단, 호텔제외) 교육연구시설(암시계획만) 운수시설 방송시설 통신시설(방출국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창고 공실 2층근생시설중 안마사술소 및 단련주점			
1층전면	건자재, 난방 및 수도 페인트, 도스미얼 타이어및테러 등 자동차관련 소에점										
전용권장	1		2		2		없음		1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제외) 전시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시설		
1층전면	금융업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유흥윝및휴양용		금융업무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제외) 전시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시설	
용적률	기준	a	b	d	c	d	e	d	e	e	f
	허용	600	600	500	800	500	400	500	400	400	400
높이제한	최저	900	850	800	800	800	500	800	500	500	600
	최고	7	5	5	-	-	-	-	-	-	-
공동개발	중적으로 배치(도면2 참조)										
	타입형	C	O	O	C	O	-	-	-	-	-
형태	1층 집지부 건물	C	O	O	C	O	O	C	O	O	O
	1층부 형태(부사형)	O	O	O	O	O	O	O	O	O	-
	쌍자공원	O	O	O	O	O	-	-	-	-	O
	가각부 공개공지	O	O	O	O	O	-	-	-	-	O
비고											
* 유형은 규제조합의 형태를 나타냄											

6단계 : 계획 실현을 구체화한다

지구단위계획 계획실현의 체계

▶ 지구단위계획 실현체계

-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계획이 목표로 정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수준을 조성하기 개발필지의 건축, 공공에 의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정비, 민간 또는 공공에 의한 개발사업 등이 필요하게 된다.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실현유형

■ 민간에 의한 개발필지에서의 건축

- 민간에 의한 개발필지에서의 건축은 토지건축주의 수익전망 등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통하여 실현된다.

■ 공공시설의 정비에 의한 유형

- 도로의 설치, 주차장의 조성, 보행로의 환경정비 등 도시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독자적 사업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발사업에 의한 유형

- 개발사업에 의한 유형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정도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제1유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획지조성 및 구획도로 등의 기반정비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와 같이 조성된 필지에서의 건축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일반기준에 의한 관리되는 방식, 두 번째로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기반정비 및 일반기준보다는 조금 상세한 개발기준을 갖는 방식 그리고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개발사업자와 행정의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상의 한계

- 서울의 경우, 특히 기성시가지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이 공공시설의 정비, 민간 또는 공공의 개발사업과 병행 또는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필지의 건축행위에만 편중된 규제중심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

공공부문의 실현방안을 구체화한다

▶ 연차별 집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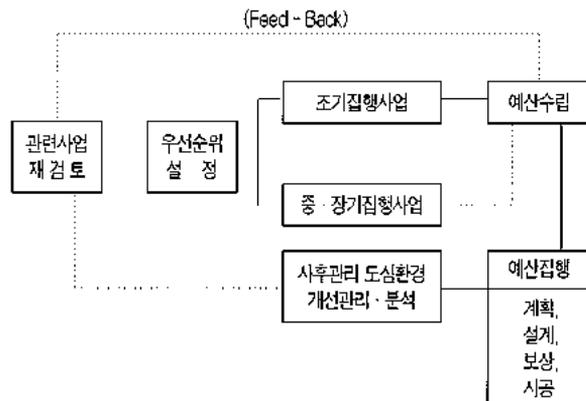
가. 연차별 집행계획의 의미

- 계획구역내 신축·재축 등의 촉진 및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개발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 공공부문의 과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목표에 합당하고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시행단계별 우선순위 설정

- 우선적으로 시행가능한 부분은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당해 부분의 개발방향과 기본방침을 제시
- 기본방침에는 해당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안 예시, 설계지침 등을 제시
- 구역내의 공공건물, 가로장치물, 공원설계 등의 공공사업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청에 관련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유도

다. 시행흐름



민간부문의 실현방안을 구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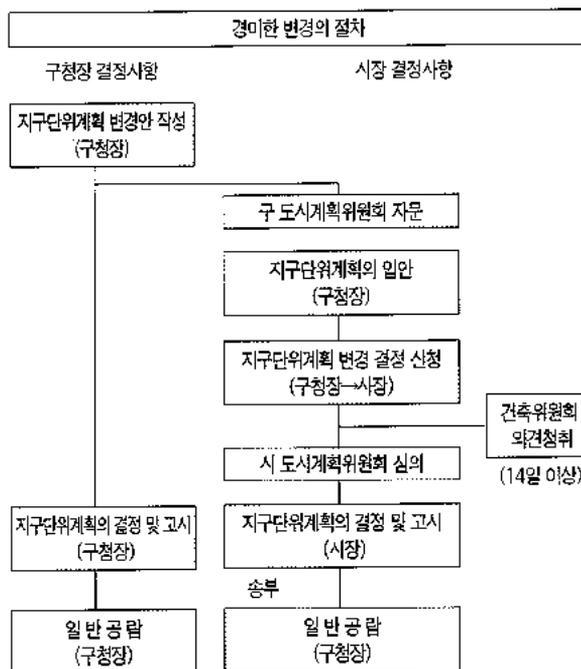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의 건축 인허가 심사를 통한 실현

민간에 의한 개별필지에서서의 건축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목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으로 건축허가제도가 이용된다.

- 건축주 또는 토지주는 재축(증축, 개축, 신축을 포함)의 필요 및 경제적 전망 등 개인적 사유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통하여 실현된다.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상 불합리한 점은 건축심의 등을 통하여 조정하며 사안에 따라 자치구 도시계획심의 또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조정, 실현한다.

〈표〉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흐름도



▶ 계획적 유도수단 :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 규제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제시된 조건의 수용을 촉진 또는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 인센티브는 자발적인 공익증진을 위한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유인수단에서 출발하였으나 추가적 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활용가능한 인센티브〉

지구단위계획에서 특정목적을 위한 유도 및 보상수단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제한, 일조 등 높이제한, 공개공지 등이 있다.

용도제한의 완화는 가능하나 구체적 조건이 없고 개별대에 적용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하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지의 조경, 높이제한, 일조 등 높이제한, 공개공지 등 건축법상 완화조항은 구체적 완화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적용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적용시 유의사항〉

인센티브의 적용을 검토하는 경우, 얻는 것(public amenities)과 그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것(incentives)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지구단위구역 전체 측면에서 필요성, 형평성, 실효성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표〉 건축법상 인센티브 적용가능범위

구분	적용 가능	적용불가	비고
(1) 대지의 조경			
(2) 높이 제한	1.5D	-	가구별 최고높이제한 적용 지체가 인센티브 적용
(3) 일조 등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전용·일반주거지역중 예외대상, 나머지 지역
	일반·중심 상업지역외	공동주택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4)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완화하는 사항이 발생

자료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2000.8.

〈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대상과 완화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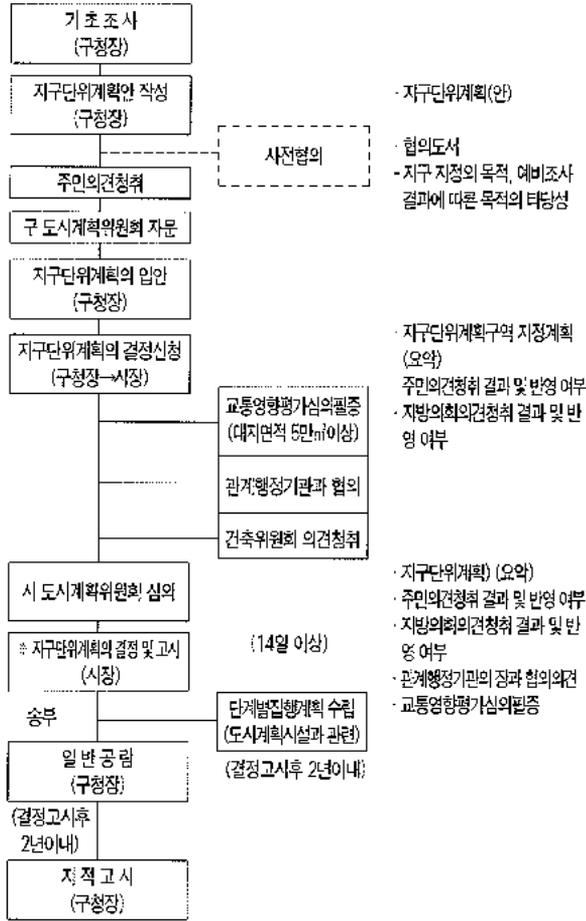
구분	도시계획법상 완화항목			건축법상 완화항목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 제한	일조 등 높이제한	공개공지
	53조	54조	55조	32조	33조	51조	53조	67조
완화대상	무조건	-	-	-	-	-	-	-
	공공시설부지대용	-	○	○	-	-	○	-
	개발촉진지구	-	-	○	-	-	○	-
	공동개발	-	-	○	-	-	-	-
	맞벌건축	-	-	○	-	-	-	-
	주거장, 보행통로 등어려운 등시 건축필요	-	-	○	-	-	-	-
예외	-개발제한구역, 시가지조정구역, 녹지지역, 공원 등 호적지역 및 계획적 개발관리지역, 용도지역상향조정 지역 등			별도규정 없음				

7단계 :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계획 결정의 프로세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므로 도시계획절차를 따른다.

■ 계획수립 및 결정



※ 효력의 발생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효력발생 (법 제25조)

계획 결정의 세부 내용

계획결정단계는 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 계획입안 단계(자치구)와 계획심의단계(서울시)가 있다.

계획결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도시계획으로 정할 사항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시장이 정할 사항과 구청장이 정할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결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과 결정도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

부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혹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 계획결정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

구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운영지침운영)
관련항	도시계획법 제43조 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계획법 제4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내용	1. 지역자구의 세분 2. 도시기본시설의 배치와 규모 3. 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단, 획지는 최대개발규모를 정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용도제한(지정불허용도), 건축물 용적률, 건축을 높이의 최고제한도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고	-기성시기에서 필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획지계획이 필요한 경우 등은 최대개발규모 이외 별도 획지계획을 할 수 있음	-구역별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함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도시공간의 형태, 성격관련 사항은 시장, 기타의 사항은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계획결정의 주체가 시장인 경우와 구청장인 경우의 구분

구분	시 장	시 장	구 청 장
성격	도시공간의 형태, 성격, System과 관련된 사항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통로의 성격, 설치계획	건축물의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관련된 사항
공공분야	지역/지구/의 세분 도시기본시설(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 지구계획 획지계획(최대개발 규모)	건축물의 용도(지정/불허)	획지계획(최대개발 규모) 이내의 범위안에서의 공동/양면/통시개발 대지분할 및 교환 구역과 인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 때를 것 전제)
입가 분야	건축물의 용도(지정/불허) 용적률(기준/허용) 건축물의 높이, 층수(최고/최저)	건축선(건축현계선/지정선) 공개공지의 위치	건축물의 형태/색채배치 건축선(현계선/지정선)의 0.5m이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과 동 구역안의 위치 사항 인센티브 운영규정	장애인·노약자 등 중 우선 편의시설계획 특별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부분의 계획	벽면선·벽면계선·벽면지정선 대지안의 공간에 관한 사항 수중/조경사, 시설물의 설치계획 교통처리계획 중 차량출입구/주차 출입구/보행출입구의 위치 대문/담/울타리의 형태/색채 기타의 크기/형태/색채제한
계획 설명서	지구단위계획설명서		운영지침서
기타		지정 목적상 또는 구역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	

주. 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획의 내용과 취지에 맞추어 적당하게 결정. 도서 작성시 도시계획결정도 기타 도서를 구분하여 작성

계획결정 도시의 작성 등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해야 할 도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결정조서
- (2)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결정도
- (3) 지구단위계획 계획설명서
- (4) 도시계획결정조서와 도시계획결정도는 기존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필요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과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부분' 을 나누어 작성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의 작성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

■ 결정조서의 예시

○○구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목 차
2001. 4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I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용도지역 세분조서
	2 용도지구 결정조서
	3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III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획지계획
	2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IV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3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2호 (2001.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구 도시계획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불록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서울특별시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결정조서의 작성

-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는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도시계획조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는 도시계획수립지침의 조서작성기준에 따른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 또는 가구별로 표시	용 도	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표시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최고 또는 최저한도 표시
	"	배 치	도면참조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안계선, 벽면지정선 등으로 표시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 또는 가구별로 표시	계획내용 표시	전면 도로명(번호) 표시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를 작성하며, 작성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획지 또는 가구별로 표시	계획내용 표시	전면 도로명(번호) 표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도는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도시계획도 표시기준에 따른다.
-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도는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도시계획도 표시기준에 따른다.
- (3) 도시계획결정도는 축척 1/1,000 ~ 1/5,0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에 4-3-2. 와 같은 범례를 사용하여 도시계획결정도를 작성한다. ≡

제10차 아시아 건축사대회(1)

After Visiting the 10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10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지난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도 뉴델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6개 회원국 중 중국, 파키스탄, 몽고가 불참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네팔이 옵저버로 참가하여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으며, 제12차 아카시아 포럼을 2003년 12월 방글라데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차기 아카시아 건축상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활발한 논의와 학생 잼버리 등 다양한 행사를 치렀다. (편집자주)

Fellowship Meeting (12월 2일)

-오전 11시에 개회함.

오랜 동안 홍콩의 Ronald Poon이 Fellowship Meeting 회장 일을 보아왔는데 이번부터 말레시아의 Jimmy Lim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미 림이 참석하지 못하여 2003년부터 아카시아 회장을 맡게 되어있는 홍콩의 Barry Will이 주관하여 진행함. 개회시 참석자는 15명 정도였고 후에 서너명 정도 추가됨.

-전번 회의록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각자의 관심사를 피력하는 것으로 시작됨.

-이전에는 가입비와 회비를 징수하였는데 현재 유보액이 소진될 때까지는 징수를 유보하기로 함.

-아카시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각자 제안하고 논의하여 주요한 사항들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R. Poon〉Fellowship Meeting은 아카시아 회장의 Think Tank 역할을 해야 하며 UIA관계 알들은 아카시아 일정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젊은 세대와 어린이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각 협회는 노력해야 하며 건축사의 보존활동도 강화되어야 한다.

-APEC회의는 주로 엔지니어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출입국 관리소 등)의 해석에 따라 APEC 결정사항 등의 실사가 제지 받곤 한다.

-아카시아 회원국간에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및 응역시장의 개방 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안건을 이사회에서 다루도록 권고.

-해외에서 자리잡은 본국의 건축사가 본국에서 건축 일을 수입하여 지역 건축사와 협동할 때 지역 건축사들은 종속적이 되기 십상이다. 특히 아시아 개발은행 등의 기구가 지역 건축사의 역할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건축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

-건축사들은 각종 복제권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령 지도등의 사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논의된다. 건축사들은 자신의 설계 건물이 영화, 비디오 등의 배경으로 쓰일 때 복제권을 행사하여 그 수익금으로 생활공동체 형성과 생태적인 개선 등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아카시아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도 고려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스테이션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조절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시아 관련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인사들 간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웹사이트를 연결 매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권에서 일고 있는 생태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열의가 자칫 서구의 모델에 심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무모한 모방에 대한 경고가 요구된다. 특히 일본의 Team Zoo 등에 의한 최소 산출 과정 등 고유 모델의 설정 등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20여 년간 엔지니어가 주도하는 건축관계 법을 고치려고 노력해 왔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중국의 장지난씨는 자신이 엔지니어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공학성향을 제거하고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 학교 교육과 실무분야의 괴리가 건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Teaching Hospital System이 주목할 만 하며 중국에서도 그 실제 시행 상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건축교육 제도에 도입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 태국에서는 풍수가(Feng Sui doctor)의 위세가 건축사들의 결정을 임의로 반복하는 빌미가 되어 전문직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고래로 Vastu(dwelling) Shastra(science)가 정립되어 왔는데 건축계에서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에 정규교과에 이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이번 인도에서 개최되는 아카시아대회에 여러 변칙 요소들이 작용하여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사 조직의 책임을 부여받은 협회가 일정 시간한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 아카시아 의장 직권으로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 23회 이사회 (12월 3, 4일)

회기 1 개막식

- 10시에 회의 시작. 현 회장 Zaigham Jaffery가 비자 문제로 불참하게되어 B지역 부회장이며 전 필리핀 협회 회장이었던 루이스 여사가 임시 회의 의장을 맡아보게 되었고 전 교육위원장이었던 스리랑카의 Alwis가 임시 서기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전 아카시아 고문 로날드 쥘 이 현 회장 제프리의 메시지를 낭독하였다. 본의 아니게 불참하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아카시아는 단결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불상사에 너무 개념치 말고 화목으로서 잘 이끌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 중국과 파키스탄, 몽고 등이 불참하였고 네팔에서는 올해 아카시아 가입을 목표로 오브저버로 참석하였다.

- 개최국 인도 협회장 ValMir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서 UIA 제 4지역담당 부회장인 호주의 Louis Cox가 축사를 하였다. 그녀는 UIA에서 아카시아의 의견이 점점 더 비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과 4지역 회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웹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것 그리고 UIA 2지역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카시아에 참여하고 싶다는 전갈을 전했다.

- 아카시아 창설에 공헌했다고 하는 인도의 원로 건축사 Jai Rattan Bhalla는 1967년 아카시아 태동당시를 회고하며 현재 세계 건축계가 당면한 문제로서 건축사의 역할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 거센 세계화의 물결속에서도 건축의 지역적 정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건축교육 역시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기 2 본 회의

- 차기회장 내정자인 홍콩의 Barry Will이 적어도 전 이사회회의록과 회의순서가 두 달 전에 각 회원국에 배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것은 이번 개최국의 준비 부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 (3.0. 22차 이사회회의록 점검) 작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22차 이사회회의록의 확인 과정을 거쳐 5페이지까지는 이사회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는 자료가 보완되는대로 진행하여 일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말레시아의 Esa Mohamed가 담당하기로 한 UIA Accord 위원회에 대한 안건은 Esa의 불참으로 인해 Will이 연락하여 처리기로 함.

- (4.0. 재무보고) 재무보고가 있었고 현재 \$19,057 불의 유보액이 남아있다. 아카시아 회원국의 회비 수입은 현재 년 \$16,500 불이며 Barry Will은 회장국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구좌은행 이전시의 비용은 아카시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싱가포르 협회에서 담당하는 아카시아 건축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4.6. ARCASIA Website) 싱가포르의 Rita Soh가 www.ARCASIA.com에 대한 진행보고가 있었다. 각 회원국의 웹 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도록 요청.

- (4.7. Architecture Asia) 말레시아 담당자로부터 아카시아 건축잡지 발행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각 호당 \$1,000불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일부 회원국 말고는 잡지의 내용을 이루는 작품이나 기타 원고를 보내오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

- (5.0. ARCASIA A, B, C 지역의 활동) 필리핀의 Yolanda 가 대부분의 B, C지역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APEC회의 활동에 대해 언급. 다음 회의는 12월 12-14에 Kuala Lumpur에서 열린다 함. 싱가포르 측에서는 왜 기능들이 비슷한 회의 조직을 중복해서 구성해야 하는가 하고 부정적인 견해 보임.

회기 3 아카시아 일들의 점검.

- (6.0. Report on ACAE) 교육위원장 필리핀의 올란다가 교육위원회 진행 사항을 발표함. 새 교육위원장에 일본의 George Kunihira가 선임되었음을 알렸다.

- (7.0. Country Report) 각국이 돌아가며 지난 일 년간 있었던 주요 사항을 간단하게 알렸다. 우리측에서는 주로 동북아 건축사 연합회, 일본 협회와의 교류, FICA 등 국제관계의 진전에 대해 언급하였다.

- (8.0. Report from ARCASIA Committee on Practice) SIA가 주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각 회원국으로부터 한 달의 기간동안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보완 절차를 거쳐 다음 회의 채택키로 함.

- (9.0. ARCASIA Information Dissemination: 9.2. Architecture Asia) 아카시아 건축잡지의 창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P. Kasi가 상황을 요약함.

* 각 회원국에 100권을 무료로 배분하는 것은 계속한다.

* 실제로 책의 발간을 대행하고 있는 BC사와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간에 5내지 10년간의 계약을 연장하려고 한다.

* 각 회원국과 잡지관계 일을 연락 협의 할 책임자를 회원국마다 선정해 줄 것을 당부.

* 회원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잡지 편집진으로 접수되는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와 같이 회원국들이 수동적으로 임하여 좋은 작품의 게재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잡지의 생존을 위하여 협회를 통하지 않은 작품접수도 불가피할 수 있다. 회원국으로부터의 접수 마감일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충분한 작품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 (Report on Student Awards from JIA) 학생 건축상의 운영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행사를 집행하는 당사국은 집행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 금번 인도에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에 알려지지 않아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14.1. Report from SIA on FORUM 11) 싱가포르 협회가 작년에 그들이 개최하였던 아카시아 포럼 집행 상황에 대해 결과보고 함. 이사회는 싱가포르 협회에 감사의 표시를 함.

- (14.2. Forum 12 Bangladesh) 필리핀 등 이슬람 국가의 행사일정 관계로 포럼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2003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로 결정. 날씨관계로 12월이 가장 적당하다 하며 방글라데시를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이 있었다.

- (15.1. HKIA-SIA-UIA-ARCASIA Seminar on Architecture for the Handicapped) 홍콩이 주관했던 장애자를 위한 건축에 대한 국제 세미나의 책자가 배부되고 이 행사를 조직하는데 애쓴 Joseph Kwan에 대한 치사가 있었다.

- (17.0 Jury for ARCASIA Awards) 차기 아카시아 건축상 진행을 위한 심사원 구성의 담연직과 선출직의 발표가 다음 해 집행국인 방글라데시 협회로부터 있었다.

Convenor : Sharmware

Advisor : Fung John Chye (Alternate : Zaigham Jaffery)

Jury : Barry Will(Chairman Arcasia), Sharmware(Convenor), Justice Habibur Rahman (Bangladesh).

B.V. Doshi(IIA), Ken Yeang(PAM), Rasem Batram(Jordan)

- (MACAU' s presentation) 마카오 협회 측이 2004년에 개최할 아카시아 이벤트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국에는 건축학교가 없으므로 학생 잠보리는 홍콩협회의 협력으로 진행하기로 함.

- 네팔에 대한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었다. 네팔은 250명 정도의 건축사가 있으며 문화적으로 인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

- 루이스의 성공적인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었고 주최국에 대한 노고도 치하였다.

현 회장 Zaigham Jaffery가 본의 아니게 참석 못하게 되어 필리핀의 루이스가 대신 사회를 진행하였는데 각 회원국의 협조로 무난히 끝났다. 그러나 인도측에서 서류 준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회의 진행 순서도 변칙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회 뿐 아니라 학술회의와 학생 잠보리, 건축상 등에 대한 정보도 거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카시아 탄생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폴이나 태국 등의 국제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의 지원과 독려를 통해서 국제활동에 자원과 인력이 투입됨으로써 많은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일본의 국제관계에 관여하는 구성원들은 전에 없던 강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국제활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국제위원장에 선임되는 것을 필두로 국제적인 학술세미나와 교육세미나를 초치하여 개최하는가 하면 국외의 학술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발표자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관계 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야 하며 행사참석에 그치지 말고 work program 등을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조직하고 이벤트를 초치하며 그 결과물을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이정근/본협회 국제위원)

ARCASIA 교육위원회(ACAE)

제10차 아카시아 건축사 대회가 2002년 12월 5~7일 사이에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본협회 국제위원으로 금번 아카시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2월1일 저녁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도 델리로 갔다. 약 10시간의 비행 여정 후 현지에 도착하니 시계가 새벽 2시 (한국시간 5:30분)를 넘고 있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니 문앞에 대회일정에 관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첫날은 Fellowship Meeting, 둘째 및 셋째 날은 아카시아 이사회가 있으며 셋째 넷째 그리고 5일째는 아시아 건축사 대회 및 학생 잼버리가 열리는 일정이었다.

12월 2일

오늘은 Fellowship Meeting이 있는 날이다. 일찍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나라 대표단이 도착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일년만에 조우하였다. 첫날은 Fellowship Meeting인지라 아직 몇몇 나라는 도착하지 못하였다. 특히 중국 등 몇 나라에서는 인도 건축사회에서 초청장 발송이 늦은 관계로 인도 비자를 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현 아카시아 회장인 파키스탄의 Ziagram Juiffery氏도 비자 문제에 참석치 못하였고 그 대신하여 아카시아 차기 회장인 홍콩 건축사 대표인 Mr. Barry Will씨가 Fellowship Meeting의 사회를 보았다. Fellowship Meeting의 내용들은 주로 금번 이사회 회의의 Agenda를 제시하고 교육 위원회의 Agenda를 정하였으며 이번 아카시아 대회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건축대학 학생들이 참석하는 Student Jamboree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Coffee Break 후에는 각국에서 송금하는 연회비에 대한 입금확인 및 운영상황 설명도 곁들여졌다.

첫날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각국의 Fellowship Member들이 금번 대회에 대한 진행 사항을 꼼꼼히 check한 다음, 저녁 늦게 Fellowship Member를 위한 Dinner Party가 현 숙소인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버스로 약 1시간 떨어진 조용한 Resort Hotel에서 있었다. 델리의 12월 밤 기온은 냉랭하였으며(약 4~5℃) 다소 추위를 느끼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다.

12월 3일

오늘부터는 아카시아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우선 14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임사회장단이 좌장을 한 다음에 간단한 Comment와 금번 참석치 못한 현 아카시아 회장인 Ziagram Jaffery씨의 인사말을 Arch. Poon씨가 대독하여 잠시 회의장이 숙연해졌다. 인도건축사회의 초청장 발송 문제로 파키스탄 대표, 중국 대표가 참석치 못하였으며 몽골 대표단도 보이지 않았다. 아카시아 회장이 공식 중인지라 Adviser Arch. Poon씨의 추천으로 Zone "B"의 Deputy Chairman인 필리핀 대표인 Arch. Luis씨가 임사회장을 맡아서 회의 진행을 하였다. 우선 회장 인사말과 개최국 Convenor의 인사말이 있었고 각국 대표들의 자기소개를 일일이 하였다. 금번에는 네팔건축사회가 우선 Observer로 참석하고 있었다. 개최국에서는 지난번 대회의 회의내용을 정리한 File을 각국 별로 나누어주면서 지난번 싱가포르 대회시 의제로 채택된 Object들을 수정 내지 보완하여 이사회의 의결 통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원래 본인은 이사회에 참석할양 Country Report도 준비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던 동국대학교 김홍일교수가 항공기 연결이 원만치 못하여 회의 장소에 하루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부득이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Data를 들고 바로 옆 회의실로 옮겨와 교육위원회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다. 교육위원회는 금번이 처음 참석인지라 난감하였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일본 대표인 Arch. Gorge Kunihiro씨는 생소한 나를 보면서 Pinch Hitter라 불러 방그레 웃고 말았다.

금번 교육위원회에서는 필리핀 건축사 대표인 Arch. Yolanda씨가 회장직을 맡았으며 수석 부회장에는 일본 대표인 Arch. Kunihiro씨가 그리고 총무에는 인도 대표인 Mr. Singh 교수가 맡아 회의를 주관하였다. 현재 교육위원회 회장인 Arch. Yolanda씨의 인사말과 이어서 각국 대표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으며 특히 UIA의 Region IV의 대표인 호주 건축사 Mrs. Cox씨가 참석하였으며 곧 이어서 지난번 싱가포르 건축사대회에서 교육위원회 의제로 채택되었던 Agenda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여 승인하였다. 각국 대표들에게는 회의자료 Report들을 나누어주었으며 지난번 회의에서 건축교육을 위한 Guide Book 편찬을 하기 위하여 그 내용 중 일부인 Time Line Chart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ime Line Chart란 각 국가별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대별로 건축물을 그 사진과 함께 연대, 건축가 이름, 건물명 등을 기입하여 시기별로 정리하는 page로써 차후 건축인 및 건축학생들에게는 좋은 건축물 종합 목록지가 될 것이라 보았다. Time Line chart의 각 page에는 반드시 하단에 건축물을 선정한 단체(각국 건축사회의)의 이름과 담당자 이름까지 기입토록 하였다. 교육위원회 당일에는 대략 5개국에서 기 준비하여 제출되었으며 모든 국가에서는 Standard Format에 맞추어 Time Line chart를 정리하여 2003년 1월 말까지 CD 및 Hard Copy로 제출토록 하였다.

다음은 아카시아 회원국의 건축교육(APAE)에 대한 Program 준비를 계속하기로 하고 그 준비위원으로 태국 건축사 국제 부위원장인 Arch. Milton Tan씨에게 위임하였다. 이어 ACAE 회의에 따른 협의내용은 매년 ACAE 회의를 개최토록 하였고 회의 장소는 ACANA FORUM 회의 때 Host Country에서 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타 자발적 지원국에서 하기로 하였다. UIA, UNESCO에서 건축교육 인증문제는 아카시아 교육인증위원들이 참석하여 교육인증을 원하는 협회 및 단체가 신청하여 인증 받는 문제를 Program화 한 것이라며 UIA 제4지역 대표인 Arch. Cox 씨가 정리 답변하였다. 학점 인증문제 및 비용부담 인원수 조정 등은 계속 협의기로 하였다. 회의 끝 무렵에 ACAE 차기 회장 선거가 있었으며 현 회장인 Arch. Yolanda 씨 후임에 일본 대표인 Arch. Gorge Kunihiro 씨가 당선되었으며 Deputy Chairman에는 인도의 Singh 교수와 스리랑카의 Arch. Kiringoda씨가 선정되었다. 이상으로서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모든 Summary는 회장인 Arch. Yolanda 씨가 Council Meeting에서 발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금번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에서 담당 위원이었던 김홍일 교수가 본진 보다 하루 늦게 출발하고 항공기편 연결이 원활치 못하여 교육위원회에 참석치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 협회의 계획성 있는 지원을 당부 드린다. (오근석/본협회 국제위원) ■

건축계소식 / 67

해외잡지동향 / 72

현상설계 / 76

법령 / 88

세무안내 / 94

건축가 미술전 / 96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물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3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해 실시중인 설계도서를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5단계로 세분해 설계의 단계별 업무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 기준을 개정, 1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계도서(기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기본, 부가, 추가업무로 구분)를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와 건축주의 요구에 따른 도서로 나누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시방서에 종전에는 재료, 공법, 시험 및 검사에 관한 내용 등 개괄적인 사항만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처럼 설계도서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설계의 질이 향상돼 부실설계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설계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88쪽 참조)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자격종과 자격수첩 교부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가 지난 1월 24일 발표됐다. 지난해 9월 27일 실시한 2002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서 여성 57명을 포함해 468명이 최종 합격했다. 2002년도 시험에는 4,967명이 응시해 9.4%가 합격해 2001년(13.1%)에 비해 합격률도 떨어지고 합격자도 174명이 줄었다.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본회와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건축사자격증과 자격수첩을 교부했다.

제11회 건축가미술전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우리협회 1층 전시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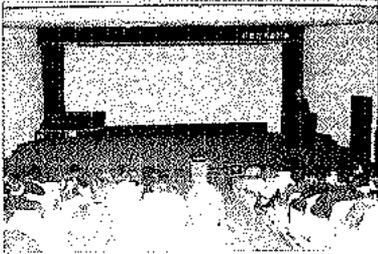
건축가미술동호회(회장 조성렬)에서 매년 개최하는 건축가미술전이 11회째를 맞아 우리협회 1층 '아키텍트갤러리'에서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2003년 새해에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동호회 자체의 교분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조성렬, 강성익, 강정행, 김낙중, 김석환, 김정곤, 손석진, 신홍경, 유희준, 양해윤, 이관직, 이기범, 이원희, 정영호, 최영집 회원이 참여했다.

제37회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개최

일시 : 2003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서울건축사회, 신년 세미나



서울건축사회는 지난 1월 22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주)코스피정보의 협조를 얻어 건축사사무소의 발전적인 컴퓨터 활용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세미나에는 2백여명의 회원 및 회원사 직원들이 참가했다.

2003학년도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2월 13일까지 접수

-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2년과정, 3년과정): 건축설계전공
 - 박사과정: 건축설계전공, 건축역사/이론/비평전공
- 전형방법
 - 석사과정: 작품, 실기(개념스케치 및 해설), 구술
 - 박사과정: 서류, 구술
- 지원자격
 - 석사 3년과정: 학사학위취득자와 취득예정자(출신학과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
 - 석사 2년과정: 건축(공)학을 전공한 학사학위취득자와 취득예정자
 - 박사과정: 건축학 전공 석사학위자

- 및 예정자
-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월 13일까지
 - 시험일: 2월 14일 10시
 - 합격자발표: 2월 17일
- 문의: 02-390-5245,6
http://gsak.kyonggi.ac.kr

2003 경향하우징페어

32월 21일부터 26일부터
서울무역전시장/코엑스 동시개최

e하우징, 경향신문사와 SBS는 21세기 주택문화를 선도할 「2003경향하우징페어」를 오는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과 코엑스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국내 전시회 사상 최대규모 행사로 열리는 이번 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로 18회째로 700여 업체가 주택 및 건축관련 자재 100,000여 점을 전시, 주거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주택관리 및 보수에 대한 중요성과 펜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경향에 맞게 행사를 꾸민다. 전시장 구성은 건축자재전, 건축공구, 전기 및 조명기기전, 주택리모델링 특별전, 펜션 및 전원주택 특별전, 홈시어터 및 홈오메이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롭게 탄생하는 '경향하우징페어 홈인테리어 특별전'은 가구, 패브릭, 인테리어 소품까지 소비자가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전시된다. 또한 이번 전시회 기간 중 펜션 관련업체와 건축물의 보강업체의 신기술 신공법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전시장 입장료는 5,000원으로 서울무역전시장과 코엑스를 모두 관람할 수 있으며, 무료관람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행사 홈페이지(www.eHousingFair.com)를 통해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 건축사 신분증 소지자는 무료관람 가능.
문의: 02-3701-1600

2003 디지털 건축컨텐츠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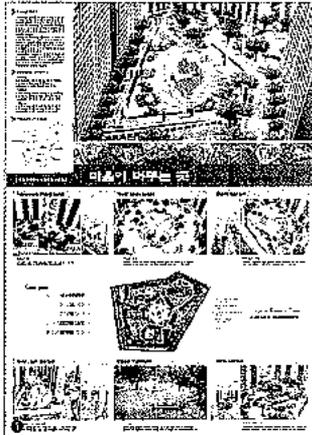
2월 20일까지 참가신청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는 2003년 건축디지털컨텐츠 공모전 개최요강이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독창적이고 유용한 건축컨텐츠와 기술개발, 건축정보의 웹을 통한 활성화와 멀티미디어 응용 표현기법 개발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 관한 작품 및 개념, 방법론을 포함한 건축 관련 전 분야에 걸쳐 공모한다.

- 참가신청: 2003년 2월 11일~2월 20일
(www.digital-architecture.or.kr)
- 참가자격: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
- 작품접수: 2003년 3월 11일~3월 17일
(총용량 20MB이내 HTML문서로 제출)
- 심사: 2003년 3월 18일~4월 18일
- 기술워크숍: 2003년 3월 22일(참가신청자)
- 시상식: 2003년 4월 25일
-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www.da2003.com)

제2회 대한민국환경디자인 대전

총 8개 부문 시상



성남시 특별공모 부문
이정희, 최승철(마음이 머무는 곳)

성남시와 사단법인 한국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환경디자인대전의 결과가 지난 2002년 12월 9일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의식의 제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디자이너 발굴과 육성에 중점을 두고 32명의 심사위원이 2회에 걸쳐 심사를 했다. 총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된 이번 대전에서는 관광정보디자인 부문에 정영옥, 정수희씨의 공동 작품인 <Healthia>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환경제품디자인 부문에 홍종철씨의 <Paperized Housing>가 산업자원부장관상을, 환경시설물디자인 부문에 임재범, 한규성씨의 <airigloo>가 환경부장관상을, 실내환경디자인 부문에 김성호, 정영철씨의 <Nature, Human, Media, Space>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옥외환경디자인 부문에 양재석, 장우정씨의 <X-Zone>이 성남시장을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성남시특별공모에 이정희, 최승철씨의 <마음이 머무는 곳>

대상을 차지했다. 작품전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코리아디자인센터 8층 연회실 전시장에서 있었다. 심사위원장은 장 나이렌(북경이공대학 설계예술학원 원장)교수가 맡았다. 문의: (사)한국도시환경디자인연구원 사무국 (042-472-0033 www.kiud.or.kr)

제1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오는 4월 30일 마감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1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T. S. KIM Architectural Travelling Fellowship)를 개최한다.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여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자격요건: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자 선정
 - 예선 당선자는 여행 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
- 접수마감: 2003년 4월 30일까지
- 문의 및 접수처: 맥스트랙(신중환소장, 02-569-153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5 로프트 빌딩 3층1호 (주)맥스트랙 내 "김태수 해외건축여행장학제" 담당자 앞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TSKAF.ORG 를 참조)

제21회 서울시 건축상

오는 3월 8일 마감

서울시는 제21회 '서울시건축상' 작품을 응모한다. 이 상은 서울시가 건축문화의 발달과 도시미관의 증진 및 우수 건축물의 건립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준공건축물부문과 야간경관조명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된다.

- 응모대상

- 준공건축물부문: 2001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리모델링 건축물
- 야간경관조명부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외부경관조명 설치된 모든 시설물

- 작품접수: 2003년 2월 10일~3월 8일

- 준공건축물부문: 시청 건축과
- 야간경관조명부문: 도시환경개선단

- 시상: 2003년 5월 14일

- 전시: 2003년 5월 14일~20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제3회 서울리모델링페어 개최

오는 5월 14일부터 서울무역전시장에서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중앙일보가 개최하는 제3회 서울리모델링페어가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다. 21세기 유망한 건설시장으로 대두되는 리모델링 산업의 설계, 시공, 자재 부문을 총망라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건축 분야에서도 리모델링을 전문분야로 특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상담계약 위주의 전시회를 지향하여 현장에서의 상담과 계약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건축관련 전문인을 중심으로 방문객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참가업체의 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전문강사진들로 구성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2-711-4546

www.remodelingseoul.co.kr

2003년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개최

오는 3월 20일부터 코엑스에서

2003년 서울 리빙디자인페어가 오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코엑스 1층 태평양홀과 3층 대서양홀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디자인과 신제품을 통한 아시아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리빙 디자인 전문 국제 전시회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그 규모가 예년에 비해 두 배로 확장되고, 국내 리빙 디자인산업의 디자인적 감성을 국제적인 트렌드로 부각시켜 참여업체의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과 발맞추기 위해 이전의 전시회보다는 컨셉을 세분화하여 진행된다. 전시회 첫날인 20일에는 브랜드 전문성 강화 및 글로벌 비즈니스페어의 정착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한 비즈니스 데이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2262-5607

박진호 교수,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 평의회협회사상' 과 'ACSA상' 수상

박진호교수(University of Hawai'i at Manoa)가 하와이 주립대학 평의회협회사상(Regent's Medal for Excellence in Teaching)과 2003 ACSA(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Architecture) AWARD에서 ACSA/AIAS New Faculty Teaching Award을 받았다.

'하와이 주립대학 평의회협회사상'은 하와이 주립대학 교수 중에서 교과목 지식과 연구,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지도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 헌신도 등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수상자 14명중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박교수가 수상했다. 또 '건축대학연합상(ACSA AWARD)'은 미국 건축대학연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교수들에게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상으로 박교수는 그 중에서 미국건축가협회 신임교수 지도상(ACSA/AIAS New Faculty Teaching Award)을 받았다. 건축대학연합은 건축교육의 질적 발달을 목표로 1912년 설립되어 비영리, 회원제 단체로 250여개 대학의 5,300여명의 건축과 교수와 500여 설계사무소로 구성된 후원회로 이루어진 단체로 건축계의 중요한 사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출판사업, 각종 시상과 설계경기프로그램, 건축연구후원과 정책개발 그리고 연계조직과의 교섭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진호 교수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CLA건축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미노아 소재 하와이 주립대학 건축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681-5716~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63-7473)
- 강북구건축사회/(3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4993)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3-5244)
- 구로구건축사회/(264-5826)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2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용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9-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9)
- 양천구건축사회/(63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82-2143)
- 은산구건축사회/(717-60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96)
- 용도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511)983-8902 · 광명건축사회/(02)39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8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5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98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6-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9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0-0458
- 여천지역건축사회/(031)835-0545
- 광명지역건축사회/(031)657-6348
- 오산건축사회/(031)375-88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8-0149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6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전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6752
- 청주지역건축사회/(043)643-3589
- 충주지역건축사회/(043)351-159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중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배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3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382-2756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6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6-9944
- 364-76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3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2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3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0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3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6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0-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64)304-8256
- 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8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843-0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0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망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8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53-4612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6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a+u

2003년 1월

이번 호에서는 근대기의 독일의 저명한 건축가 칼 프리드리히 쉐켈(Karl Friedrich Schinkel)과



루드비히 미스 반 데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특집이 꾸며졌다. 이들은 100여년의 시간차를 두고 각각 19세기 신고전주의와 20세기 근대 건축의 거장이면서 미스가 쉐켈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특집 「쉐켈과 미스」에서는 이러한 이 두 건축가의 관계를 자연과의 건축의 융합이라는 테마로 재조명하고 있다.

■ 특집: 쉐켈과 미스

동·서독일의 통일과 함께 많은 수의 건축물의 복원과 건축연구가 최근 깊어감에 따라 우리는 오늘날 19세기 신고전주의 건축가 칼 프리드리히 쉐켈에서 20세기 모더니즘의 가장 루드비히 미스 반 데르 로에에 이르는 프로이센의 건축과 랜드스케이프의 풍부함과 역동성이라는 전통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세기 가까운 시간이 쉐켈과 미스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나, 배리 버그돌(Barry Bergdoll)에 의한 이번 특집의 에세이에 나타나는 것처럼 두 사람의 건축가는 포츠담 주변의 랜드스케이프를 기점으로 '금진적인 공간적 실험으로 건설의 시편에 참여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특집을 이해 새롭게 촬영된 사진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디자인의 유기적인 요소와 그것들을 지탱하는 이념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생기를 잃지 않고 있으며, 세대를 초월한 불멸의 유기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배리 버그돌의 에세이 - 「쉐켈과 미스: 자연의 퍼스펙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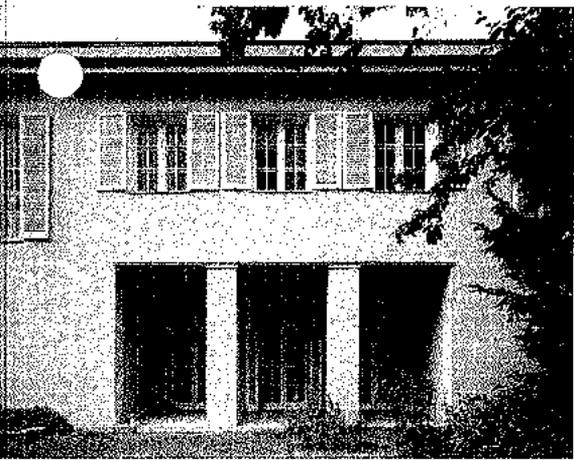
배리 버그돌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미술사학 교수로서 뉴욕근대미술관(MoMA)의 「베를린에서의 미스展」의 큐레이터를 맡은 바 있고, 다수의 근대 건축에 관한 저작이 있으며, 그 중에는 「칼 프리드리히 쉐켈: 프리시아의 건축」이 있다. 그의 저서와 경력에서도 잘 나타나는 그의 쉐켈과 미스건축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이번 특집의 에세이에서 둘의 건축을 비교해가며 자연과 랜드스케이프라는 공통분모를 도출해내고 있다. 쉐켈과 미스의 처녀작이 서로 불과 수마일 떨어진 채 100여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포츠담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의 신전(포모나 신전)과 주택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저자는 두 건축가의 처녀작에서 시적인 건설의 감수성과 금진적인 공간적 실험이라는 프로이센 건축의 전통과 풍부하게 펼쳐지는 랜드스케이프를 한데 엮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스의 처녀작인 릴(Riehl)주택은 쉐켈의 글리니케(Glienicke)궁전에서 배운바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스가 비록 글리니케 궁전을 포함한 쉐켈의 건축과 랜드스케이프



미스의 릴(Riehl)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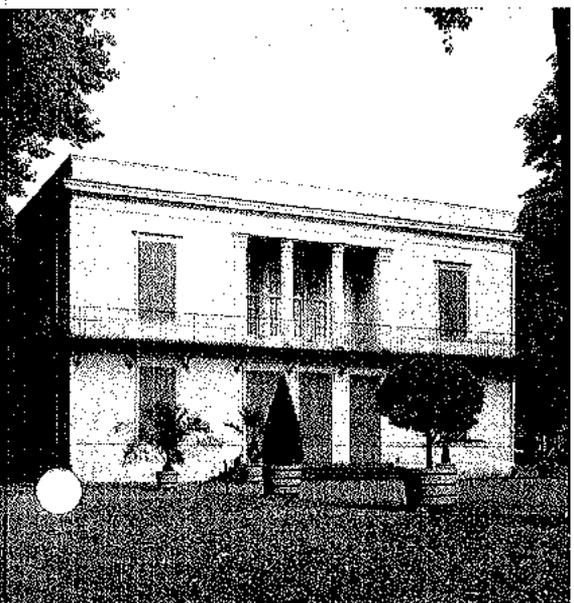


쉐켈의 글리니케(Glienicke)궁전



미스의 펄스(Perle) 주택

이포 디자인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더라도 그가 쇠켈의 작품들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건물의 명확한 윤곽과 자연의 랜드스케이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고 연결시키는 등의 쇠켈의 수법은 확실히 미스의 건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자는 이어 미스의 펄스(Perle)주택과 쇠켈의 샤를로텐부르크(charlottenburg)의 뉴 파빌리언의 비교에서 쇠켈에 경도된 미스의 태도를 더욱 확연히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쇠켈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대칭과 비대칭성, 미스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미끄러지는 면들에 의한 플래닝 등에 대해 언급하며 각 건축가의 특징과 그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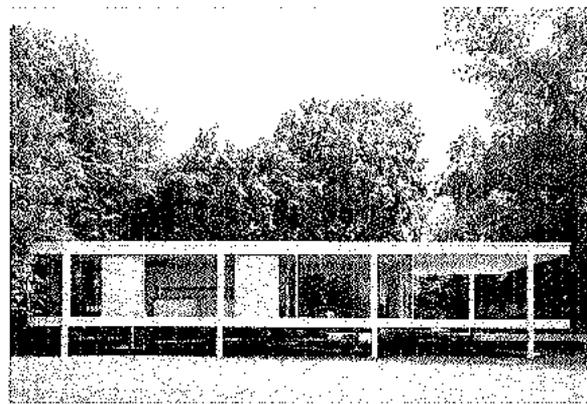


쇠켈의 샤를로텐부르크(charlottenburg)의 뉴 파빌리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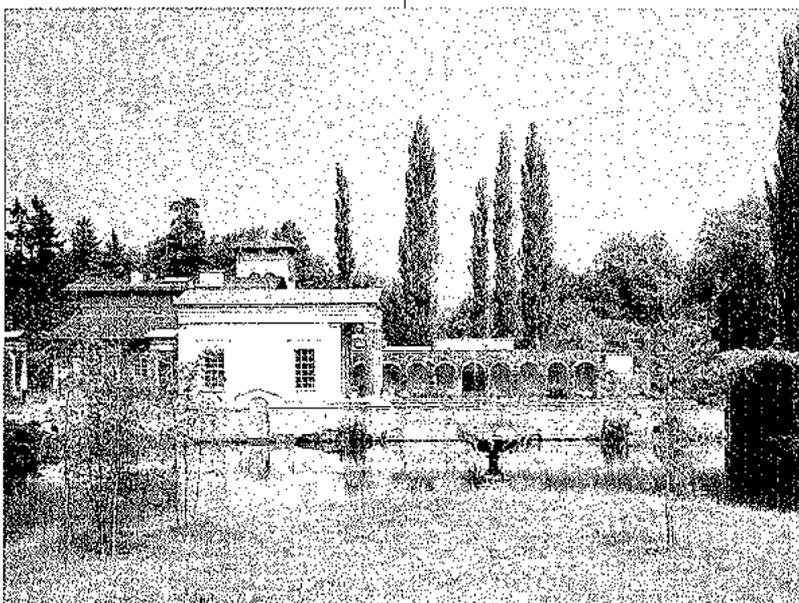
베리 버그돌이 미스와 쇠켈의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은 건축물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주위의 랜드스케이프에까지 시야를 확장시켜 그 관계성을 읽어내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 미스가 철골 기둥을 세우고 유리를 사용하여 건물의 외피를 얇은 피막으로 만드는 도전적인 건축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그의 분석의 관점은 이어진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맺음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건축의 기원이며 이를 바라보는 자의 기원이기도한 자연은 1800년 포츠담에서 이오니아식 신전(포모나 신전을 말한다)에 잘 어울렸던 어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를린호수변의 스틸과 유리를 중첩시킨 도전과 기회를 생각할 때에도, 혹은 일리노이 강가에 그것을 띄울 때에도 적절한 어휘로서 융합되었던 것이다.

에세이와 함께 수록된 사진들은 저자의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새롭게 촬영된 것들이다. 기존의 건축물의 형상을 주로 잡아내었던 시각에서 벗어나 주변과의 관계성을 포착할 수 있는 시선으로 사진의 앵글을 잡아간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과 함께 소개된 쇠켈과 미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먼저 쇠켈의 작품으로 포모나(Pomona)신전, 러시아식민

지 알렉산드로브카(Alexandrowka), 글리니케 궁전과 카지노, 뉴 파빌리언(일명 쇠켈 파빌리언), 테겔(Tegel) 궁전, 샤를로텐호프(Charlottenhof) 궁전, 정원사의 집이 소개되었으며, 미스의 작품으로는 릴 주택, 펄스(Perle)주택, 콘크리트 컨트리하우스 프로젝트, 에스터스(Esters)주택, 헤르만 랑게(Hermann Lange)주택, 바르셀로나 파빌리언, 투겐타트(Tugendhat)주택, 렘 케(Lemke)주택, 판스워스(Farnsworth)주택이 소개되었다.



판스워스(Farnsworth) 주택



정원사의 집

신건축

2002년 11월

이번 호에서는 96년 현상설계와 함께 관실을 모았던 일본 「국회도서관 관서관」의 준공된 모습과 공사과정에



에 관한 기사와 커버를 장식한 이소자키 아라타의 「세라믹 파크 MINO」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최근 건물 외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자리 잡은 파사드 엔지니어링부문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집단의 소개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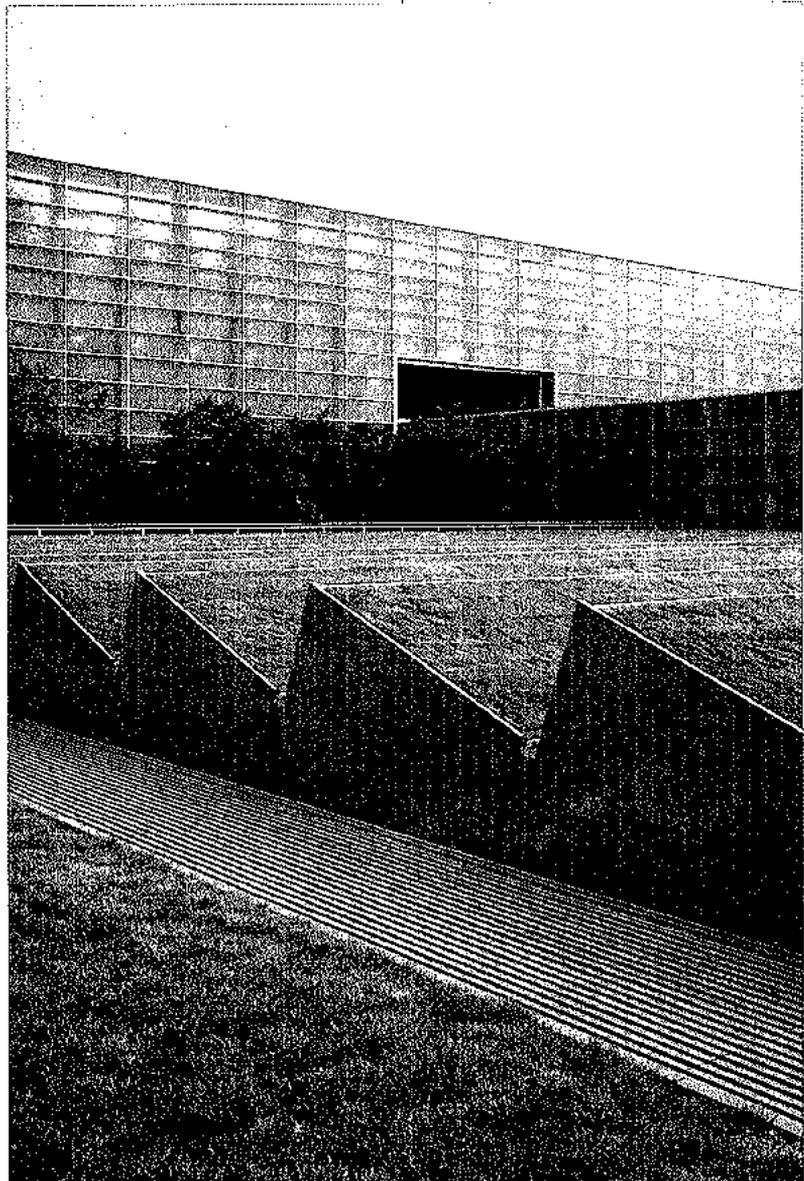
■ 최근 작품: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1996년 8월에 현상설계 당선안이 발표되었던 일본 국회도서관 관서관(關西館)이 드디어 완성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토키 후미오(陶器二三雄)건축연구소의 설계로 이루어진 국회도서관 관서관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전자도서관으로서 관심을 모아왔다. 도서관이 자리잡은 곳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풍부한 자연이 어우러진 교토와 나라의 경계부근이다. 이곳은 일본 관서지방의 문화학술 연구도시로서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곳으로서 도서관은 이 지역의 핵이 되는 시설이다. 관서관은 거대하고 지역의 중심시설이기는 하나 기념비적이고 과장된 표현은 지양되었다. 아직 개발단계로서 장래 모습의 예측이 어려운 주변 환경에 대해 지역의 중핵시설이 되는 도서관의 형태, 볼륨, 랜드스케이프 등은 장래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전체의 구성은 도시구성의 주간선이 되는 대로에 평행하게 북에서 남쪽

으로 열람실, 중정, 그리고 관리동을 배치하여 이루어졌다. 전체의 3/5이상을 점유하는 서고를 지하에, 그리고 열람실을 반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지상부분의 볼륨은 연구, 관리동만으로 채워졌으며, 규모에 비하면 볼륨감이 적은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심에 위치하는 중정은 시설의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6만 평방미터의 거대건물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서관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자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그 외관의 표현은 테크놀러지적 표현이 이야기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요란함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현의 진부화를 고려한 결과 단정한 더블스킨 커튼월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단열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립도서관으로서 단정하고 조용한 품격을 추구한 디자인상의 선택이었다. 80cm폭의 「유리벽」에서 나타나는 존재감, 유리면에 투영되는 나무들의 모습, 빛의 흔들거림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자연의 빛과 바람, 녹지, 투명감, 가벼움 등의 환경언어가 계획의 핵이 되었다.

이러한 건축적 테마 외에도 국회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관서관에는 600만권의 장서의 출납을 위한 최첨단 반송시스템도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 이용자의 출납서비스의 속도 향상과 도서관 직원의 작업부담 경감을 위해 대규모의 자동 자료반송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평면적으로 광대한 관서관의 스케일에 최적의 방식을 검토한 결과, 수평반송에는 지주식 대차시스템, 수직반송에는 리프트나 순환식 시스템, 그리고 스테이션의 주위에는 컨베이어방식이라는 복합반송시스템을 채용하였다. 21개소의 스테이션에서 자료를 불러내거나 보낼 수 있으며, 46대의 자주식 대차가 서적을 싣고 건물을 분당 120m의 속도로 순환한다. 또한 지하 3·4층에 오픈부를 두어 더블컨테이너 방식에 의해 서적의 수용효율을 높이고 출납·배기작업의 고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자동서고를 도입하였다. 보관된 서책은 컴퓨터에 의해 모두 재고 관리되며, 필요시에는 출납기록의 열람도 가능하다. 자동서고 시스템과 자료반송 스테이션의 사이는 무인 반송대차로 연결된다.

■ Arup의 파사드 엔지니어링 그룹

건물의 외피는 건물의 외관으로서 그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동시에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접점으로서 인간의 피부와 같이 빛, 열, 공기 등 자연환경에 대한 성능이 집약되어 요구되는 중요한 건물의 요소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외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집단의 독립적인 활동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 건축설계사무소인 Arup에서는 파사드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룹이 독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파사드 엔지니어링이란 파사드의 외관, 성능, 품질, 코스트, 공기(工期) 등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파사드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된 토탈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건축가의 파트

너로서 파사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베이스로한 종합적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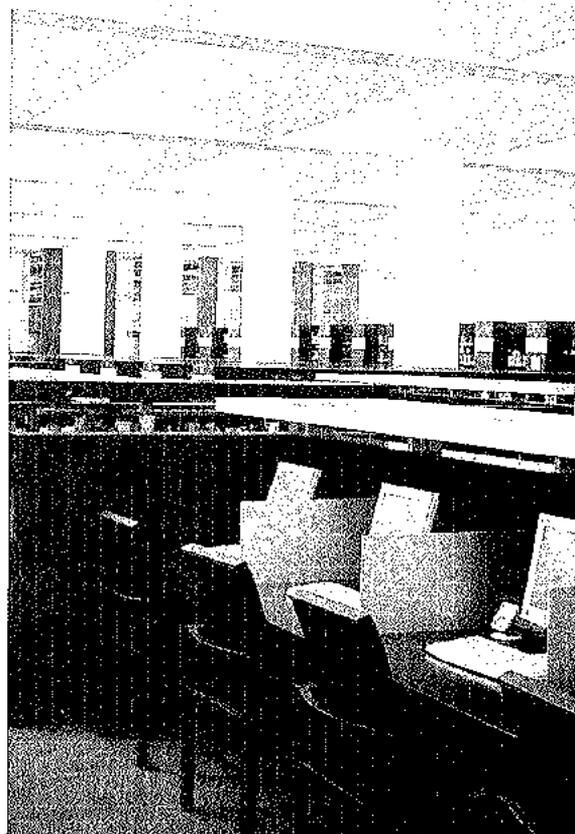
Arup의 경우, 파사드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전문성이 높은 분야는 독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최초에는 수 명의 전문가로 시작되어 일정 정도의 수가 모이면 하나의 독립된 팀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1989년 런던과 시드니 사무소에서 독립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런던30명, 시드니28명, 홍콩14명 등 총 100명의 규모로 성장해 있다. 2003년부터는 동경의 사무소에도 독립된 팀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들 팀은 사무소간의 교류가 활발하여 스텝의 임대나 연수 디자인 리뷰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사무실이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무실별로 지역의 특수성이나 엔지니어의 배경과 개성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은 유리 등 재료와 그 디테일의 디자인, 오스트리아는 시뮬레이션, 홍콩은 제작·시공성의 검토나 국제조달의 노우하우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파사드 엔지니어링의 사업부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신축」, 「기존건물의 개보수」, 「메이커에 대한 서포트」가 그것인데, 「신축」의 경우는 건축가와 디벨로퍼 등이 대상으로, 커튼월의 설계, 리스크 매니지먼트, 재료에 관한 어드바이스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성능·품질, 코스트 스케줄에 관한 것이다. 「메이커에 대한 서포트」는 메이커의 의뢰를 받아 시스템의 개발을 행하는 등 기술적인 서포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건물의 개보수」의 영역은 파사드의 개수·리뉴얼, 역사적 건물의 파사드에 대한 개수·리뉴얼 등이 포함된다. 최근 들어 건물을 헐지 않고 개수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물 파사드의 기초를 통해 자산가치와 건물의 성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건물의 구성 요소 중 외피(파사드)만큼 그 성능이 다면적으로 요구되고 즉각 검증되는 것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외피의 디자인은 애초 계획시의 성능이 그대로 구현되는가로 평가되는 영역인 것이다. 건물 외피의 디자인은 심미적, 기능적 요구가 집약된 것이며 그 성능의 평가가 혹독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며, 그만큼 전문적 기술인 집단의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번역/강상훈)



국립국회도서관 민서민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전북대학교병원 진료지원센터 / 76

일산광성교회성전 / 78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 제2발전소 사무동 / 84

종박물관 / 86

전북대학교병원 진료지원센터

Clinical Services Center,
Chonbuk National Univ. Hospital

▶ 당선작 / (주)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상림 · 김태철)

대지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번지 전북대학교 병원 내
용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136,626.00㎡
건축면적	2,844.00㎡
연면적	13,136.50㎡
건폐율	14.93%
용적률	48.49%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 마감	내후성강판, THK12 복층유리, AL, SHEET, 아연도강판, 외부용 목재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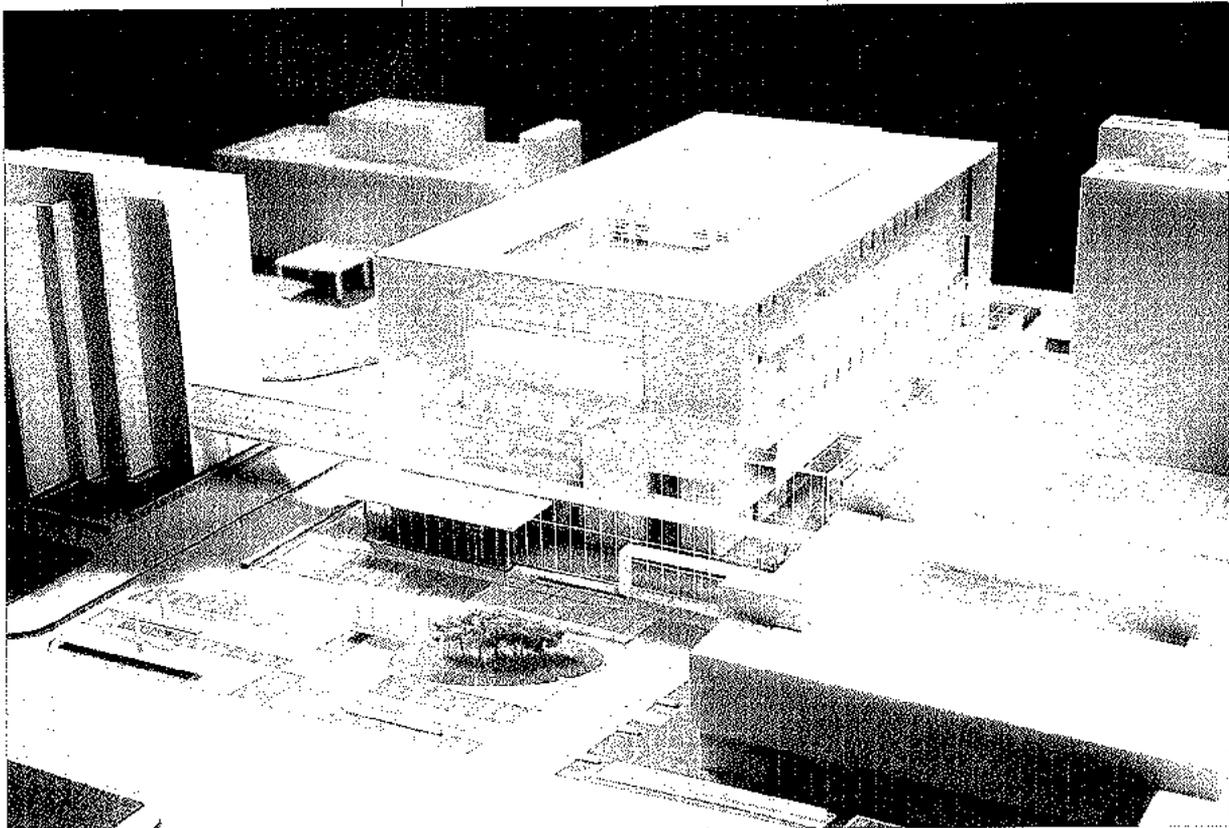
설계팀 금창준, 김학주, 박 열, 양재찬, 김경록, 김진철, 차하나, 김준모

'컨텍스트-환경'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번 프로젝트는 3가지의 중요한 과제가 주어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첫째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서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병원건물로서는 특이하게도 수술실을 위주로 구성된 건물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 기존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과 그 기존의 두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전북대학교병원의 마스터플랜

이 곳의 기존 건축물의 배치는 별로 특이한 점은 없으나 녹지가 뒤의 건지산을 끼고 전면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친환경적, 생태적인 조경벨트로 조성되어있다. 따라서 전체 배치상의 건지산으로부터 시작된 그 조경의 흐름을 이어보려 노력하였다. 또, 요즘 병원건축의 경향에서 건물과 전면공원과의 기능을 연계하는 추세를 볼 때



이러한 전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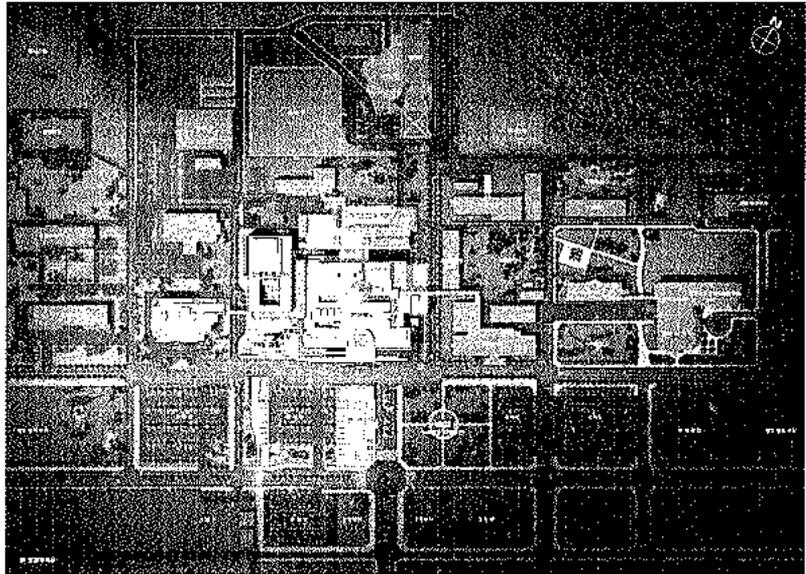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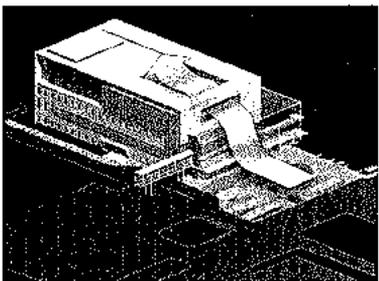
2. 수술실로 대표되는 건축물

수술실은 병원에 있어서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핵심적 코어로서 병원시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병원건물 내부에 깊숙이 위치하여 밖에서는 가려져 있는 상황이나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밖으로 나와 여기 전북대학 병원본관건물이후의 병원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내부의 핵심적인 시설이 밖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그 형태는 믿음이 갈 수 있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이미지가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내부 기능적으로는 본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본관의 호스피탈 스트릿을 연장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술실 블록의 평면계획은 운영상 융통성 있도록 했다. 또 조경요소가 단순히 건물 외부에서 뿐만 아니고 건물내부와 옥상으로 끌어들이 이 진료센터가 들어서면서 손상된 조경을 조금이나마 되살려 마스터플랜상의 조경벨트를 개념적으로 연장시켜보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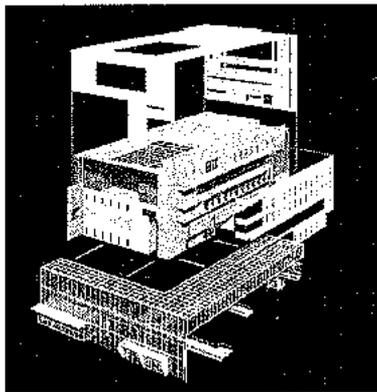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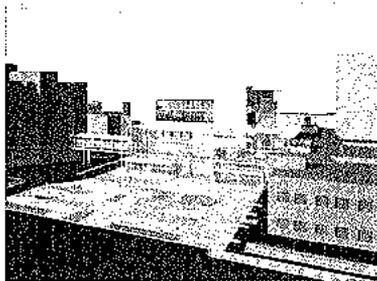
3. 기존의 두 건물 사이에 다리를 포함한 대지

기존 양쪽의 복잡한 형태나 기능의 건축물 사이에서 이런 주변의 건물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단순한 매스로 구성하고 본관과의 빈번하고 긴밀한 연결을 고려하여 본관과의 사이를 아트리움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본관건물기능의 확장성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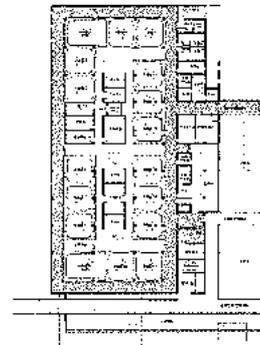
마찬가지로 응급센터와의 연결된 다리도 역시 아트리움속으로 스며들어 여기 건물의 한 요소로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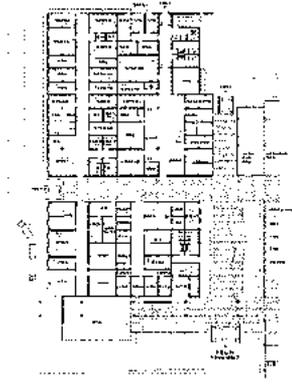
배치도



우측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일산광성교회성전

kwangseong Church

▶ 당선작 / (주)하나종합건축사
사무소(김무연·김대식)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316-1번지외 7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문화집회시설(교회)
대지면적	6,627㎡
건축면적	1,322㎡
연면적	9,609㎡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 마감	세라믹판넬+복층유리
설계팀	이용진, 정승용, 박은정, 고재욱, 홍성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성전건축의 한 부분인 교회 건축설계 역할을 감당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떤 모습의 교회 모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형태이나 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 건물의 형태는 그 교회의 첫인상이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기능까지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성전이 건축되어질 대지는 아파트 단지를 뒤에 병풍처럼 두르고 앞으로는 30m도로가 흐르는 강물같이 휘어 굽어지는 듯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강물을 향해 또는 세상의 모두를 포용 하듯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전체 건물의 모양은 커다란 구원의 방주 형상을 가지면서 지붕은 한송이 백합처럼, 또는 떠오르는 성령의 불꽃처럼 아니,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별처럼, 십자가의 형상처럼..... 전체적인 건물형태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교회적인 요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절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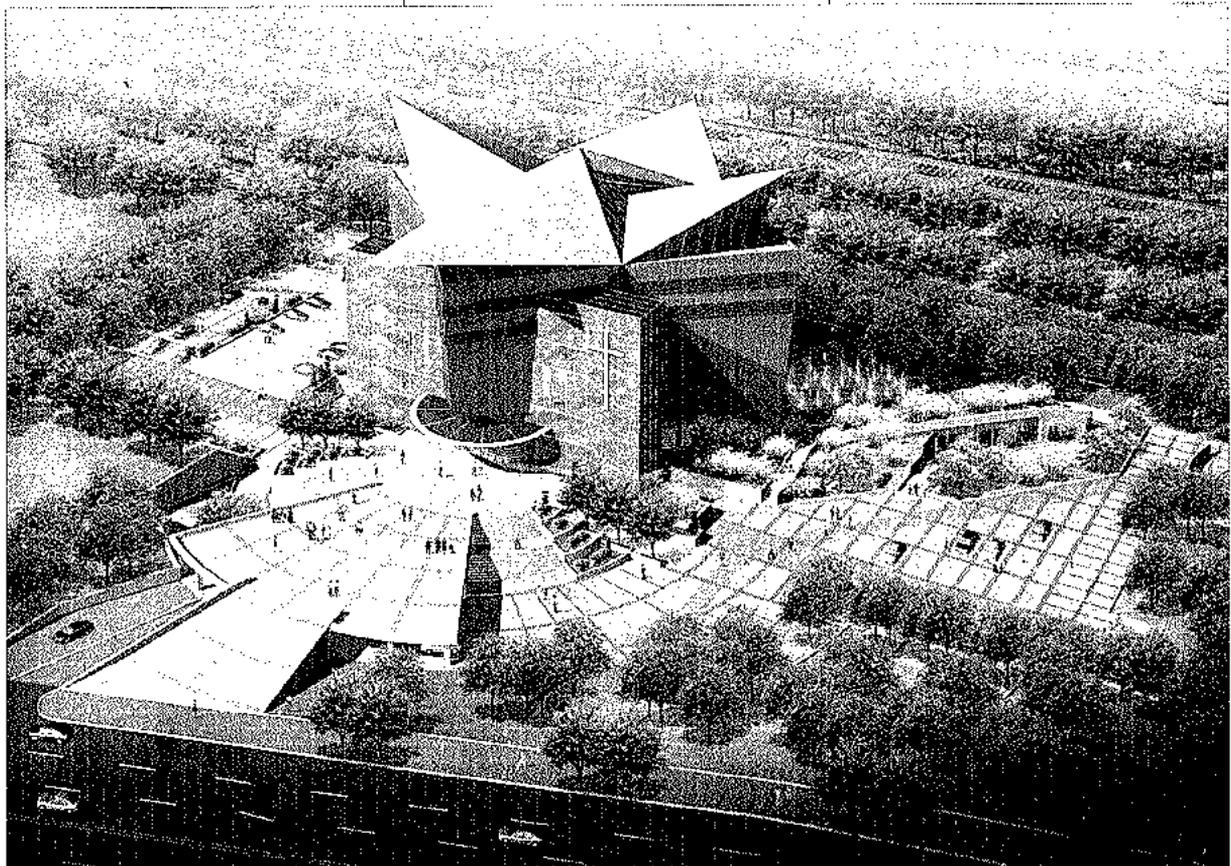
건물의 주된 건물인 성전은 지상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2층에 배치하고 사각형의 컴팩트한 기능요소를 말뚝을 전하시는 강대로 집중케하는 회중석 배치에 반영하여 미룸모 꼴의 본당 평면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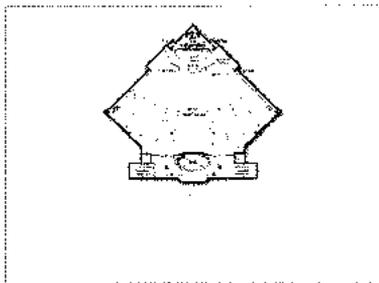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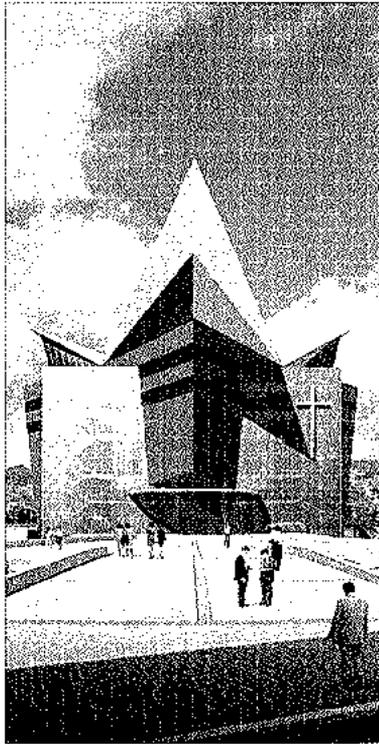
정면은 성삼위를 상징하듯 지붕선을 강조하였으며 중앙에 놓인 지붕에 양측 균형을 갖춘 작은 두 개의 지붕은 옛 교회양식인 고딕스타일을 상징적으로 처리하여 현대적 기법으로 구성되었다.

현재는 전체 단지를 가로지르는 구거에 의해 제약 받는 A,B 단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차 폐도 및 편입의 대상으로 설정됨으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배치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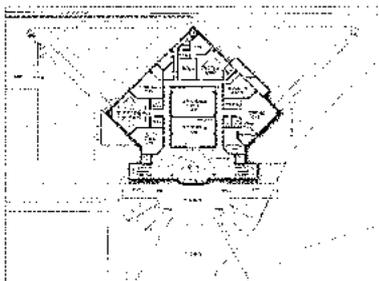
전면도로와 최대 약 3M 높이차이를 지하층 구성방법으로 활용하였는데 철도방향으로 열려있는 역삼각형 구성은 지하층의 불리한 조건인 채광과 환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그와는 반대로 접근성의 용이함과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편의성을 동시에 아점으로 갖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문화시설 등 편의 및 친교시설을 집중 배치하였다. 또한 그 구성을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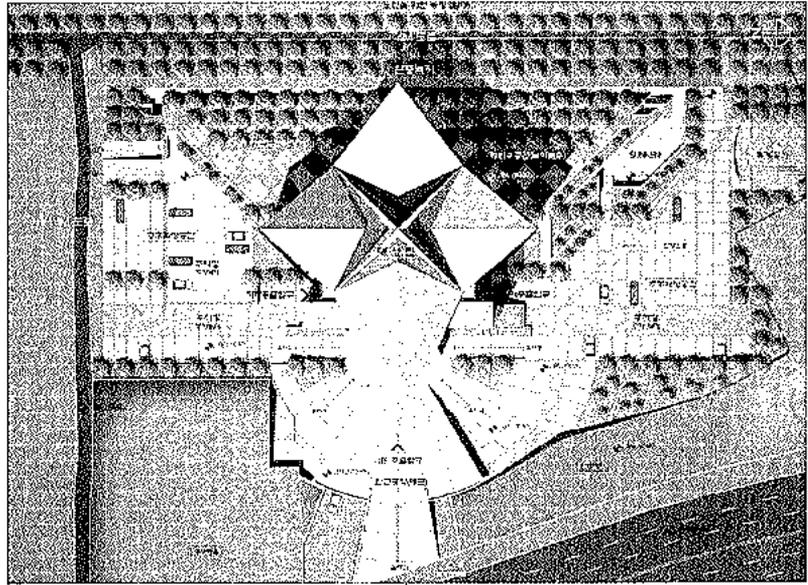
순화 시킴으로서 지하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구분하기 위하여 지하층 바닥과 거의 같은 높이에 옥외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하층으로의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수 있으며 보행자를 1층 공간으로 직접 접근시키기 위하여 30M 도로 전면에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보행통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친교 광장의 기능까지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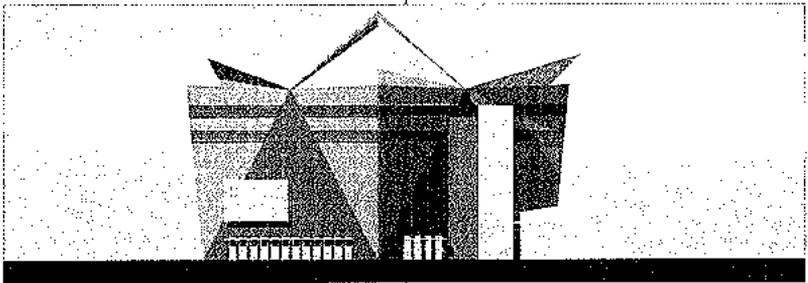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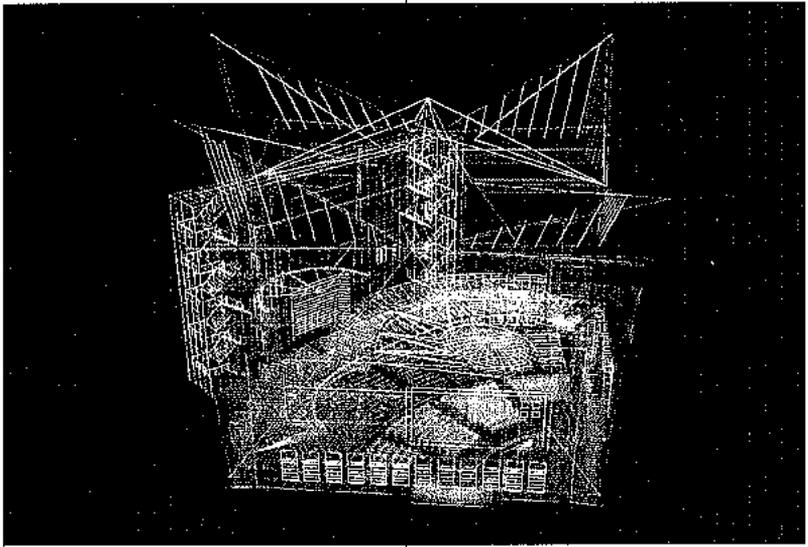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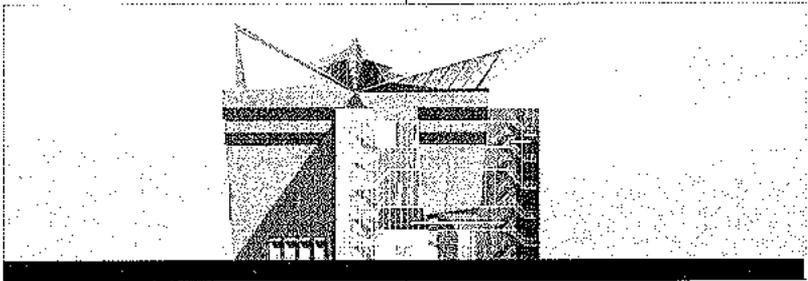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좌측면도



정측면도

▶ 가작 / 건축포럼건축사사무소
(박창근)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316-1외 7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대지면적	7,278㎡
건축면적	1,124㎡
연면적	10,661㎡
건폐율	17.2%
용적률	9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주차대수	127대(장애인 주차 6대 포함)
외부미감	반투명유리, 베이스패널루버, 라 임스톤
설비개요	공조, 헤파일 냉난방형식, 온돌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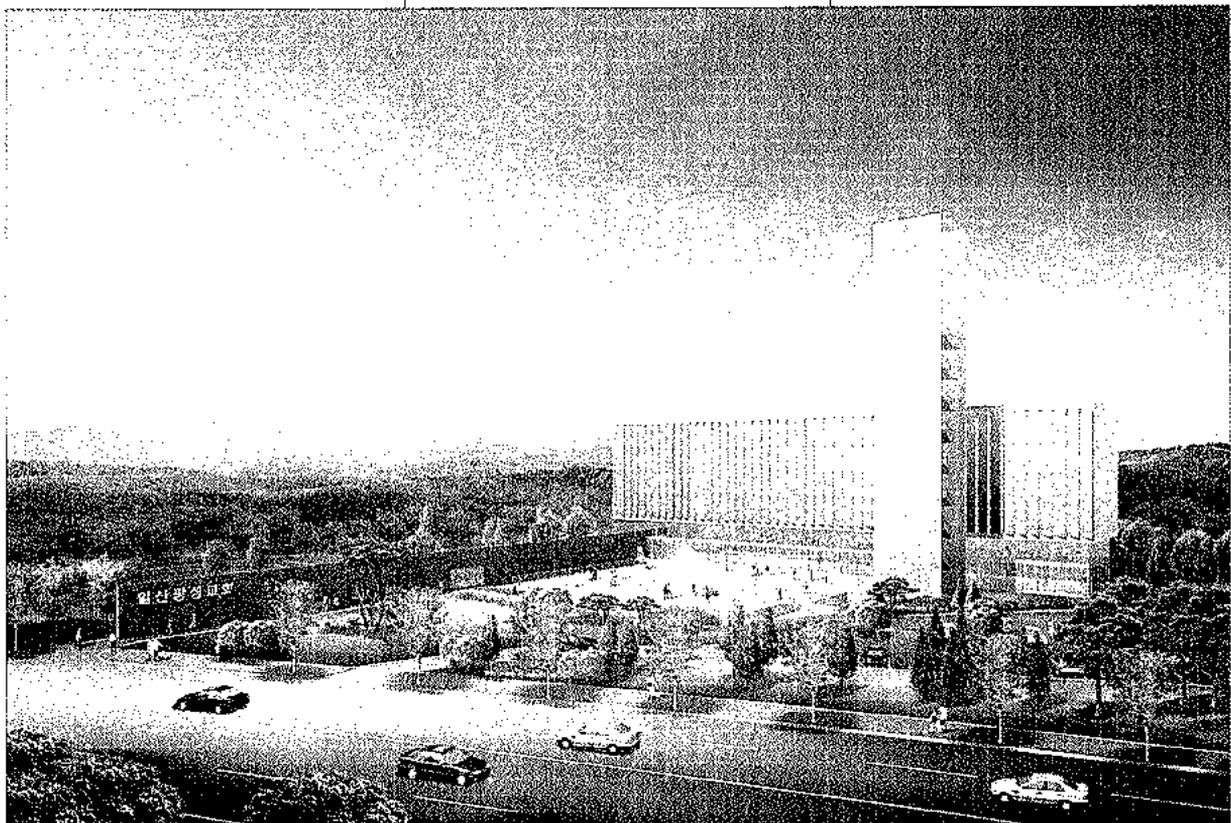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물 중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St. Mary's Cathedral(Nervi설계)이

다. 높이 솟아오른 내부공간과 이를 감싼 3차원 곡면을 구성하는 삼각형 격자로 이루어진 셸 구조는 엄숙한 신의 공간을 창조한 중세 성당의 건축미와 삼백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맞닿아있다. 현재의 교회는 그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고 예배공간의 기능에 친교 및 교육공간의 의미가 많이 부가되었다. 교회는 엄숙한 공간에서 친근한 공간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른 건축적인 변화로서 예배당 내부로 밝은 채광이 선호되고 있으며, 예배당 평면형식이 길이 방향의 장방형에서 정방형, 혹은 길이와 직교방향의 장방형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다. 일산광성교회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인 관계로 전체규모의 절반 정도가 지하로 묻혀야하는 상황이다. 전체규모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교육실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필수적이므로 지하에 예배당을 위치시키기로 결정하고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주제(Key Word)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여유로운 공원 속의 교회, 둘째는 대로변에서 보이는 교회로서의 상징성, 셋째로 속세로부터 교회로 다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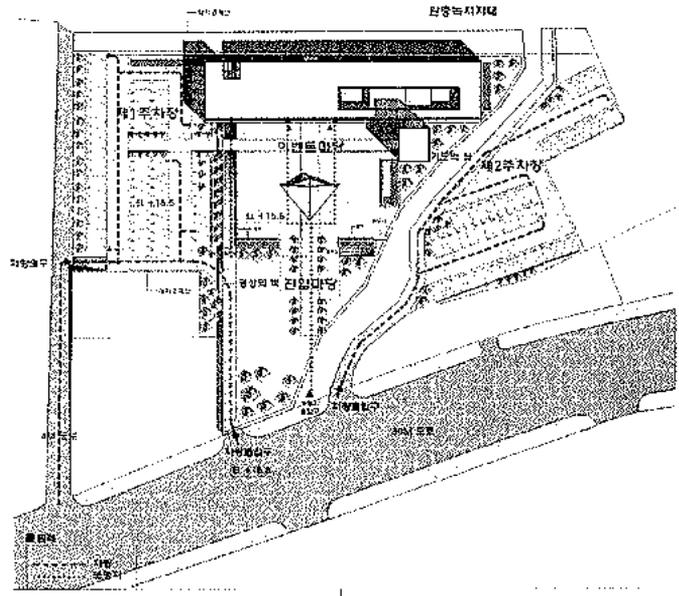
는 이동의 체험이다.

지상부의 교육실 매스를 'ㅡ'자로 하여 철도쪽의 대지경계로 밀착시켜서 최대한의 외부 미당을 확보하고 건물이 미당을 철도소음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 미당에서는 예배 후 각종행사가 공원과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본 교회의 구성요소는 길이 70M의 건물 본체와 주계단으로 이용되는 높이 50M의 기도의 탑과 대로변으로부터 지하 예배당으로 인도해주는 경사로와 함께 하는 길이 100M의 명상의 벽이다. 이 요소들은 그 비건축적인 스케일과 단순성이 강조된 각각의 수평성과 수직성의 대조로 인해서 교회로서의 상징성을 얻게 해준다.

건물 본체에는 정면에 45도 방향으로 수직 루버를 설치하여 서향의 태양광을 조절하는 동시에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벽면으로 또는 유리면으로 변화하는 입면을 가지도록 한다. 반투명 유리로 된 기도의 탑은 낮에는 은은히 빛나는 반투명 탑으로, 또 밤에는 탑 내부의 조명으로 인해서 '빛나는 거대한 기둥'으로 보인다. 지하 예배당으로의 주 진입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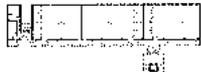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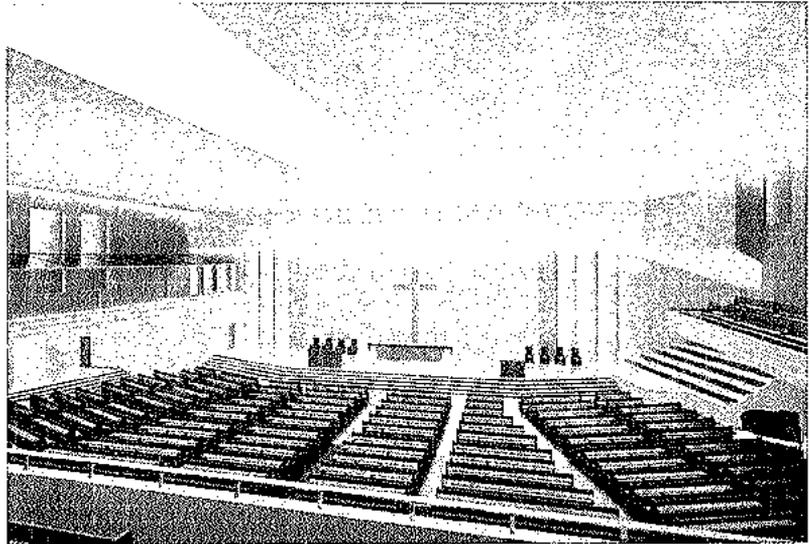


100M길이의 경사로에 설치된 '명상의 벽'은 경사도가 내려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진다. 지하 1층인 발코니층에 도달하면 이 경사로는 내부로 들어와 아트리움을 관통하면서 예배당으로 나아간다. 이 여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며 신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준비를 한다. 주차장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명상의 벽과 직교하는 보행로를 따라가다가 벽의 작은 구멍을 지나면서 종교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 지하 예배당은 강대상 방향으로 단변이 되는 장방형으로 하고 'ㄷ' 자형의 발코니를 두어서 무대에서 회중석까지의 거리를 최대 25M 이내로 하여 예배 시에 참여감을 좋게 하였다. 상부마당의 중심 역할을 하는 피라밋과 선관을 통하여 자연 채광이 되며, 천장은 무수한 별(다운라이트) 사이로 한 줄기의 길이 뻗어나가다가 밝은 빛을 쏟아내는 피라밋으로 증착되는 모습을 하고 있다. 교육실에서는 가변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폭 12M, 길이 60M의 장방형공간이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로 분할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 (글 : 박창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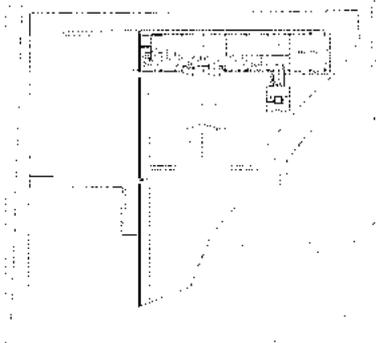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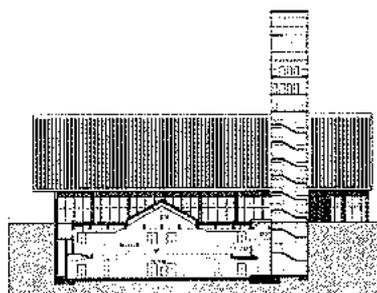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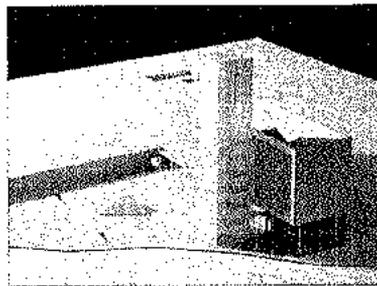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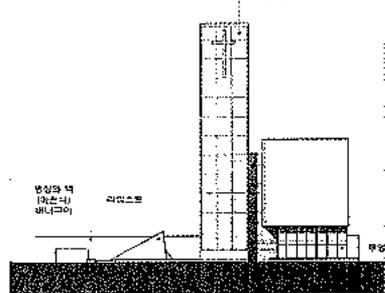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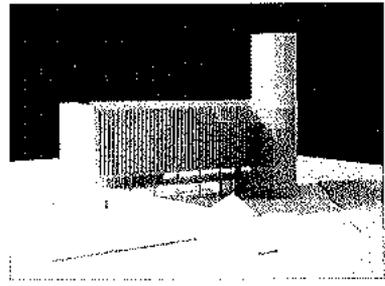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단면도



우측면도

▶ 가작 / AI건축사사무소(함안선)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316-1의 7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대지면적	8,964㎡
건축면적	1,692.43㎡
연면적	11,579.62㎡
건폐율	18.88% (법정: 20%)
용적률	56.65% (법정: 100%)
용도	종교시설
구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A동-지하 3층, 지상 8층 B동-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대수	148대 (장애인주차 4대포함) (법정주차대수: 시설면적 100m 당 1대 11,579.62/100 = 116대, 장애인용 법정: 116X0.03 = 3.48대)
외부 마감	유리, 메탈패널, 노출콘크리트, 알미늄패널, 건식조적

개요

· 지역의 랜드마크

본 부지는 310번 국도(30m)와 경의선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국도 및 철로 이용자에게 강한 인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층수 및 고도제한으로 미개발된 주변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가 되도록 함.

· 종교적 · 미래지향적 이미지

- 종교적 의미가 강하고, 최첨단 공법을 이용해야 하는 "일" 형태를 형태요소로 도입하여 상징성 추구

- 유리, 메탈, 철골프레임 등 미래지향적 재료와 조적, 노출콘크리트 등 전통적 재료를 혼합 사용함으로써 전통과 미래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킴

· 교인 및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인근주민들의 문화시설로도 이용가능한 기능 수용 (다목적 문화공간, 노인복지실, 인터넷카페, 체력단련실 등)

- 주일 뿐 아니라 주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능 배치 및 동선계획

· 다양한 공간감

- 본당, 중예배실, 로비 등의 예배공간이 있는 지하 부분은 높은 천정과, 자연광 도입 등으로 엄숙하고 종교적인 분위기 연출

- 사무실, 교육실, 레스토랑, 다목적 문화공간 등이 위치하는 지상층에서는 인간친화적인 공간 구성

· 자연과의 조화

- 옥상정원 및 옥상공원장을 두어, 자연적 요소를 건물내에 도입

- 야외공연장, 잔디공원, 산책로 등의 조경요소 도입

· 합리적 구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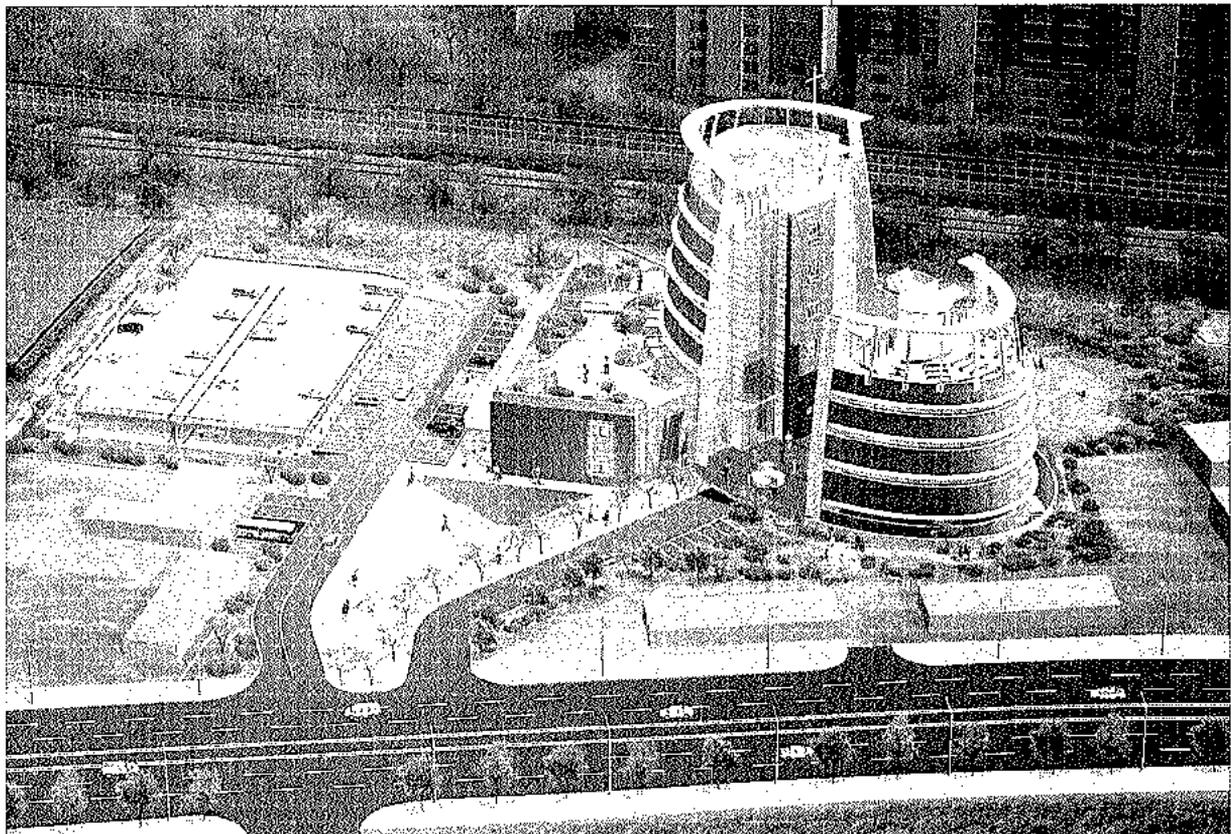
- 경간 45M의 본당 지붕 트러스를 지상에 설치하여 굴토 깊이를 절약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본당 천정과 확보

- 대경간 구조를 사용해 내부공간의 융통성 확보

조형개념

1. 알의 의미

- 상징성: 생명, 근원, 일체성, 전체성, holistic composition (통일적 구성)



-기능성: 일촉점 공간(집중성), 얇은 skin(외피)

2. CUT & SPLIT (분절)

-상징성: 천상과 지상, 경계성 (구별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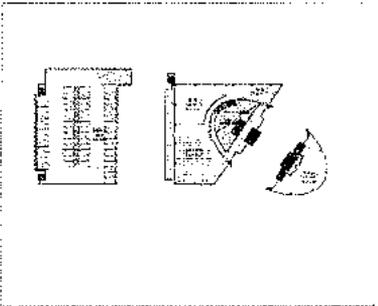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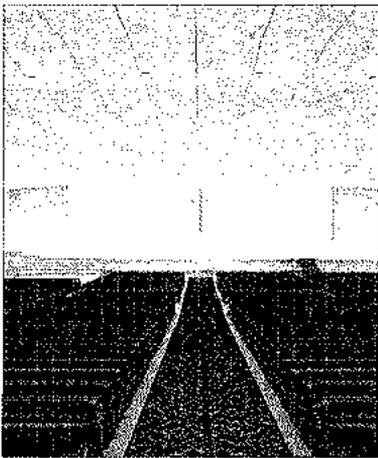
-기능성: 대지조건의 수용, 매스의 분절

3. JUXTAPOSITION (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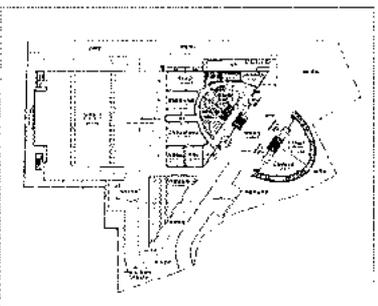
-상징성: 신과 인간, 회귀에의 기원, 변증법적 균형

-기능성: 기능분담, 대지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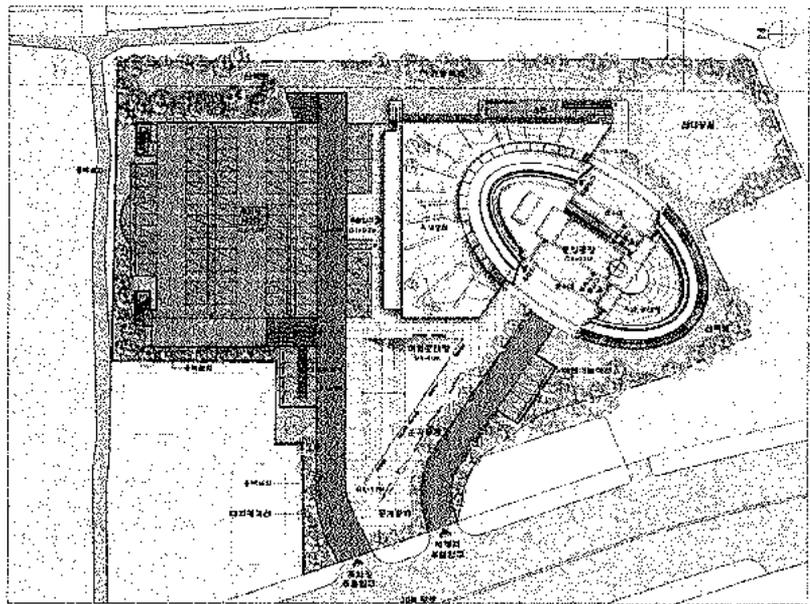
본디 하나이었으나 분절된 기하학적 형태는 원래 형태로의 강한 회귀성을 암시한다. 신의 창조물 중 가장 완벽한 건축인 알의 형태로부터 분절된 이 건물 매스들은 하나됨에 대한 열망, 완전함과 소외의 경계성 등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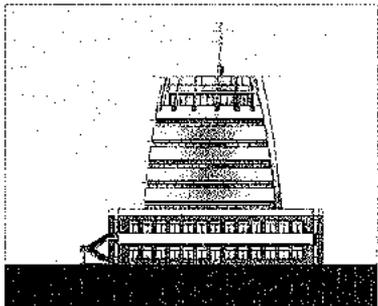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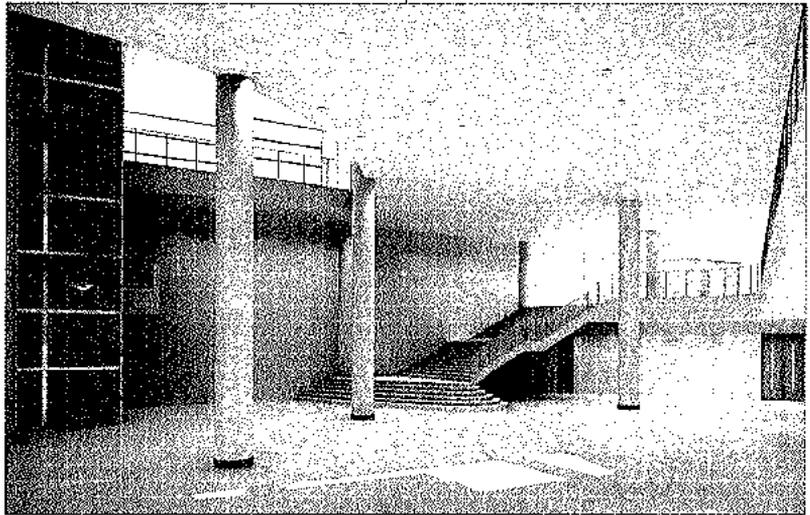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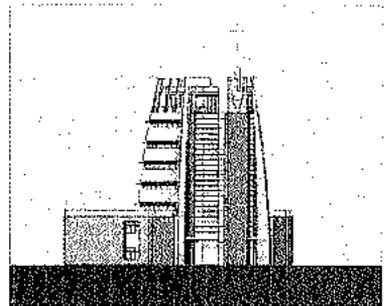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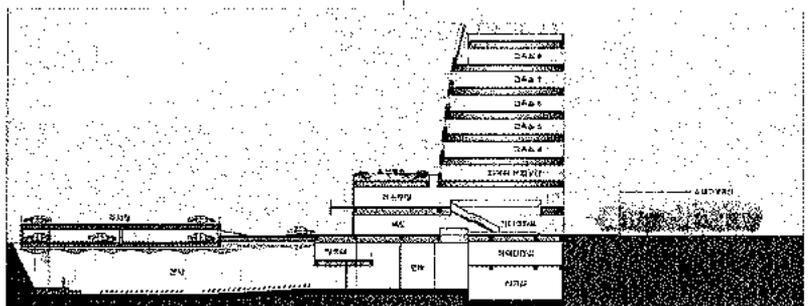
대지도



북측면도



동측면도



입면도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 제2발전소 사무동

Korea Hydro & Nuclear Power

▶ 당선작 / (주)에이·포스트종합 건축사사무소(박대원)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81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부지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2,310㎡
건축면적	1,594.51㎡
연면적	5,930.39㎡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	80대
주요외장	THK30 화강석, THK18 컬러복층유리, THK4 알루미늄합판넬

설계팀 총괄: 김용기
설계: 김희옥, 오재성, 방금순, 배연주

계획의 목표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상징성과 한국수력 원자력(주)의 청정 이미지에 부합되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사무공간 조성 및 기존의 노후화된 제2발전소 사무실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상주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 개선과 능률적 업무 공간을 제공하며, 원자력발전소의 상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변 CONTEXT를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부지 맥락과의 조화
- 기존 건축물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동선 계획 및 MASS계획
보행축 형성
- 전면도로에 수직인 보행축과 전면도로와 수평인 보행축을 교차시켜 동선길이를

를 짧게 계획

OPEN SPACE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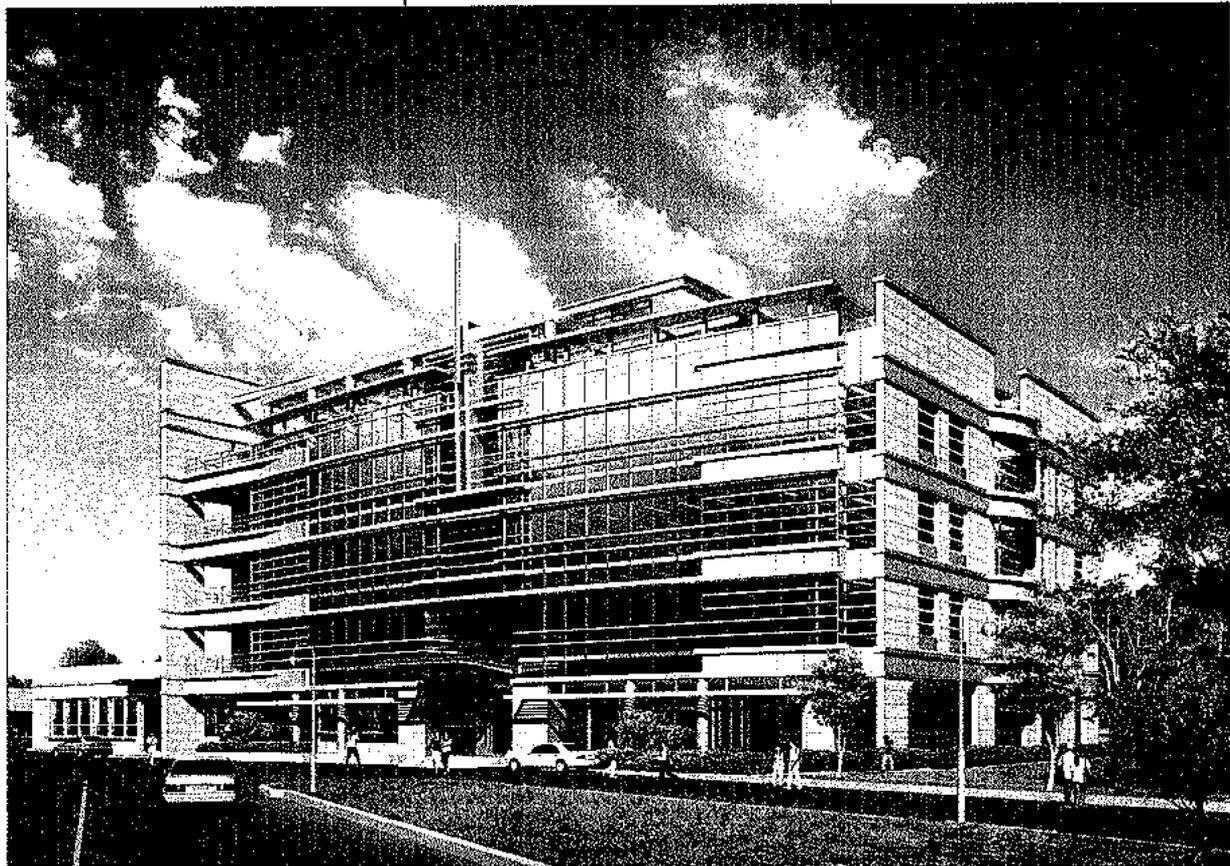
- 남측면으로 SUNKEN을 계획하여 지하공간의 채광에 대한 고려와 직원 휴게 공간의 조성
기존 동선축의 존중
- 기존의 작업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면부 및 우측의 대지경계에서 이격

평면계획의 기본 개념

- 시설의 기능별 ZONNING뿐만 아니라, 이용자 GROUP별 특성을 고려한 ZONNING을 통하여 각 그룹간의 독립성과 기능적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
- 공간의 용도와 특성에 따른 ZONNING
- 층별 시설군 분리로 업무효율 극대화
- 평면의 가변성을 추구로 유연한 대안 제시
- 중심부에 아트리움의 설치로 복도부분의 직·간접채광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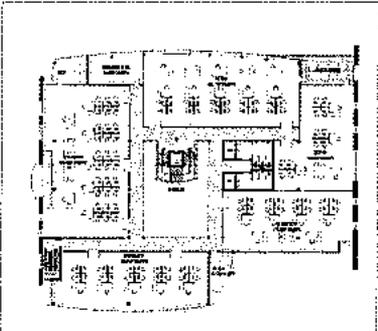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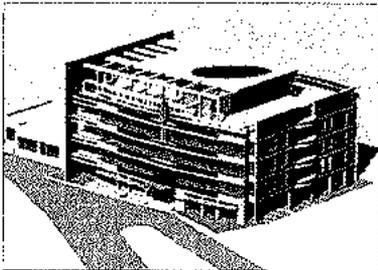
입면계획의 기본 개념

- 정연한 형태적 규칙성과 대칭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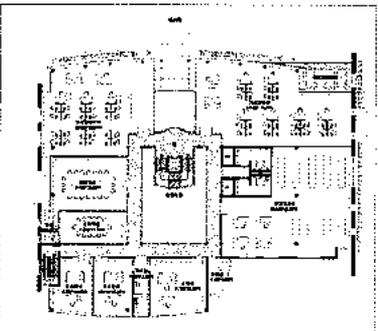


하여 안정적 입면 구성

- HUMAN SCALE에 입각한 수평적 요소들 사용함으로써 리듬감 부여
- MODULE계획에 의한 동일치수의 반복 사용으로 합리적 시공계획과 경제적 입면 형성
- 금속커튼월의 사용으로 하이테크한 한수원의 이미지를 부여함과 기존의 회강석에 의존하는 권공서건물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친근한 이미지와 쾌적한 사무공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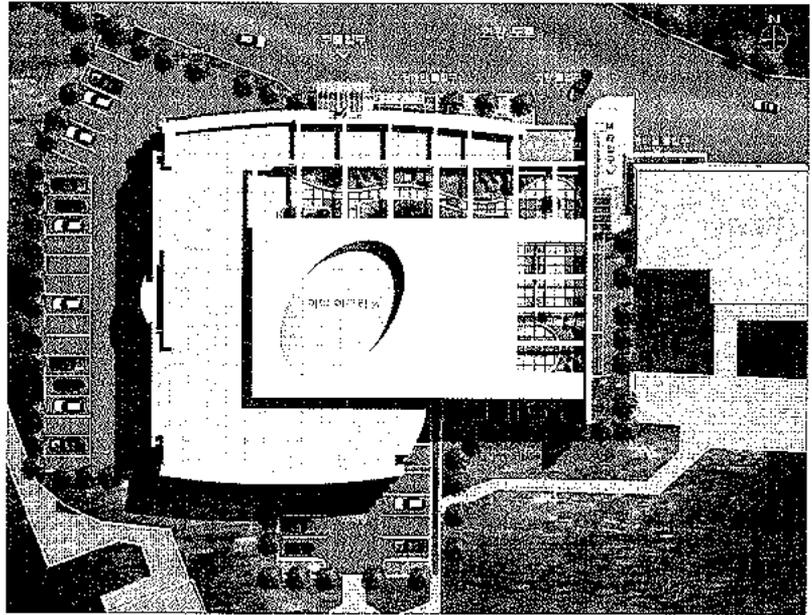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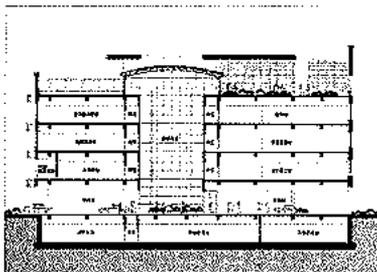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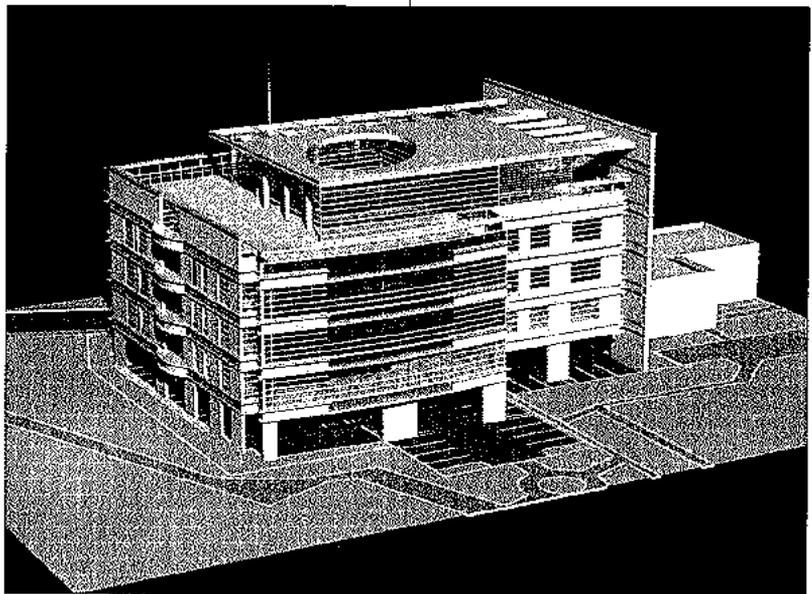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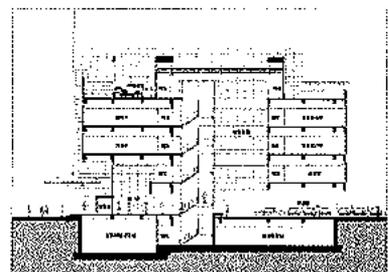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배치도



단면도(동서축)



단면도(남북축)



정면도



서측면도

종박물관

Korean bell museum

▶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예담
(김규석)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광범) + (주)시공테크(박기석)

대지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역사테마공원내)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50,000㎡ (계획대상부지 : 10,382.83㎡)
건축면적	1,410.43㎡
연면적	2,857.97㎡
건폐율	2.82%
용적률	5.16%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설계팀 라국진, 노시훈(총괄), 정지숙,
김순희, 하상욱, 윤효섭, 장인경,
김만상

설계개요

- 한국법종의 연구 및 학습의 메카적 역할
종의 역사, 주조 기술, 철의 제련 등에
대한 체계적 전시, 연구, 학습기능 담당
종의 기능, 역할(정보의 전달, 소리의
아름다움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
- 지역적 특성 및 역사성에 부합하는 전
통성 부여
역사적으로 철 생산지인 진천 석정리와
인접도시인 청주의 철당간, 고인쇄박물
관의 직지 등 철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
유산과의 연계
- 체험학습, 생애학습의 장으로써의 역할
부여
한국법종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한 한국
민의 체험학습의 장으로써의 역할 부여

평면개념

- 종모양을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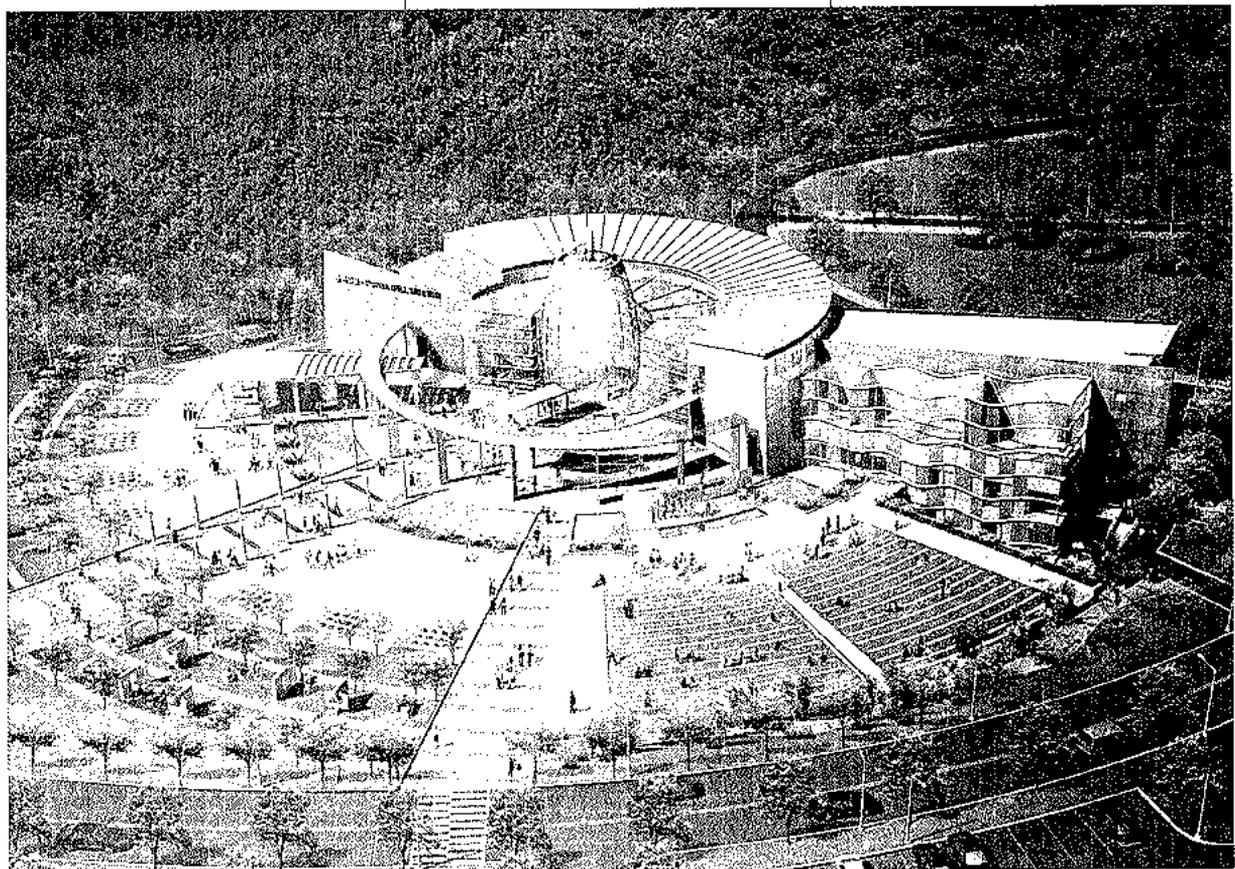
- 주변 곡선형 도로 및 부지 형태에의
순응
- 내·외부 공간 사이에 종 모양의 전이
공간을 두어 종 내부를 간접 체험하는
신비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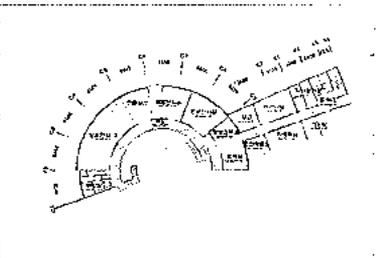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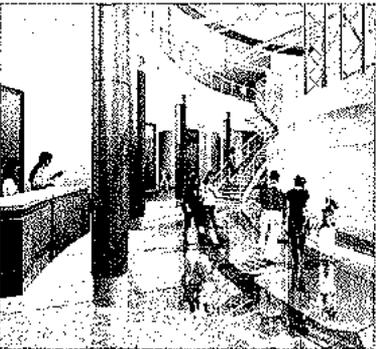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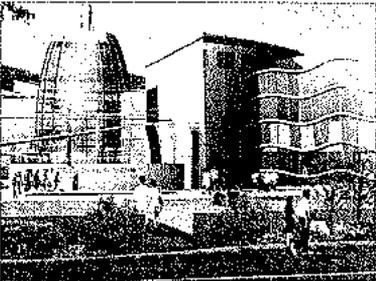
입면개념

- 종의 기능인 정보의 전달, 소리의 울려
퍼짐 등을 입면형태에 도입
- 진입부에 투명유리 및 철제 후레임으
로 종의 모습을 형상화(하이테크적인
이미지)
- 지붕은 전통 기와의 모습을 현대적으
로 형상화(한국 고유의 전통건축이미
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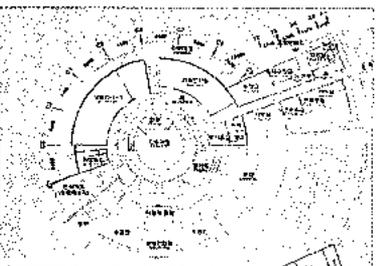
단면개념

- 진입부에 종의 형상은 유리와 철제 후
레임으로 디자인하여 통풍, 채광이 가
능하도록 계획
- 중앙홀(반원형)부분은 1, 2층 open하
여 공간감, 개방감을 주었으며, 자연채
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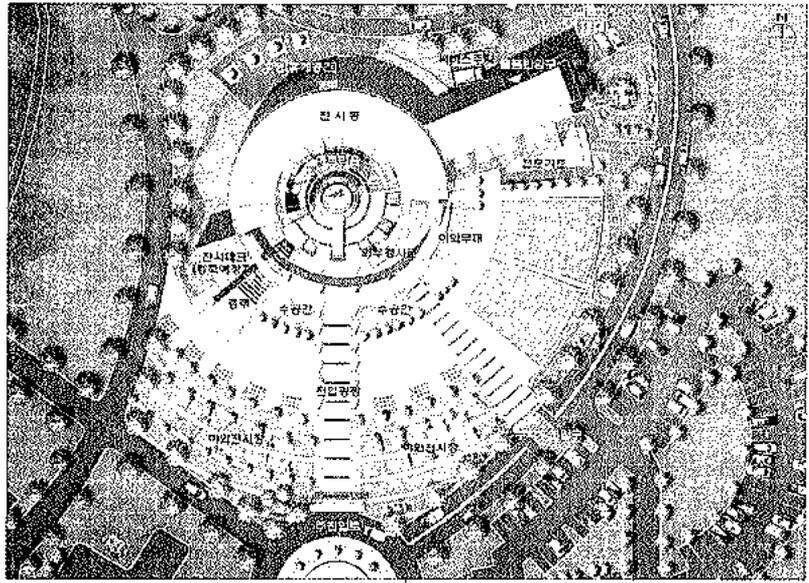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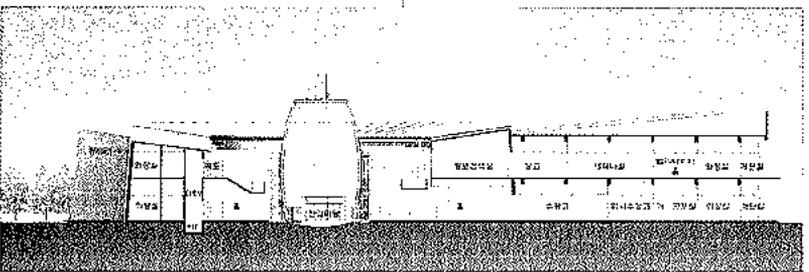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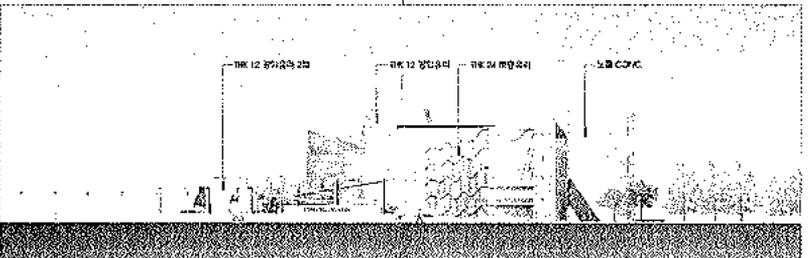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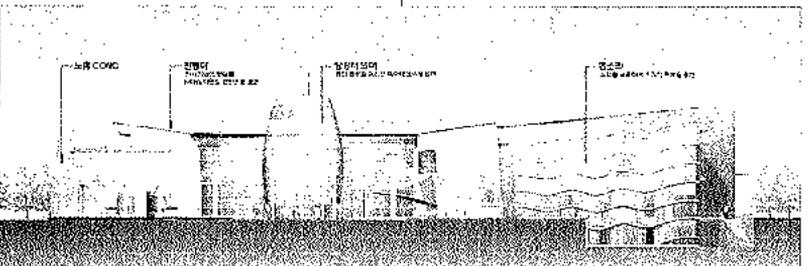
배치도



단면도



동쪽면도



남쪽면도

건교부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과 건축설계표준계약서를 지난 1월 24일 개정, 고시했다.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수행 및 협의검토 : 2002년 4~5월
- 건설교통부 건의 : 2002년 6월
- 건교부 검토 : 2002년 7~12월(대가기준이 개정 고시되고, 관련규정의 개정검토에 따라 검토기간이 연장되었음)
- 고시 : 2003년 1월 24일

◇ 설계도서작성기준에서는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건축물의 질 향상으로 인해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도 세분화되고 있고, 건축법 및 건축관련법령의 개정과 '건축사업무 및 대가기준'이 공고됨에 따라 설계도서작성 세부내용에 이를 반영했다.

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 주요골자

- ◇ 건축법령 및 관련법이 개정되어 건축사무소 "등록"이 "건축사업무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정리
- ◇ 건축사업무의 범위 및 대가기준과 동일하게 설계의 단계별 구분을 "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관리업무"로 구분하고, 용어의 정의를 수정 보완
-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대한 조항정리와 표준화 설계를 위해 별도로 고시한 공공건축물과 대규모산업시설에 대한 적용규정을 신설 보완
- ◇ 단계별 설계도서작성기준을 "건축사업무 및 대가기준"에 맞춰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정하고 업무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설계도서작성 내용을 보강

건축설계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예정)

- ◇ 이와함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서는 건축사업이 개정내용과 지난 2002년 6월 5일 제정 공고된 '건축시공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설계도서작성의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건축설계표준계약서 개정 주요골자

- ◇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과 "설계도서작성기준"에서 업무의 단계별 구분에 따라 용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 용역비 산출과 지불시기를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라 조정함
- ◇ 건축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사항 중 "금융거래정지", "부도", "가압류", "가처분" 등 업무 계속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 삭제
- ◇ 설계도서의 보관에 대한 건축사업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 삭제

건축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1호, 2003년 1월 24일)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사업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사양서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4.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5.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

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장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6.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7.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지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3.4. 공공건축물·대규모산업시설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5. 설계도서의 제출

5.1.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중간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2)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5.2.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표4의2)에서 정하는 『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에 제출한다.

7. 재료의 표기

7.1.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8. 공사시방서의 작성

8.1. 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8.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0.1.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 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10.2.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 개축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0.3.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에 필요한 세

부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1.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살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1.3. 깊이 10미터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상의 옹벽·흙막이벽 설치와 그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수량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15. 적용의 예외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

○ : 기본업무

빈칸 : 추가업무(계약에 따른 업무)

◇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도서작성구분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계약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건	
	개략배치도	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중영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현장조사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사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연담, 행태조사, 회의	
설계지침서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프로젝트공정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기준유사건물조사비교	심의·허가등 설계공정 및 기타공정		
	규모, 층수, 용도비교 미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구분
공사비 계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공사비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법규검토	설계구상안	○
	설계개요	○
건축계획서	배치계획	
	평면계획	
	일면계획	
	단면계획	
	외장재료 비교 분석	
	Sketch 또는 Study Model	
모형	배치도	○
	대지 중·화단면도	○
건축 도면	각층 평면도	○
	일면도(2면 이상) 단면도(중·화단면도)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구조계획개요	
구조 계획서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기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기계설비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심의 도서	개략 공사비 추정	
	심의 대상인 경우	
전기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추정 부하 산정	
	개략 예산 검토	
토목 계획서	심의 대상인 경우	
	개략 흙막이 계획서	
조경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우·우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당채	예산공사비 계산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당채	심지 계획도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당채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건축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건축물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등)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평·일·단면 계획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도면 목록표	광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자물의 정보 수록		
구체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도면	실내재료미감표	비단, 벽, 천정 등 실내미감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형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주차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첫수, 외부미감재료	○
	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중·횡단면도)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구분		
상세 도	수직 상세도	코어 상세도	코어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단면상세도		
		주차장사로 평·단면상세도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입·단면도		
	부분 상세도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 평면도	
	창호도	창호 잡질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질물	
		정화조	정화조 평면·단면도	○
	기 타	차용·방음·방진		○
무대·조명				
전시·미술장식품				
분수				
주방 음향				

나. 구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구조 계산서		
도면	설계 설명서		
	기초일람표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카헤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계단베근 일람표		
집배근 일람표			
주상도			

다. 기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공사비 계산서	각 광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서의 내용을 발전 확정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실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총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도면	도면 목록표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DJCT설비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DJCT설비 평면도		
	위생 설비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도시가스 인입확인 기구 상세도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기구의 선정	○		

라. 전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공사비 계산서	광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서의 내용을 발전 확정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도면 목록표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 계통도		○	
평면도	조명 평면도			
	소방 평면도	○		
상세도	조명기구 선정			

마. 토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중·횡 단면도		○
	도면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보도블럭 평면도		
		담장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리 평·중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바. 조경

종 류	내 용	도서작성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도면	도면 목록표		
	조경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식재평면도			
단면도			

◇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속 직	도서평균품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	
	설계개요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일반 도면	표지		○	
	도면목록표		○	
	안내도		○	
	구역도		○	
	지적도		○	
	면적산출표		○	
	대지 중 횡단면도		○	
	배치도	1/100이상	○	
	주차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단면도(중·횡단면도 등)	1/100이상	○		
심내벽 및 반자의 미감도	1/100이상	○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 · 단면상세도	1/5~1/50	○
		승강기 샤프트 평 · 단면상세도	1/5~1/50	
		주차 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1/5~1/50	
		주차 리프트 평 · 단면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주출입구부분 평, 입, 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 입, 단면상세도	1/5~1/50	
		삿다 상세도	1/5~1/50	
		핏트 상세도	1/5~1/50	
		발코니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 · 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창호도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창호 잠질물 목록	1/5~1/50		
	창호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도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선 설치 상세도	1/5~1/50		
내부 상세도	로비벽체단면도	1/5~1/50		
	로비 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살내부위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살내미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건축용 평 · 단면도	1/5~1/100		
기타	정확조	각종 살비도 계산서		
	특수분야	소음 · 방진, 무대 · 조명, 주방,		
	도면	음향, 전선, 미술장식품 등		

나. 구조

종 류		속 직	도서평균품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시방서		○		
	설계설명서				
	도면목록표		○		
	구조 평면도	1/30~1/200	○		
	구조 단면도	1/30~1/200	○		
	기초일람표	1/30~1/100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기둥 일람표	1/30~1/100	○		
	보 일람표	1/30~1/100	○		
도면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윤변 일람표	1/30~1/100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집배근 일람표	1/30~1/100	○		
	주심도	1/30~1/200	○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코아 상세도	1/30~1/50	○
		접 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보접합 상세도	1/5~1/50	○
BRACE 접합 상세도			1/5~1/50	○	
집 상세도	DECK PLATE 설치도	1/5~1/50	○		
	STUD BOLT 설치도	1/5~1/50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집 상세도	1/5~1/50			
기 타 상세도	가구도	1/5~1/50			
	각부구조 상세도	1/5~1/50			
기 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1/5~1/50			
	캐노피	1/5~1/50			
	파라렛	1/5~1/50			
	TRUSS	1/5~1/50			

다. 기계

종 류		내 용	속 직	도서평균품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무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도면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목록표	도면목록,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압 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 평면도	1/5~1/50		
	화장실 확대 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저수조, 고기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 · 단면도	1/5~1/50		
	살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각종 장비 상세도		1/5~1/50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장비, 밸브, 관제점, 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라. 전기

종 류	내 용	측 적	도서정규권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용량	○	
	설계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도면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계통도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상세도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조명기구 상세도	1/50이상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0이상		
	피뢰침 상세도	1/50이상		
	접지 설비 상세도	1/50이상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0이상		

바. 조경

종 류	내 용	측 적	도서정규권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설계설명서			
도면	도면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0이상	
		지주목 상세도	1/100이상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0이상	
		조명등 상세도	1/100이상	
플랜터 상세도		1/100이상		
	사설물 상세도	1/100이상		

마. 토목

종 류	내 용	측 적	도서정규권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율 산정하여 작성		
	설계설명서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대지 종 횡단면도	필요축적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흙막이 상세도	굴로깊이 10M 미만	1/5~1/50	○
	포장상세도		1/5~1/50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
	옹벽 상세도		1/5~1/100	○
	담장 입·단면도		1/5~1/100	
	담장 상세도		1/5~1/100	
	방음벽 상세도		1/5~1/100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우·오수 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2003년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시정금리(5~6% 수준) 및 국세환급 가산금이자율(1일 0.013%, 연 4.75%)을 감안하여 가산세율 인하 - 1일 0.05%(연 18.25%) → 1일 0.03%(연 10.95%)로 인하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 무납부일수 × 3/10,000
-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신고 분부터 적용

대손세액 공제시유 확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초과한 소액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함
-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03.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에 따른 승인일을 명확히 규정

-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승인여부를 세무서장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여부 통지가 지연된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 세무서장이 2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
- 2003. 1. 1. 이후 최초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법인 등기부등본의 첨부를 제외함
- 2003.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인·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

- 인·허가 과정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위해 위장폐업을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는 때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토록 함
- 2003. 7. 1. 이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거래처별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거래처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하여 교부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함
- 2003.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전산데이터 등으로 제출 가능

- 현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서류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데이터 또는 디스켓으로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2003.1.1.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용역에 대

한 영세를 적용시킨 연장

- 월드컵 이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 영세를 적용 시한(당초 적용시한 : 2002.12.31.까지)을 6개월 연장하여 2003. 6. 30.까지 영세를 적용
- 2003. 7. 1.부터 과세됨

■ "가능성 쌀" 부가가치세 면세

-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촉진을 위하여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가능성 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면세 요건】

-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쌀을 분쇄한 후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종류의 것은 과세
- 쌀의 함량이 90% 이상이고, 쌀전분의 호화정도가 40% 이하일 것
-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 시중제품 중 녹차쌀(쌀 50%, 밀가루 47%, 녹차 3%로서 쌀을 분쇄한 후 재성형)은 계속 과세됨

■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제주도를 여행하는 국내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미화 300불의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의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내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지원
- 제주도 내국인면세점 제도의 내용
-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반출하는 경우, 구입시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의 세

금을 면제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를 적용)
-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 1인당 1회에 35만원 이하, 연 4회 구입 허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를 적용)
- 제주도여행객의 범위
- 제주도에서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19세 이상의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을 말함
- 2002. 9.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장애인용정보통신기 등에 대한 영세를 적용

-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 다만, 범용성이 없고 장애인용으로만 특수 제작된 것에 한정하여 영세를 적용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현재 영세를 적용 중인 품목)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매트리스·쿠션

· 침대 등 옥창에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서민의 국민주택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면세적용
-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농어업용 면세유류 적용시한 연장 및 공급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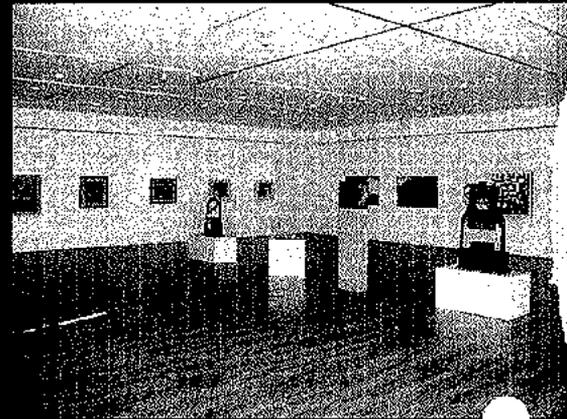
- 농·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2003. 6. 30.까지 전액 면제하고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는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적용시한을 각각 2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등을 지원하고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대함
- 2005. 6. 30.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는 100분의 75를 감면
- 임업인의 임업용기재에 대하여도 면세유 공급
-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

전 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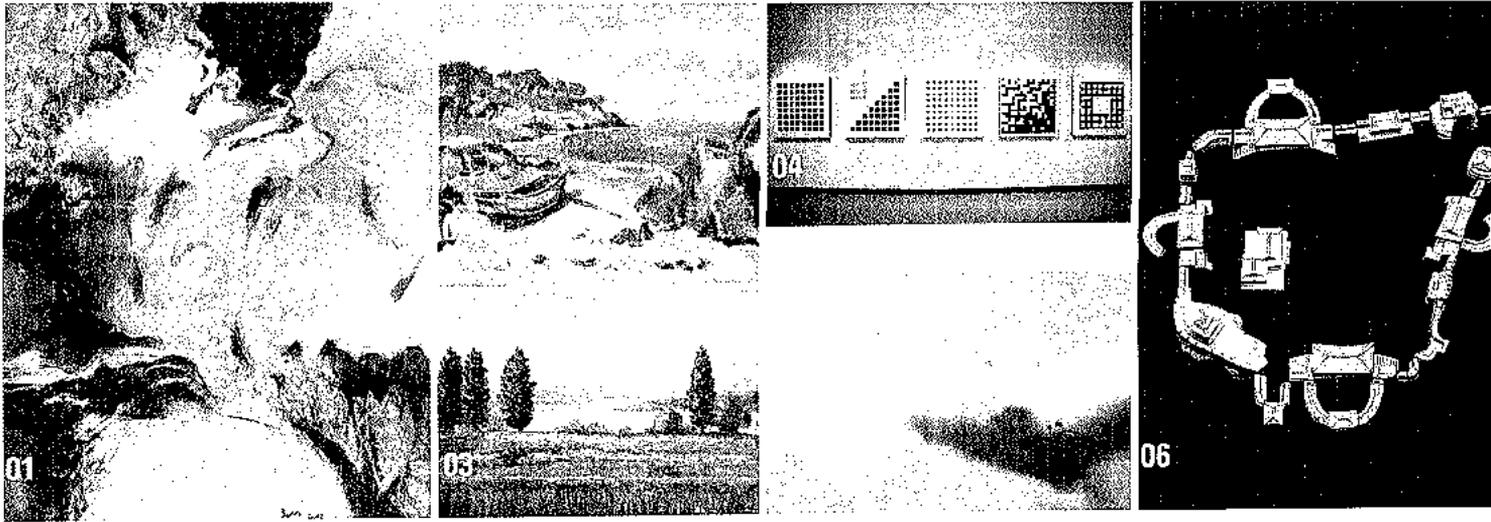
Time : 2003. 01. 21thu - 01. 27mon

Place : 대한건축사협회 Architect' s Gallery



The 11th Art Exhibition by Architects

제11회 건축가미술전



01_정영호 노고지리 72.7×53cm 02_김정행 포구 45.5×37.9cm 03_유희준 강변 풍경 45×33cm 04_조성렬 큐비즘그래픽 100×100cm 05_손석진 Creation 1 | Mixed Media | 130×80cm 06_양해윤 건축도자 미니어처 07_강성익 정박 | 116.5×91cm | 2002 08_조성렬 큐비즘그래픽 | 100×100cm 09_신홍경 Cross | 50×50cm 10_김낙중 A Plan-Sepia 60×70cm 11_이관직 해남 일지암 | 수채화 | 49.5×34cm | 2002 12_이원희 시월 | 35×55cm 13_김석환 순천만의 겨울 14_최영집 image-03 15_김정곤 Elevation | 69×105cm

